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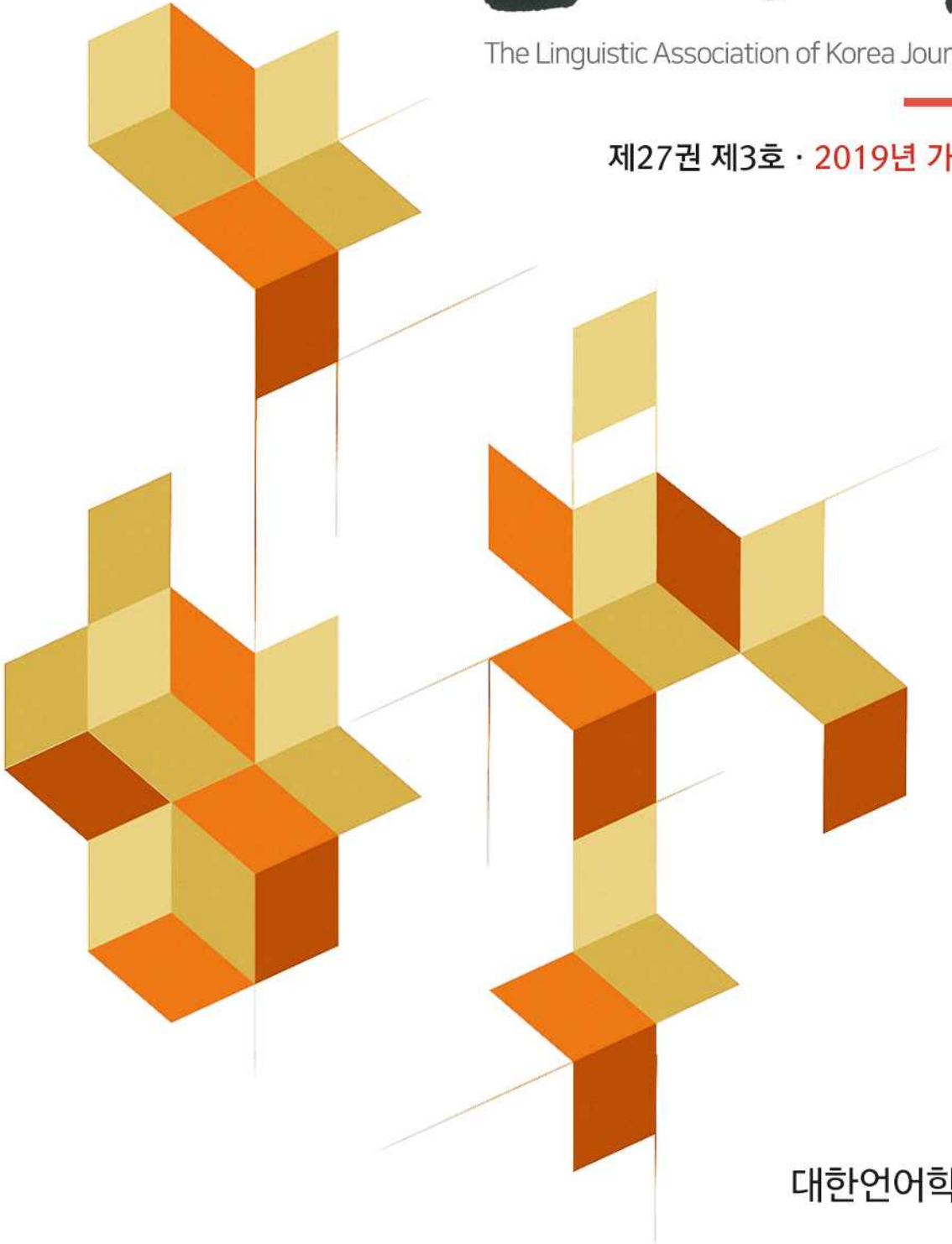
ISSN 2671-6283 (Online)

# 언어학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

제27권 제3호 · 2019년 가을



대한언어학회

대한언어학회

[www.korling.or.kr](http://www.korling.or.kr)

# 언어학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제27권 제3호  
2019년 가을

ISSN 2671-6283(Online)

## 대한언어학회 제13대 임원 및 상임이사 (2019. 1. 1. ~ 2020. 12. 31)

회 장 이 인(전주교대)

부 회 장 이종근(목포대), 구종남(전북대), 권영수(대구가톨릭대), 김양순(한밭대),  
김종미(강원대), 김종복(경희대), 박명관(동국대), 양창용(제주대),  
오관영(전남대), 유은정(서울대), 이광호(경상대), 이상오(호원대),  
이예식(경북대), 이창학(공주교대), 이희철(전북대), 임채경(대구예술대),  
장세은(한국해양대), 최영주(조선대)

총무이사 심재우(전북대)

재무이사 조기현(군산대)

학술이사 김대영(전주대), 고영진(대진대), 김용하(안동대), 박시균(군산대),  
송경안(전남대), 오미라(전남대), 우길주(부산교대), 이용훈(충남대),  
정진완(전북대), 조세연(강원대), 최문홍(전남대)

편집이사 안정근(전북대), 김종혁(전북대), 박혜숙(군산대), 신동진(전주대),  
이보림(원광대), 조영순(전남대), 홍선호(서울교대), 황보영식(성결대),  
Jocelyn Wright(목포대)

정보이사 손현성(HELT Zone), 김선영(목포대), 박강훈(전주대), 인동(호남신학대),  
이승한(초당대)

섭외이사 고광운(연세대), 박남규(건양대), 배지영(공주대), 심규섭(세한대),  
임상봉(진주교대), 최선희(전주대)

홍보이사 김창수(건양대), 고재설(우석대), 김영철(공주교대), 오마리아(전주교대),  
유문영(광주대), 이두원(한국교통대), 조윤경(목포대),  
Ian Moodie(목포대), Jin Ming Hao(Yanbian Univ.),  
Yin Xiaoteng(Binzhou Medical Univ.)

감 사 신근영(전남대), 김대영(전주대)

이 사 강석한(건국대), 강성관(광주대), 강희조(조선대), 구재명(광주교대),  
김성식(전주교대), 김완호(원광보건대), 김태호(부산대), 김혜정(광주여대),  
박기성(부산대), 박분주(대구가톨릭대), 서홍원(연세대), 리아순(경북대),  
손중선(대구교대), 심창용(경인교대), 안병규(전남대), 안희돈(건국대),  
엄홍준(계명대), 양현권(서울대), 오영일(서울과기대), 윤관희(대구대),  
이숙향(원광대), 임윤경(원광대), 임희정(서울교대), 장소영(군산대),  
정규태(한남대), 최인철(경북대), 최재혁(목포대)

◆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이종근(목포대)

위 원 김중복(경희대), 양병선(전주대), 엄철주(전남대), 이인(전주교대),  
이희철(전북대), 조세연(강원대)

◆ 편집위원회

위 원 장 안정근(전북대)

○ 음성/음운/형태 분과위원장 : 정진완(전북대)

위원 : 강석한(건국대), 김종미(강원대), 신동진(전주대), 이숙향(원광대),  
최재혁(목포대), Arto Anttila(Stanford U.)

○ 통사분과 위원장 : 김중혁(전북대)

위원 : 심창용(경인교대), 이광호(경상대), 조기현(군산대), 최인철(경북대),  
홍선호(서울교대), Robert Van Valin (SUNY Buffalo)

○ 의미/화용 분과위원장 : 김대영(전주대)

위원 : 김태호(부산대), 박기성(부산대), 이희철(전북대), 조영순(전남대),  
조운경(목포대)

○ 응용/교육 분과위원장 : 심재우(전북대)

위원 : 김영철(공주교대), 박남규(건양대), 박분주(대구가톨릭대), 박혜숙(군산대),  
우길주(부산교대), 임희정(서울교대), 장소영(군산대)

자문위원 김수곤(전북대), 김동석(대구대), 류종택(호원대), 박효명(전남대),  
윤석화(원광대), 이영현(조선대), 조학행(조선대), 이남근(조선대),  
김재민(전북대), 이정식(원광대), 임경섭(동신대), 양병선(전주대),  
엄철주(전남대)

◆ 학회산하연구회

연구회	대표	연락처	이메일
국어교육연구회	구종남(전북대)	063-270-3171	jnkoo@jbnu.ac.kr
통사-의미론 연구회	고재설(우석대)	063-290-1321	jskoh@mail.woosuk.ac.kr
음성음운연구회	정진완(전북대)	063-270-3205	atchung@hanmail.net
HPSG 연구회	채명희(조선아공대)	062-224-7584	mhchai@cst.ac.kr
RRG 연구회	박기성(부산대)	051-510-2043	kspark@pusan.ac.kr
로망스어연구회	김원필(조선대)	062-230-6909	wpkim@chosun.ac.kr
영문로마자표기법연구회	양병선(전주대)	063-220-2213	bsyang@jj.ac.kr

# 언어학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제27권 제3호 | 2019년 가을  
ISSN 2671-6283(Online)

## 목 차

한국인의 불평 화행 연구 안정근	1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표현 문형 사용 양상 연구 이유미	2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Korean EFL Learners Young Ah Cho · Youngsu Kim	53
Gapping in <i>V+ko</i> Construction in Korean as Dependent Ellipsis YoungSik Choi	75
An Alternative Account of English Consonant Cluster Adaptations in Bengali Dialects Chin-Wan Chung	99
Labeling and Moving Adjunction Structures Rhanhyeyun Kim	125
Readers' Language Experience in Generating Korean <i>Wh</i> -Constructions On-Soon Lee	149

# 한국인의 불평 화행 연구\*

안정근

(전북대학교)

Ahn, Jeong Khn. (2019). A study of the complaint speech act for Korea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3), 1-22. This study examines Korean's complaint speech act in which 204 subjects participated in survey that elicited their responses from ten complaint situations. As somewhat anticipated, they opted out 31.3% of the total responses in survey questionnaire and used only 4.74 words on average on a complaint situation, which means that they complained very shortly. Gender difference is found in which men used more words than women. Age group difference is also found in which the lower age group used more words than the older age group. Considering social factors, the study finds that relatives used less words than other social groups including strangers, acquaintances, and friends, and the respondents used more words when social obligation was more explicit than implicit. For severity level on a 1 - 5 scale, their severity level in the study is 2.54 on average which indicates that they complained in the middle of indirect and mitigated on the severity scale. Gender difference is not found but age group difference is found for severity level in which the 21-29 age group's severity level is higher than age group over 30 at  $p < .05$  level. Considering social factors for severity level, the study also finds that severity level is the greatest for friends and the weakest for relatives. For social status, severity level is the greatest for equals and the weakest for younger speakers. And for social obligation, severity level is found greater when social obligation was more explicit than implicit. They scarcely used softeners and intensifiers in the study.

**주제어(Key Words):** 한국인의 불평 화행((Korean's complaint speech act), 불평 화행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 in complaint), 불평 화행의 연령대별 차이(age group difference in complaint), 불평 화행의 사회 변인들(social factors in complaint)

---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화용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유럽에서 CCSARP (The 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로 각기 다른 언어권의 언어 행위를 서로 비교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후 불평 화행도 다른 언어 행위 예컨대 사과 화행, 감사 화행, 거절 화행 등과 같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다양한 화행을 다른 언어권과 비교하면서 한 언어권이 보이는 독특한 화행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Blum-Kulka, 1989; Weizman, 1989).

국내에서의 불평 화행 연구 또한 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보이는 불평 화행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오상이, 2005; 혼다 토모쿠니 & 김인규, 2009; 진양, 2010; 이선희, 2010, 2012) 특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미즈시마 히로코, 2003; 조정민, 2004; 홍승아, 2010; 박재현, 2012; 최연숙, 2013; 유양 & 양명희, 2014; 유양, 양명희 & 문지순, 2014; 김동희, 2015; 이금양, 2017; 정민주, 2017). 이러한 비교 연구 이외에 한국인의 불평 화행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고 그것을 한국어 교육에 접목한 연구도 있었고 (최명선, 2007; 강현화 & 황미연, 2009; Li Mingji, 2010; 이민정, 2010; 상일화, 2014; 증일첩, 2016; 카나모리 사야카, 2016) 이러한 화용 비교나 응용을 배제한 채 한국인의 불평 화행만을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 (김혜정, 2008; 유연, 2008; 곽소로, 2017).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보이는 불평 화행의 모습을 비교하는 국내 연구는 많은 편이 아니다. 오상이(2005)는 한국인과 독일인의 불평 화행 연구에서 한국인은 독일인에 비해 체면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표현을 쓰기 때문에 발화 길이가 길며 반면 독일인은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빈도수도 높다고 했다. 이선희(2010)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불평 화행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직접적인 발화와 행동을 하는 편이라고 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의 불평 화행의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미즈시마 히로코(2003)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그들의 공통된 지적은 한국인은 직접적인 불평을 한국어 학습자는 간접적인 불평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금양, 2017; 유양 & 양명희 & 문지순, 2014). 또한 이러한 차이는 한국에 온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나타났다. 정민주(2017)는 TV 프로그램 다문화 고부 갈등 대화에 나타난 불평 화행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직접적인 불평보다 간접적인 불평이 더 많다고 보고한 반면 김동희(2015)는 TV에 방영된 여성결혼이민자와 시어머니의 대화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보다 직접적인 불평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고 그것은 그들의 언어 이해 부족이나 언어



능력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렇게 상반된 두 연구 결과의 차이는 추후 더 많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결론에 다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자와 여성결혼이민자의 불평 화행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단지 이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의 결여나 화용의 결핍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어쩌면 Discourse Completion Test(DCT)를 이용한 설문 방식과 TV에 방영된 실제 화행의 차이인가 아니면 그들의 정체성(identity), 즉 그들은 누구인가가 이러한 화용의 차이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듯 국내에서의 불평 화행 연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 간의 불평 화행의 차이를 직접적 불평 아니면 간접적 불평의 편향성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편향성에 대한 제시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이는데, 김혜정(2008)은 고부 간 갈등 대화에서 시어머니는 공격적 발화를 며느리는 방어적 발화를 불평 전략으로 사용한다고 했고, 유연(2008)은 드라마에 나타난 불평 화행을 직접적인 불평과 간접적인 불평 전략으로 나누었고, 곽소로(2017)는 TV 토크쇼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불평 화행을 화자 중심과 청자 중심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듯, 국내에서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것이 직접적인 화행 또는 간접적인 화행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핀 것이고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 간의 불평 화행 차이도 거의 어느 집단이 직접적인 불평 화행이나 간접적인 불평 화행을 더 사용하는지 조사한 것이었다. 또한 DCT를 이용한 불평 화행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가 너무 적은 편이어서 불평 화행의 일반적인 모습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이민정(2010)의 연구에 참여자는 120명(대학생 남녀 각 30명, 직장인 남녀 각 30명)이고 연령대도 10대 1명(0.8%) 20대 68명(56.7%) 30대 39명(32.5%) 40대 12명(10%)으로 다른 연구에 비해 참여자가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이 또한 한국인의 불평 화행을 제대로 밝히기에는 참여자의 수와 분포가 부족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가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와의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불평 화행 연구에서도 그 모습이 직간접적 화행에 맞추어져 있어서 한국인 불평 화행의 성별 차이, 연령 차이, 또는 사회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제대로 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거의 대다수의 화행 연구가 화행의 빈도수 차이만을 언급하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불평 화행의 성별 차이, 연령대별 차이, 그리고 사회 변인별 차이 등을 204명이라는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심도 있게 밝히려 한다.

## 2. 연구 방법

한국인 불평화행의 성별 차이, 연령대별 차이, 그리고 사회적 변인별 차이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불평 화행이 나타날 수 있는 10 개 상황을 설정하고 각각의 상황에 화자가 어떻게 불평을 하는지 기술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상황이란 화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화행 연구의 설문에서는 응답자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마치 그것이 자기 입장인 것처럼 응답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목소리가 아니었다. 예컨대 만약 당신이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당신 자리에 끼어들어 주차한다면 어떻게 불평하시겠어요 하는 식이다. 평생 이런 경험도 없고 차도 없는 응답자라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응답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이런 식의 상황을 배제하고 모든 응답자가 가능한 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보편적 상황을 설정했다. 또한 각각의 설문 항목은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 변인(social factors)을 고려하여 10 개 항목 모두 다른 변인들의 조합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 변인은 사회 거리 (social distance), 신분 (social status), 그리고 사회 의무 (social obligation) 3 가지이며, 사회 거리는 친한 정도로 1. 낯선 사이 (strangers), 2. 아는 사이 (acquaintances), 3. 친구 (friends), 4. 친족 (relatives)으로, 신분은 화자와 청자 간 나이를 고려하여 1. 화자가 어린 경우, 2. 청자가 어린 경우, 3. 동등한 경우 (equals)로, 사회 의무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1. 분명한 경우 (explicit), 2. 불분명한 경우 (implicit)로 구분했다. 본 연구의 10 개 설문 항목은 이러한 사회 변인들을 배타적으로 배열했다. 예컨대 1번 항목의 사회 변인이 화자와 청자 간 낯선 사이,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로 구성되었다면 2번 항목은 화자와 청자 간 아는 사이,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로 구성되었다. 아래는 본 연구의 설문지이며 괄호에 표시한 것은 설문에는 나타나지 않은 10 개 설문 항목의 사회 변인이다.

설문지

성별(남, 여) 나이 (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말을 하나요?

할 말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식당에서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옆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낯선 사이,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2.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웃집 아줌마가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을 때  
(아는 사이,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3. 버스표를 사려고 줄 서 있는데 당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새치기를 할 때  
(낯선 사이, 청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4. 당신보다 나이 많은 단골 식당 아주머니가 준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을 때  
(아는 사이,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5. 한 아이가 도서관에서 귀에 거슬리게 전화를 하고 있을 때  
(낯선 사이, 청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6. 두어 번 만난 적 있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에게 반말을 할 때  
(아는 사이, 청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7. 저번처럼 이번에도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게 나왔을 때  
(친구, 동등한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8. 전에 빌려준 돈도 갚지도 않고서 친구가 돈을 또 빌려 달라고 할 때  
(친구, 동등한 경우, 사회적 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9. 당신보다 나이 많은 집안 어른이 당신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할 때  
(친족,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10. 집안에서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항상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할 때  
(친족, 청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위 설문지에서 보이듯, 각각의 설문 항목은 기존 화행 연구 (Blum-Kulka, 1989; Olshtain & Weinbach, 1993)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DCT가 아니라 Katz(1987)가 사용한 반응유도문항(reaction elicitation questionnaire) 또는 Ahn(2011, 2012) 그리고 안정근(2015)에서 사용한 개방형 설문이다. DCT는 화자의 응답을 어떤 틀 속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이러한 개방형 설문은 화자로 하여금 자기 마음껏 응답을 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자유로운 화자의 응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을 채택했고 본 설

문은 2018년 일 년여에 걸쳐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3. 연구 분석 및 결과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204 명이며 그 중 남자는 98 명(48.0%) 여자는 106 명(52.0%)이다. 나이는 14세에서 82세까지며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 40 명(19.6%), 21-29세 87 명(42.6%), 그리고 30세 이상 77 명(37.7%)의 3 집단으로 나누었다.

#### 3.1. 무응답률

설문에 참여한 204 명이 각각 10 문항씩 모두 응답할 경우 총 2,040 개의 문항 수가 나오는데 설문에서 안내한 대로 할 말이 없는 경우 응답을 안 해도 되었기에 무응답 문항 수가 많이 나온 편이다. 즉, 본 연구의 설문 문항에서 불평을 안 한 경우(opt-out)가 638 문항으로 전체 2,040의 31.3%에 달한다. 이 수치는 불평 화행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인의 불평 화행의 특징이라고는 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Katz(1987)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처럼 응답을 안 한, 즉 그의 표현대로라면 회피(avoidance)를 한 경우가 영국인(British) 35.0%, 미국인(American) 39.0%, 그리고 이스라엘인(Israeli) 36.0% (Olshtain & Weinbach, 1993, p. 113)에 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31.3%의 무응답률은 어느 정도 다른 민족의 수치와 비슷하다. 즉 어느 특정한 인종을 떠나서 불평 화행은 다른 화행에 견주어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평 화행이 초래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며 극단적으로는 인간관계의 단절로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1은 각 설문 항목 당 무응답률이다.

표 1. 설문 항목별 무응답률

설문 항목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응답	N	123	128	168	116	160	133	168	194	87	177	1402
	%	60.3	37.3	82.4	56.9	78.4	65.2	82.4	95.1	42.6	86.8	68.7
무응답	N	81	128	36	88	44	71	36	10	117	27	638
	%	39.7	62.7	17.6	43.1	21.6	34.8	17.6	4.9	57.4	13.2	31.3
전체	N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위 표 1에서 보이듯, 무응답률이 높은 설문 항목은 2번(62.7%)과 9번(57.4%)이다. 무려 과반수가 넘는 무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 두 항목의 공통점은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로서 2번 이웃집 아줌마가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을 때나 9번 집안 어른이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해낼 때 불평을 삼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8번(95.1%)과 10번(86.8%)인데 8번 친구 사이에서 불평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10번 집안 어른이 어린 사람에게 불평을 스스럼없이 해대는 것을 볼 수 있다.

### 3.2. 단어 수

각 설문 항목별 응답자가 사용한 단어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이듯, 응답자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 단어 수는 1,402 개며 항목별 평균 4.74 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즉 응답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는 경우도 31.3%에 달하고 있지만 불평을 할 때도 매우 절박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언어권 연구에서 밝힌 평균 수치보다 아주 적다. 예컨대, Blum-Kulka & Olshtain (1986)의 Hebrew 화자 불평 화행 연구에서는 평균 7.05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Hebrew를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 이것보다 많은 평균 10.14 개의 단어 수를 사용하고 있다. 즉, 무응답률은 타 언어권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불평할 때 사용하는 단어 수는 한국인의 경우 매우 적다는 것이다.

표 2. 설문 항목별 단어 수

설문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1	123	2	16	5.59
2	76	1	22	4.92
3	168	1	14	4.81
4	116	2	14	5.17
5	160	1	23	4.97
6	133	1	15	5.21
7	168	1	14	4.43
8	194	1	20	4.88
9	87	1	8	2.51
10	177	1	14	4.43
전체	1,402	1	23	4.74

불평할 때 사용하는 평균 단어 수도 설문 항목별 차이가 있는데 평균 단어 수가 많은 항목은 1번(5.59 개)과 6번(5.21 개)이다. 이 두 항목의 공통점은 불평을 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분명한 경우라는 점이다. 특히 6번의 경우 나이가 어린 사람이 화자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길게 불평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1번의 경우 나선 사람에게 그것도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불평하는 경우인데 비록 무응답률이 39.7%에 달하지만 일단 불평을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의 경우보다 단어 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쩌면 첫 번째 설문 항목이라는 점도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길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 불평할 때 사용하는 평균 단어 수가 현저하게 적은 항목은 9번(2.51 개)이다. 이 경우는 당신보다 나이 많은 집안 어른이 당신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해대는 경우인데 무응답률도 57.4%에 달하고 불평할 때에도 아주 짧게 한다는 것이다. 평균 단어 수가 2.51 개라는 것은 거의 두어 마디로 불평을 끝낸다는 것이다. 상대가 집안 어른인 만큼 불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3.3. 성별 및 연령대별 단어 수 차이

SPSS 25를 이용하여 성별 및 연령대별 단어 수 차이를 알아보았다.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성별 단어 수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단어 수	남자	667	4.97	2.797	6.958	.003
	여자	735	4.54	2.720		

표 3에서 보듯이, 남자는 설문 항목 10개를 통틀어 총 667 개의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항목 별 평균 4.97 개를 사용한 것이다. 반면 여자는 총 735개를 사용하였고 이는 항목 별 평균 4.54개를 사용한 것이며 이 두 집단 간 단어 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F = 6.958, p = .003$ ).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불평할 때 좀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연령대별 단어 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와 Tukey HSD를 실행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연령대별 단어 수 차이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20세 이하	274	5.48	3.609
21-29세	601	4.88	2.610

30세 이상	527	4.21	2.287
전체	1,402	4.74	2.764

## One-way ANOVA

단어 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value
집단 간	311,808	2	155.904	20.985	.000
집단 내	10393.753	1399	7.429		
전체	10705.561	1401			

## Tukey HSD

(I) 연령대	(J) 연령대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p-value
20세 이하	21-29세	.605	.199	.007
	30세 이상	1.275	.203	.000
21-29세	20세 이하	-.605	.199	.007
	30세 이상	.670	.163	.000
30세 이상	20세 이하	-1.275	.203	.000
	21-29세	-.670	.163	.000

본 연구에서는 표 4에 나타나듯, 연령대를 3 집단 (20세 이하 19.6%, 21-29세 42.6%, 그리고 30세 이상 37.7%)으로 나누었다. 설문 항목 10 개를 통틀어 20세 이하는 총 274 단어 (평균 5.48 개)를, 21-29세는 총 601 단어 (평균 4.88 개), 그리고 30세 이상은 총 527 단어 (평균 4.21 개)를 사용하였다. 이 세 집단 간 단어 수 차이는 표 4에서 보듯 집단 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 $F = 20.985$ ,  $p = .000$ ). 즉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불평할 때 좀 더 많은 단어 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 3.4. 불평 정도 (severity scale)

본 연구에서는 불평 정도를 다음의 5 가지 척도로 구분하였다: 1. 불평하지 않음 (opt-out), 2. 간접적 불평 (indirect), 3. 완곡한 불평 (mitigated), 4. 직접적 불평 (unmitigated), 5. 경고 (warning or threat). 전반적으로 화용 연구에서는 불평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불평하지 않음을 제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불평의 가장 소극적 단계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무용

답의 경우가 본 연구에서도 31.3%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불평 정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atz(1987)가 언급한 무응답 (avoidance)의 개념을 불평하지 않음 (opt-out)으로 간주하고 불평 정도의 가장 낮은 척도를 주었다. 그렇기에 이것은 Olshtain & Weinbach (1993, p.115)가 채택한 가장 낮은 불평 정도인 slightly below the level of reproach와는 다르다. 그들이 어떻게 무응답을 처리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 표 5는 설문 항목 별 불평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설문 항목별 불평 정도

설문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204	1	5	2.32	1.241
2	204	1	5	1.90	1.249
3	204	1	5	2.76	1.230
4	204	1	5	2.42	1.346
5	204	1	5	2.68	1.093
6	204	1	5	2.54	1.401
7	204	1	5	3.02	1.303
8	204	1	5	3.13	.981
9	204	1	4	1.63	.835
10	204	1	5	3.05	1.131
전체	2,040	1	5	2.54	1.280

표 5에서 보듯, 불평 정도가 심한 경우는 8번(3.13), 10번(3.05), 그리고 7번(3.02)이다. 7번과 8번의 공통점은 친구 사이인데 바로 친구 사이일 때 불평의 강도가 세계 나타났다. 10번은 집안 어른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불평을 하는 경우인데 불평의 강도가 3.02면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다한 경우이다. 반면, 불평 정도가 약한 경우는 9번(1.63)과 2번(1.90)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로 이 정도의 불평은 간접적인 불평으로 봐야 한다. 나이 어린 화자가 자기보다 어른에게 직접적인 불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평균 불평 정도는 2.54다. 이 수치는 간접적 불평과 완곡한 불평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즉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3.5. 성별 및 연령대별 불평 정도 차이



성별 불평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성별 불평 정도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불평 정도	남자	980	2.53	1.299	1.227	.268
	여자	1,060	2.56	1.262		

표 6에서 보이듯, 남자의 불평 정도 평균은 2.53, 여자의 불평 정도 평균은 2.56으로 남녀 간 불평 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1.227, p = .268).

연령대별 불평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와 사후검정으로 Tukey HSD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연령대별 불평 정도 차이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20세 이하	400	2.59	1.357
21-29세	870	2.60	1.333
30세 이상	770	2.46	1.169
전체	2,040	2.54	1.280

One-way ANOVA

불평 정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집단 간	9.815	2	4.907	3.002	.050
집단 내	3330.126	2037	1.635		
전체	3339.941	2039			

Tukey HSD

(I) 연령대	(J) 연령대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p-value
20세 이하	21-29세	-.016	.077	.977
	30세 이상	.132	.079	.217
21-29세	20세 이하	.016	.077	.977
	30세 이상	.148	.063	.052

30세 이상	20세 이하	- .132	.079	.217
	21-29세	- .148	.063	.052

표 7에서 보이듯, 20세 이하의 불평 정도 평균은 2.59, 21-29세는 2.60, 그리고 30세 이상은 2.46으로, 연령대별 불평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 $F = 3.002, p = .050$ ), Tukey HSD로 사후검정을 해보니 그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21-29세와 30세 이상의 두 집단 비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불평 정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 3.6. 사회 변인(social factors)별 단어 수 차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변인은 화용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 거리 (social distance), 신분 (social status), 그리고 사회 의무 (social obligation)의 3 가지다.

#### (1) 사회 거리별 단어 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친한 정도에 따라 1. 낯선 사이, 2. 아는 사이, 3. 친구, 4. 친족으로 나누었다. 아래 표 8은 One-way ANOVA를 실시한 사회적 거리별 단어 수 차이와 사후검정으로 사용한 Tukey HSD 결과이다.

표 8. 사회 거리별 단어 수 차이 One-way ANOVA

사회 거리	N	평균	표준편차
낯선 사이	451	5.08	2.887
아는 사이	325	5.13	2.776
친구	362	4.67	2.866
친족	264	3.80	2.096
전체	1,402	4.74	2.764

#### One-way ANOVA

단어 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집단 간	337.869	3	112.623	15.186	.000
집단 내	10367.692	1398	7.416		
전체	10705.561	1401			

## Tukey HSD

(I) 사회 거리	(J) 사회 거리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p-value
낮선 사이	아는 사이	-.052	.198	.994
	친구	.406	.192	.149
	친족	1.282	.211	.000
아는 사이	낮선 사이	.052	.198	.994
	친구	.458	.208	.124
	친족	1.334	.226	.000
친구	낮선 사이	-.406	.192	.149
	아는 사이	-.458	.208	.124
	친족	.876	.220	.000
친족	낮선 사이	-1.282	.211	.000
	아는 사이	-1.334	.226	.000
	친구	-.876	.220	.000

사회 거리별 단어 수 차이는 위 표 8에서 보이듯, 낮선 사이에서는 평균 5.08 개, 아는 사이에서는 5.13 개, 친구는 4.67 개, 친족은 3.80 개를 사용하였고 이들 집단 간 One-way ANOVA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 $F = 15.186$ ,  $p = .000$ ), 사후검정 Tukey HSD의 결과를 보면 친족과 다른 집단 간에서만  $p = .000$  수준에서 단어 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족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불평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 (2) 신분별 단어 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신분은 화자와 청자 간 나이를 고려하여 1. 화자가 어린 경우, 2. 청자가 어린 경우, 3. 동등한 경우 (equals)로 나누었다. 아래 표 9는 One-way ANOVA를 실시한 신분별 단어 수 차이이다.

표 9. 신분별 단어 수 차이 One-way ANOVA

신분	N	평균	표준편차
화자가 어린 경우	402	4.67	2.787
청자가 어린 경우	638	4.83	2.692
동등한 경우	362	4.67	2.866
전체	1,402	4.74	2.764

단어 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집단 간	8.334	2	4.167	.545	.580
집단 내	10697.227	1399	7.646		
전체	10705.561	1401			

표 9에서 보이듯, 신분별 단어 수는 화자가 어린 경우 평균 4.67 개, 청자가 어린 경우 평균 4.83 개, 그리고 동등한 경우 평균 4.67 개를 사용하였고 이들 집단 간 One-way ANOVA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 $F = .545$ ,  $p = .580$ ). 즉, 신분별 단어 수 차이는 없다.

### (3) 사회 의무별 단어 수 차이

본 연구에서 사회 의무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1. 분명한 경우와 2. 불분명한 경우로 구분했다. 아래 표 10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사회 의무별 단어 수 차이이다.

표 10. 사회 의무별 단어 수 차이 독립표본 t-test

사회 의무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단어 수					
분명한 경우	853	4.86	2.605	7.418	.007
불분명한 경우	549	4.56	2.988		

표 10에서 보이듯,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 평균 4.86 개의 단어를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불분명한 경우 평균 4.56 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이 두 집단 간 단어 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F = 7.418$ ,  $p = .007$ ). 즉,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4) 사회 거리별 불평 정도 차이

아래 표 11은 One-way ANOVA를 실시한 사회 거리별 불평 정도 차이와 사후검정으로 사용한 Tukey HSD 결과이다.

표 11. 사회 거리별 불평 정도 차이 One-way ANOVA

사회 거리	N	평균	표준편차
낮선 사이	612	2.59	1.203
아는 사이	612	2.28	1.360
친구	408	3.08	1.153
친족	408	2.34	1.222
전체	2,040	2.54	1.280

One-way ANOVA

불평 정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집단 간	176.187	3	59.729	37.795	.000
집단 내	3163.753	2036	1.554		
전체	3339.941	2039			

Tukey HSD

(I) 사회 거리	(J) 사회 거리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p-value
낮선 사이	아는 사이	.302	.071	.000
	친구	-.492	.080	.000
	친족	.248	.080	.010
아는 사이	낮선 사이	-.302	.071	.000
	친구	-.794	.080	.000
	친족	-.054	.080	.906
친구	낮선 사이	.492	.080	.000
	아는 사이	.794	.080	.000
	친족	.740	.087	.000
친족	낮선 사이	-.248	.080	.010
	아는 사이	.054	.080	.906
	친구	-.740	.087	.000

표 11에서 보이듯, 불평 정도 평균은 낮선 사이에서는 2.59, 아는 사이에서는 2.28, 친

구는 3.08, 친족은 2.34였고 이들 집단 간 One-way ANOVA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F = 37.795, p = .000$ ), 또한 사후검정 Tukey HSD의 결과를 보면 친족과 아는 사이 간 차이 ( $p = .906$ )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집단 간에서는 불평 정도 차이가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 사이가 불평 정도가 가장 심하고 친족 사이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5) 신분별 불평 정도 차이

아래 표 12는 One-way ANOVA를 실시한 신분별 불평 정도 차이와 사후검정으로 사용한 Tukey HSD 결과이다.

표 12. 신분별 불평 정도 차이 One-way ANOVA

신분	N	평균	표준편차
화자가 어린 경우	816	2.07	1.225
청자가 어린 경우	816	2.76	1.232
동등한 경우	408	3.08	1.153
전체	2,040	2.54	1.280

One-way ANOVA

단어 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집단 간	339.555	2	169.777	115.264	.000
집단 내	3000.386	2037	1.473		
전체	3339.941	2039			

Tukey HSD

(I) 신분	(J) 신분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p-value
화자가 어린 경우	청자가 어린 경우	-.690	.060	.000
	동등한 경우	-1.012	.074	.000
청자가 어린 경우	화자가 어린 경우	.690	.060	.000
	동등한 경우	-.322	.074	.000
동등한 경우	화자가 어린 경우	1.012	.074	.000
	청자가 어린 경우	.322	.074	.000

표 12에서 보이듯, 불평 정도 평균은 화자가 어린 경우 2.07, 청자가 어린 경우 2.76, 그리고 동등한 경우 3.08로 나타났고 이들 집단 간 One-way ANOVA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F = 115.264, p = .000$ ), 또한 사후검정 Tukey HSD의 결과를 보면 이들 집단 간 차이는 모든 경우에서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동등한 경우 불평 정도가 가장 세고 화자가 어린 경우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6) 사회 의무별 불평 정도 차이

사회 의무별 불평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사회 의무별 불평 정도 차이 독립표본 t test

사회 의무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불평 정도	분명한 경우	1,239	2.60	1.323	13.146	.000
	불분명한 경우	801	2.47	1.207		

표 13에서 보이듯,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 불평 정도는 평균 2.60이고 불분명한 경우는 평균 2.47이며 이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F = 13.146, p = .000$ ). 즉,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 강도가 더 세게 나타났다.

(7) 완곡어 (softeners)

불평할 때 완곡어, 예컨대 ‘저’, ‘좀’, ‘그러니까’ 등의 단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완곡어 사용 빈도

단어 수	1 개	2 개	3 개	평균	표준편차	전체
	291 (14.3%)	29 (1.4%)	6 (.3%)	1.13	.384	326 (16.0%)
결측						1,714 (84.0%)
전체						2,040 (100.0%)

표 14에서 보이듯, 완곡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결측) 경우가 84.0%에 달하기 때문에 불평할 때 완곡어 사용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사용한 경우 16.0%

에 국한해서 보면 평균 1.13 개의 완곡어를 사용하고 있다.

(8) 강조어 (intensifiers)

불평할 때 강조어, 예컨대 ‘너무’, ‘야’, ‘정말’ 등의 단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도 알아보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강조어 사용 빈도

단어 수	1 개	2 개	3 개	평균	표준편차	전체
	99 (4.9%)	17 (.8%)	3 (.1%)	1.19	.456	119 (5.8%)
결측						1,921 (94.2%)
전체						2,040 (100.0%)

표 15에서 보이듯, 강조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결측) 경우가 94.2%에 달하기 때문에 불평할 때 강조어 사용 또한 완곡어와 마찬가지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강조어를 사용한 경우 5.8%에 국한해서 보면 평균 1.19 개의 강조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불평할 때 완곡어나 강조어 사용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변수 예컨대 성별, 연령대 별, 또는 사회 변인들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 4. 결론

한국인의 불평 화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4 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그 중 남자는 98 명(48.0%) 여자는 106 명(52.0%)이,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 40 명(19.6%), 21-29세 87 명(42.6%), 그리고 30세 이상 77 명(37.7%)의 3 집단이 참여했다. 기존의 화행 연구에서는 대개 참여자의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거의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 확보한 204 명의 참여자 그것도 성별과 연령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단 연구 대상의 폭과 질은 확보한 셈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화행 연구에서 주로 채택한 DCT 설문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Reaction elicitation questionnaire를 실시했고 설문 문항도 설문에 참여한 자가 그 상황에서 타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되어 화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무엇보다도 기존 화행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한 내용이 주로 빈도 차이만을 언급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 t-test와 ANOVA를 실시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한국인의 불평 화행의 여러 모습을 찾아냈다.

먼저, 불평 화행이 쉽게 행해지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무응답률에서 나타났다. 설



문 항의 31.3%에서 응답이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다른 언어권의 불평 화행 연구의 무응답률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불평 화행을 꺼리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 특히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불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높은 무응답률은 불평 화행에 내재한 위험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할 때 사용한 단어 수 또한 매우 적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할 때 평균 4.74 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수치는 다른 언어권 연구에서 밝힌 평균 수치보다 아주 적은 것으로 불평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인들은 아주 짧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 나이 많은 집안 어른일 경우 불평을 삼가거나 하더라도 아주 짧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불평할 때 사용한 단어 수는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사회 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 $F = 6.958, p = .003$ ),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좀 더 많은 단어 수를 사용했다 ( $F = 20.985, p = .000$ ). 사회 거리별 단어 수 차이를 보면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 $F = 15.186, p = .000$ ) 사후검정 결과 친족과 다른 집단 간에서만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친족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불평이 매우 짧았다. 신분별 단어 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을 더 많이 했다 ( $F = 7.418, p = .007$ ).

불평 정도를 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평균 불평 정도는 2.54다. 이 수치는 간접적 불평과 완곡한 불평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즉, 한국인은 불평할 때 이 두 가지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불평 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 $F = 1.227, p = .268$ ), 연령대별 불평 정도는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불평 정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 $F = 3.002, p = .050$ ), 사후검정 결과 그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21-29세와 30세 이상의 두 집단 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 거리별 불평 정도 차이는 친족과 아는 사이 간( $p = .906$ )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F = 37.795, p = .000$ ). 특히 친구 사이가 불평 정도가 가장 심하고 친족 사이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신분별 불평 정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 $F = 115.264, p = .000$ ), 특히 신분이 동등한 경우 불평 정도가 가장 세고 화자가 어린 경우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 강도가 더 세게 나타났다 ( $F = 13.146, p = .000$ ).

완곡어나 강조어는 한국인의 불평 화행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불평 자체가 매우 간략하고 짧은 편이어서도 그렇겠지만 불평 화행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불평 화행은 그 성격 자체가 매우 위험한 언어 행위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아주 적은 단어 수, 낮은 수준의 불평 강도, 그리고 높은 무응답률 등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한국인 불평 화행을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사회 변인별로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한국인의 전반적인 불평 화행의 모습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안정근

하겠다.

## 참고문헌

- 강현화, 황미연. (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 - 불평화행과 인용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4, 5-31.
- 곽소로. (2017). 한국인의 불평 화행 연구: TV 토크쇼 및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동희.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공손표현 사용양상: 고부간 불평상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김혜정. (2008). 가족 간 갈등대화의 구조와 책략 연구-고부 부부 간 갈등 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미즈시마 히로코. (2003). 한국어 불평 화행의 중간 언어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재현. (2012). 서비스 상황에서의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상일화. (2014).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안정근. (2015). 한국인의 거절화행 전략: 나이와 남녀 차이. *언어학*, 23(1), 139-160.
- 오상이. (2005). 불만표시 발화행위: 독일인과 한국인의 상호문화 비교. *중등교육연구*, 53(2), 199-220.
- 유양, 양명희. (2014). 한국 내 중국인 직장인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 하위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6, 279-302.
- 유양, 양명희, 문지순. (2014). 한국 내 중국인 직장인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 상위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2(3), 135-154.
- 유연. (2008). 대화에 나타난 불평화행의 형식적 기제 연구-드라마 대화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9, 157-181.
- 이금양. (201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중국 내 20대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민정. (2010).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와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선희. (2010). 한국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의 서비스 장면에서의 불평 화행. *일본어교육*, 51, 15-26.
- 이선희. (2012). 한국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의 불평 응답 화행. *일본어교육*, 62, 129-141.

- 정민주. (2017). 다문화 고부 갈등 대화에 나타난 불평 화행의 실현 양상과 교육적 시사점. *국어교육연구*, 64, 21-48.
- 조정민. (2004). *한국어 불평에 대한 응답 화행 실현 양상 연구: 일본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증일철. (2016). *한국어 불평에 대한 응답 화행 실현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진양. (2010). *한국어와 중국어의 불평 화행에 관한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명선. (2007). *한국어 불평 응답 화행의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일본인, 중국인 학습자의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연숙. (2013). *구두 DTC와 회고적 보고 방법을 활용한 불평 화행의 전략 사용 연구: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카나모리 사야카. (2016).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불평화행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혼다 토모쿠니, 김인규. (2009). *한국어-일본어 불평 화행의 비교 문화 화용론적 연구*. *국제어문*, 45, 5 -44.
- 홍승아. (2010).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불평 화행의 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Ahn, J. (2011). Cross-cultural variations of apology realization in Korea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9(2), 261-285.
- Ahn, J. (2012). Why do Koreans explain a lot when making an apolog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3), 1-15.
- Blum-Kulka, S., & Olshtain, E. (1986). Too many words: Length of utterance and pragmatic failur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8, 47-61.
- Blum-Kulka, S. (1989). Playing it safe: The role of conventionality in indirectnes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 and apologies* (pp. 37-70). Norwood: Ablex.
- Katz, L. (1987). *Face risk in the expression of censure: A cross-cultural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chool of Education, Tel Aviv University.
- Li Mingji. (201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화행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Olshtain, E. & Weinbach, L. (1993). Interlanguage features of the speech act of complaining. In G. Kasper & S. Blum-Kulka (Eds.), *Interlanguage pragmatics* (pp. 108-12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eizman, E. (1989). Requestive hint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 and apologies* (pp. 71-92). Norwood:

안정근

Ablex.

**안정근**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화: (062)270-3213  
이메일: jkahn@jbnu.ac.kr

Received on July 31,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5, 2019

Accepted on September 30, 2019

#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표현 문형 사용 양상 연구\*

이유미

(전남대학교)

Lee, Yumi. (2019). A study on the use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s according to Korean learners' proficienc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3), 23-5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learners' use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s and their proficiency. A total of 75 learners of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beginner (N=25), intermediate (N=25), and advanced (N=25).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spond to a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 and to take a C-test on proficiency. The DCT included two questions for each discourse: suggestion, order, request, apology, refusal, and wish scenarios. In order to examine learners' use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s, this study considered both types and tokens. The analysis of Spearman's Rho revealed a low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s' use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s and their proficiency. Moreover, Fisher's exact test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hree groups in the use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s for order and refusal. The study showed that learners increased their use of polite expressions in the advanced group, and indicated that proficiency is associated with pragmatic knowledge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s.

**주제어(Key Words):** 표현 문형(expressive sentence patterns), 정형화된 표현(formulaic expressions), 숙달도(proficiency)

---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문화교육센터 차세대 한국학 연구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머리말

20세기 전반부의 외국어 교육에서 덩어리(chunks)로 나타나는 정형화된 표현(formulaic expressions)<sup>1)</sup>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대신 개별 단어와 문법을 언어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여 교수요목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코퍼스 언어학의 발달을 토대로 고빈도로 나타나는 단어 이상의 어휘적 단위(lexical units)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덩어리 형태의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이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인정받고 있다(Celce-Murcia, 2007).

정형화된 표현은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자주 사용하는 고정되고 미리 조립된(prefabricated) 덩어리 형식의 언어”를 가리키며(Celce-Murcia, 2007, p. 47), 관용 표현(idioms), 상용 표현(routines), 연어(collocations), 표현 문형(expressive sentence patterns) 등을 포함한다.<sup>2)</sup> 이 중 표현 문형은 한국어 문법 교육 단위로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문법 항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원운하박덕유, 2017). 그러나 국어의 기본 분석 단위인 형태소, 단어, 구, 문장 등의 형식으로 완전히 정의되지 않아 국어 문법의 단위로 분류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어학에서의 연구 대상이 되는 일도 드물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는 ‘-(으)ㄹ 뿐만 아니라’의 경우는 어미 ‘-(으)ㄹ’, 의존명사 ‘뿐’, 조사 ‘만’, 형용사 ‘아니다’의 활용형인 ‘아니라’가 결합한 것인데, 한국어 교재에서는 개별 형태소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전체 표현이 가지는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선행 요소 및 후행 요소의 제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sup>3)</sup> 이와 같이 어휘 범주와 문법 범주가 결합하여 복잡한 형태적 특성을 보이는 표현 문형을 외국어 교육에서 주목하게 된 이유는 화용적 기능(pragmatic function)과의 관련성과 문장 혹은 발화 구성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들 수 있다.<sup>4)</sup>

정형화된 표현이 외국어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학습자 숙달도와 의 관계 또한 주목을 받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상용 표현의 사용과 숙달도의 관계

1) 정형화된 표현은 ‘어휘 구(lexical phrases)’(Nattinger & DeCarrico, 1992), ‘어휘 꾸러미(lexical bundles)’(Biber et al, 1999; Hyland, 2008), ‘어휘 덩어리, 덩어리(lexical chunks, chunks)’(Lewis, 1993; Schmitt, 2000), ‘정형화된 배열, 정형화된 언어(formulaic sequences, formulaic language)’(Henriksen, 2013; Wray, 2000; Wood, 2002)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2) 관용 표현은 ‘미역국을 먹다’와 같이 구성 어휘의 합성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주로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다. 상용 표현은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와 같이 독립적으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습화된 표현을 말한다. 연어는 높은 공기 관계를 보이는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가리키며 넓은 의미에서 관용 표현, 상용 표현, 표현 문형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정형화된 표현의 하위 항목으로 연어는 주로 어휘적 연어(lexical collocations)를 가리킨다(Celce-Murcia, 2007).

3) ‘-(으)ㄹ 뿐만 아니라’는 서울대 한국어(4A) 2과, 연세 한국어(3-1) 4과, 이화 한국어(3-1) 3과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4) 강현화(2007b), 윤은미(2004), Blum-Kulka(1987), Searle(1976) 등 다수의 논의를 통해 기능(화행)과 표현 문형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Bardovi-Harlig et al., 2008), 언어의 사용과 숙달도의 관계(Revier, 2009; Laufer & Waldman, 2011),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과 숙달도의 관계(Rafieyan, 2018),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과 말하기 숙달도의 관계(Boers et al., 2006; Stengers et al., 2011),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과 작문 평가의 관계(신경선, 2012; 원미진, 2013) 등이 논의되었다.<sup>5)</sup> 그러나 정형화된 표현과 숙달도의 관계를 논의한 선행연구들은 정형화된 표현을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Boers et al., 2006; Stengers et al., 2011; Rafieyan, 2018; 신경선, 2012; 원미진, 2013). 즉 외국어 학습자에게 수집한 정형화된 표현의 용례들을 하위 항목으로 분석하지 않아 관용 표현, 상용 표현, 언어, 표현 문형 등이 가진 의미·기능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숙달도와 의 관계가 논의된 것이다. 물론 형태적 측면에서 ‘덩어리’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이한 의미·기능을 가진 개념들을 포괄하여 숙달도와 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실제 외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대해 어떠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정형화된 표현의 하위 항목에 대한 범주 설정이 전제된 후에 그들이 가진 의미·기능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숙달도와 의 관련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표현 문형은 한국어 문법 교육 단위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표현 문형과 화용적 기능의 관련성은 표현 문형 사용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표현 문형과 숙달도의 관계는 정형화된 표현이라는 개념 아래 다른 하위 항목들과 혼재되어 논의되었고,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독립적으로 표현 문형과 숙달도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형화된 표현의 다른 하위 항목들과 표현 문형이 가진 의미·기능상의 차이를 인식하여 표현 문형만을 대상으로 숙달도와 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표현 문형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추출된 표현 문형을 목록화한 후에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표현 문형이 사용되는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숙달도에 따른 구체적인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 표현 문형 사용과 숙달도는 상호 관련성이 있는가?
- (2) 숙달도에 따라 한국어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5) 국내에서 이루어진 표현 문형에 관한 연구는 표현 문형의 개념 설정(석주연, 2005; 이미혜, 2002; 이행산·김문기, 2017)과 유형 분류(강현화, 2007a; 김유미, 2005; 종장지, 2015; 최윤근, 2007; 최준 외, 2010)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개별 연구마다 표현 문형을 가리키는 용어와 유형 등이 통일되지 못하고 상이하게 제시되어 있다.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표현 문형의 개념

표현 문형<sup>6)</sup>은 한국어 교육에서 제시하는 문법 항목으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념과 범주가 통일되지 않아 이를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sup>7)</sup> 이미혜(2005)에서는 문법 항목으로서 특정한 의미-기능을 가지는 복합 구성을 ‘표현 항목’이라 부르며 ‘표 1’과 같은 범주를 설정하였다. 단일 구성을 제외한 복합 구성만을 표현 항목으로 처리하고 고정성과 형태적 특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표 1. 표현 항목의 구성(이미혜, 2005, p. 45-49)

단일 구성	통사 기능		화용 기능	
	형태소		단어	
복합 구성	구형(句形)	부분 고정	구형(句形)	부분 고정
		전체 고정		전체 고정
	문장형(文章形)	부분 고정	문장형(文章形)	부분 고정
		전체 고정		전체 고정

반면 강현화(2007b)에서 설정한 표현 문형의 범주는 이미혜(2005)와 차이가 있다. 강현화(2007b)는 이미혜(2005)에서 표현 항목으로 처리한 전체 고정 형태를 표현 문형이 아닌 ‘상용구문’으로 분류하고, 부분 고정 형태만을 표현 문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sup>8)</sup> 그리고 이미혜(2005)에서 제외한 단일 구성에 대해서도 특정한 의미-기능을 가지는 경우에 표현 문형으로 처

6) 표현 문형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양하다. ‘구문표현’(최윤곤, 2007), ‘문법표현’(유소영, 2013), ‘복합형태(표현 또는 덩어리말)’(이해영, 2003), ‘표현’(김중섭 외, 2011, 2017), ‘표현 문형’(강현화, 2007a, b; 김유미, 2005; 민현식, 2004; 종장지, 2015), ‘표현 항목’(이미혜, 2002, 2005) 등이 있다. 국외 연구에서 빈칸을 가진 부분 고정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는 Celce-Murcia(2007)의 ‘어휘적 틀(lexical frames)’, Lewis(1997)의 ‘부분 고정 표현(semi-fixed expressions)’, Nattinger & DeCarrico(1992)의 ‘구 제약(phrase constraints)’, ‘문장 구성소(sentence builders)’, Pawley & Syder(1983)의 ‘어휘화된 문장 줄기(lexicalized sentence stems)’, Racine(2018)의 ‘문장 틀(sentence frames)’ 등이 있다.

7) 표현 문형은 흔히 필수 성분을 중심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틀을 가리키는 ‘기본 문형’과 혼동되기도 한다. 이에 강현화(2007a, p. 6)에서는 국어학에서 논의하는 기본 ‘문형’을 ‘문장 형식’의 준말로, 한국어 교육에서 논의하는 표현 ‘문형’을 ‘문법 형태’의 준말로 구분하였고, 김중섭 외(2011, p. 33)에서도 한국어 교육에서 가리키는 ‘문형’을 국어학에서 가리키는 ‘문형’을 구분하여 설명한 바 있다.

8) 부분 고정 형태는 주로 문법 범주인 조사, 어미 등이 고정되어 있고 빈칸에 어휘 범주인 체언, 용언의 어간 등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리하였다. 두 연구에서 설정한 표현 문형의 범주는 고정성(전체 고정과 부분 고정)과 형태적 특성(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표현 문형의 범주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고정성을 기준으로 전체 고정 형태를 표현 문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 표현 문형이 가지는 문법 교육 항목으로서의 효용성이 낮아진다. ‘처음 뵈겠습니다’와 같은 전체 고정 형태는 완결된 단위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 및 발화를 구성할 때 일부를 대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성이 떨어진다.<sup>9)</sup> 둘째, 전체 고정 형태를 표현 문형의 범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정형화된 표현의 다른 하위 항목인 상용 표현<sup>10)</sup>과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표현 문형이 가진 교육적 효용성과 체계적 접근에서 주변 개념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부분 고정 형태만을 표현 문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형태적 특성을 기준으로 단일 구성을 표현 문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개별 형태소와 단어로 나타나는 단일 구성을 표현 문형으로 처리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첫째, 표현 문형을 덩어리 형태로 정의되는 정형화된 표현의 항목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둘째, 국어 문법 단위와 중복되기 때문에 대상을 지칭하는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3)은 강현화(2007b)에서 표현 문형으로 제시한 단일 구성이다.

### (3) 단일 구성의 표현 문형

- (으)자(제안), -게(명령, 요구), -세(제안), -아/어(요)(부탁, 명령, 요구)

(3)에 제시한 예들은 이미 ‘종결어미’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있으며 사전에도 어미로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예들을 교육적 목적에서 표현 문형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데 두 가지 용어가 사용되어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표현 문형이 하나의 언어 단위로 정착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3)에 제시된 예들은 개별 어미가 문장에서 실현되는 기능으로 보고 국어 문법 단위로 분류 가능한 형태소, 단어는 표현 문형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단일 구성을 표현 문형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더라도 여전히 범주 설정에 어려움이 남는다. 그것은 (4)와 같은 항목들을 복합 구성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4)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된 구성으로서 (4a)는 조사와 조사가 결합한 것이고, (4b)는 ‘-는다고 하니’, ‘-다고 했으면서’의 줄임말이다. (4a)와 (4b)는 두 개 이상의

9) 부분 고정 형태는 문장 혹은 발화 구성에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의존적 성격을 지닌다. 전체 고정 형태의 경우 다른 요소의 첨가 가능성은 있지만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분 고정 형태만큼 생산적이지 않다.

10) 상용구, 상용문, 제도화된 발화, 제도화된 표현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 상용 표현은 형태-통사적으로 완결된 구성으로서 단일한 형태적 구성, 형태 변화의 제약성, 발화의 분리성, 규범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조민정 외, 2009, p. 473-477).

요소가 결합된 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형태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이 여러 요소가 결합한 단일 어절을 표현 문형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몇몇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sup>11)</sup>

- (4) a. 에게로, 으로부터
- b. -는다니, -다면서

최윤곤(2007)에서는 단일 어절을 ‘문법 항목’, 2어절 이상을 ‘구문표현’으로 구분하여 범주 설정의 혼란을 해결하였다. 다시 말해 (4)와 같이 단일 어절로 나타나는 구성을 ‘문법 항목’이라는 별도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장지(2015)에서도 표현 문형의 판정 기준으로 형태의 다어절성을 제안하며 개별 조사와 어미 등을 배제시킨 바 있다. 종장지(2015)의 논의에 따르면 (4a)의 ‘에게로’는 학습자가 ‘에게’와 ‘로’를 학습한다면 해당 의미를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교육적 개념인 표현 문형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단일 어절의 복합 구성은 대부분 사전에 표제어(entry)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3)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어 문법 단위와 중복되어 오히려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종장지, 2015, p. 97-98).<sup>12)</sup>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표현 문형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표현 문형을 ‘부분 고정(semi-fixed) 형태로서 특정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2어절 이상의 복합 구성’으로 정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 2.2. 표현 문형 사용과 숙달도

언어 숙달도(language proficiency)는 포괄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지표로서 여러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Hymes(1972)에서 Chomsky(1965)의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이 실제 언어 사용과 관련한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언어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은 언어학과 외국어 교육의 연구 경향에 따라 변화하며 논의되어 왔는데,<sup>13)</sup> 주목할 것은

---

11)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이루어진 표현 문형의 범주 설정은 다음과 같다.  
 (i) 개별 형태소, 단어 포함: 강현화(2007b)  
 (ii) 단일 어절 포함: 김유미(2005), 유소영(2013), 이미혜(2005)  
 (iii) 2어절 이상 포함: 최윤곤(2007), 종장지(2015)

12) 표준국어대사전에 ‘에게로’, ‘으로부터’는 조사, ‘-는다니’, ‘-다면서’는 어미로 등재되어 있다.

13) Hymes(1972)에서는 언어학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Canale & Swain(1980)에서는 문법적 능력, 전략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Canale(1983)에서는 문법적 능력, 전략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Celce-Murcia et al.(1995)에서는 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담화적 능력, 행위적 능력, 사회문화적 능력을

Celce-Murcia et al.(1995)에서 제안한 모형을 수정한 Celce-Murcia(2007)의 의사소통 능력 모형이다. Celce-Murcia(2007)에서는 기존 모형에 정형화된 표현 능력(formulaic competence)을 독립된 항목으로 추가하여 변화를 주었다.

(5) Celce-Murcia(2007)의 의사소통 능력 모형

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담화적 능력, 상호작용적 능력,<sup>14)</sup> 사회문화적 능력, 정형화된 표현 능력<sup>15)</sup>

의사소통 능력 모형이 언어학과 외국어 교육에서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논의되어 온 것을 감안한다면 Celce-Murcia(2007)를 통해 정형화된 표현은 이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초반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 단어 이상의 어휘적 단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고,<sup>16)</sup> 이후 정형화된 표현의 교육 및 학습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되었다(Biber et al., 2004; Henriksen, 2013; Hyland, 2008; Wood, 2002).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켜 실제 외국어 학습자의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과 숙달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Rafieyan(2018)에서는 EFL 환경의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Bardovi-Harlig et al.(2015)에서 만든 담화 완성 테스트를 도입하여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과 숙달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 점수와 토플(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점수를 토대로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 스피어만 등위상관계수(spearman rank-order correlation coefficient)가  $rs=.729(p < .001)$ 로 나타나 두 변수 간에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Boers et al.(2006)에서는 EFL 환경의 벨기에 학습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험 집단에게만 정형화된 표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후 실시한 말하기 평가 결과에서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 빈도가 높았던 실험 집단이 유창성(flucency), 표현의 다양성(range of expression) 점수에서 통제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고,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Bardovi-Harlig et al.(2008)에서는 ESL 환경의 다국적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감사하기 2문항, 사과하기 2문항, 거절하기 2문항의 담화 완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중급 학습자 집단보다 고급 학습자 집단에서 상용 표현의 사용이 더 증가하는 것

---

의사소통 능력의 구인으로 보았다.

- 14) 상호작용적 능력은 Celce-Murcia et al.(1995)에서 제시한 행위적 능력(actional competence)에 대화 능력(conversational competence)을 추가하여 수정한 것이다.
- 15) Celce-Murcia(2007, p. 48)에서는 정형화된 표현 능력의 하위 항목으로 관용 표현, 상용 표현, 연어, 어휘적 틀(lexical frames)을 두었는데, 어휘적 틀이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표현 문형에 대응한다.
- 16) Lewis(1993, 1997)에서는 어휘적 접근법(lexical approach)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휘적 단위를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이와 비슷한 논의들이 전개되었다(Nattinger & DeCarrico, 1992; Pawley & Syder, 1983; Willis, 1990).

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한국어 학습자의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과 작문 평가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신경선(2012), 원미진(2013)이 있다. 신경선(2012)에서는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4급을 마친 학습자들의 작문에 사용된 정형화된 표현의 빈도와 작문 평가 점수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원미진(2013)에서는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어 학습자의 감상문과 보고서를 대상으로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과 작문 평가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정형화된 표현을 사용한 보고서가 글의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감상문의 경우에는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이 글의 완성도에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이 학습자의 숙달도, 말하기 및 쓰기 평가와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을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시도는 찾기 어려웠다. 다시 말해 관용 표현, 상용 표현, 연어, 표현 문형이 가진 상이한 의미·기능상의 특성을 간과한 채 하나의 범주로 논의되어 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관찰할 때에도 연구자나 평가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정형화된 표현을 판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Boers et al. 2006; 신경선, 2012), 이는 정형화된 표현의 개념과 범주를 정확히 설정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과 숙달도의 관계를 통계적 분석에만 의존하여 실제 사용 양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기도 하였다(Rafieyan, 2018).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표현 문형이 가진 화용적 기능과의 관련성은 표현 문형의 사용 맥락을 고려한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현 문형 사용과 숙달도의 관계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규명함과 동시에 실험을 통해 관찰된 표현 문형을 숙달도에 따라 제시하여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 3. 연구 방법 및 내용

#### 3.1. 실험 참여자

본 실험은 2019년 4월 23일~29일에 걸쳐 진행하였고,<sup>17)</sup> 실험에는 G도시에 거주하는 한국어 학습자 75명(남자: 43명, 여자: 32명)이 참여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대학의 한국어 교육

---

17) 본 실험에 앞서 한국어 학습자 17명을 대상으로 정보 요청하기 및 정보 전달하기 10문항으로 구성된 담화 완성 테스트를 예비 조사(pilot study)로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후에 이루어진 실험 참여자와의 인터뷰에서 담화 완성 테스트의 문항에 명시적이지 않은 부분이 지적되었고, 선행 발화에 있어서도 발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문항이 발견되었다. 또한 실험 결과에서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가 표현 문형 사용을 관찰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발견되어 이를 보완한 후에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관 연수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 참여자들은 베트남어(Vietnamese) 화자 38명, 중국어(Chinese) 화자 19명, 우즈베크어(Uzbek) 화자 9명, 기타 9명이었다.<sup>18)</sup> 실험 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한국어 교육 기관 단계 및 토픽(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등급을 기준으로 초급(1-2급) 25명, 중급(3-4급) 25명, 고급(5-6급) 25명이었다.<sup>19)</sup>

### 3.2. 실험 도구

#### 3.2.1. 숙달도 평가

Lee-Ellis(2009)에서는 숙달도 평가 도구로서 타당도를 보장하면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C-test를 개발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연구 내에서 자체 개발한 C-test에 대해 라쉬(Rasch) 모형을 통한 타당도 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다. Lee-Ellis(2009)의 C-test는 미국의 부처 간 언어 협의회(ILR, 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의 외국어 능력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하였고 빈칸과 함께 제시한 4개의 단락은 모두 다른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단락은 100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8개의 빈칸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평가 도구로서 타당도가 검증된 Lee-Ellis(2009, p. 270-273)의 C-test를 사용하여 숙달도 구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 앞서 Lee-Ellis(2009)의 C-test를 도입한 이은하(2015)에서 개발자의 조언에 따라 점수화한 방식을 적용하여 C-test 점수를 도출하였다.

##### (6) C-test 예시(Lee-Ellis, 2009, p. 270)

저는 대학 \_\_ \_\_ 다닙니다. 아침에 일어 \_\_ \_\_ 학교 체육 \_\_ \_\_ 갑니다. 체육 \_\_ \_\_ \_\_ 운동을 합 \_\_ \_\_. 운동을 한 다 \_\_ \_\_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은 기숙 \_\_ \_\_ 식당에서 먹습니다. 저는 대학 \_\_ \_\_ \_\_ 한국어를 배 \_\_ \_\_ \_\_. 한국어 수 \_\_ \_\_ 매일 오 \_\_ \_\_ 10시에 시작 \_\_ \_\_ \_\_. 한국어는 쓰 \_\_ \_\_ 말하는가 어 \_\_ \_\_ \_\_ \_\_. (중략)

#### 3.2.2. 담화 완성 테스트

정형화된 표현의 사용을 관찰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C-test, 빈칸 완성 테스트(cloze test)와 같은 통제된(controlled) 방법부터 자유 발화 및 자유 작문과 같은 개방형(open-ended)의 과제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Schmitt et al.(2004)에서 사용한 C-test의 경우

18) 기타 9명의 모어는 네팔어(Nepali) 1명, 대만어(Taiwanese) 1명, 몽골어(Mongolian) 2명, 바슬라마어(Bislama) 1명, 싱할라어(Sinhala) 1명, 우르두어(Urdu) 1명, 일본어(Japanese) 1명, 크메르어(Khmer) 1명을 포함한다.

19) 한국어 교육 기관 단계 및 토픽 등급에 근거한 한국어 숙달도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skills)과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정도이다.

는 실험을 통해 관찰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명시적 지식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Serrano et al.(2015), 신경선(2012)과 같이 그림이나 주제를 제시하고 자유 발화 및 자유 작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실험 참여자의 실제 언어 사용을 관찰하는 목적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분석 대상인 표현 문형이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평가 신뢰도를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된 과제와 개방형 과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학습자의 표현 문형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구로 담화 완성 테스트(DCT, Discourse Completion Test)를 도입하였다.

담화 완성 테스트는 1980년대 비교문화 화용론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문화 간 화행 실현 프로젝트(CCSARP, Cross-Cultural Speech Acts Realization Project)에서 다양한 언어권의 화행 전략을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로 담화 상황에 대한 짧은 설명과 선행 혹은 후행 발화를 제시하여 실험 참여자의 응답을 수집한다. 담화 완성 테스트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효용성이 논의된 바 있고(Beebe & Cummings, 1996; Houck & Gass, 1996; Kwon, 2004),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표현 문형이 가진 화용적 기능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실험 참여자들의 표현 문형 사용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의 압박이나 불안감에서 자유로운 읽고 쓰는 방식의 문어 담화 완성 테스트(WDCT,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를 선택하였다. 담화 완성 테스트의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김중섭 외(2017)에서 제시한 등급별 기능 목록을 참고하여 등급별 기능 목록에 제시된 총 52개의 기능들 중 1급부터 수행이 가능한 제안하기, 명령하기, 요청하기, 사과하기, 거절하기, 바람 표현하기를 2문항씩 일상적 화제로 구성하였다. 실제 담화 완성 테스트에서는 ‘표 2’에서처럼 동일한 기능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임의로(randomly) 배치하였고, 담화 상황 설명에서 표현 문형의 사용은 지양하였다.

표 2. 담화 완성 테스트 문항

기능	문항	담화 상황
제안하기	1	친구에게 영화 제안하기
	2	동료에게 점심 메뉴 제안하기
명령하기	3	동생에게 청소 명령하기
	4	부하 직원에게 업무 명령하기
요청하기	5	친구에게 책 빌리기
	6	점원에게 옷 교환하기

사과하기	7	친구에게 약속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
	8	처음 본 사람에게 주스를 쏟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
거절하기	9	친구의 노트북을 빌려달라는 요청 거절하기
	10	동료의 업무 도움 요청 거절하기
바람 표현하기	11	친구에게 시험 결과에 대한 바람 표현하기
	12	동료에게 월급 인상에 대한 바람 표현하기

### 3.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험에 앞서 실험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에 먼저 인구통계학적 조사(demographic survey)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예비 조사에서 적정 실험 시간으로 측정된 50분의 시간 동안 담화 완성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숙달도 평가를 위한 C-test를 30분 동안 진행하였다.

담화 완성 테스트는 적절한 기능 수행 여부와 표현 문형 사용을 확인하는 두 절차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문항의 응답이 담화 상황에서 요구하는 6가지의 기능에 부합하는가를 판정한 후에 그에 부합하는 결과만을 대상으로 표현 문형 사용을 관찰하였다. 표현 문형 사용은 표현 문형 사용의 다양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현 문형 유형(type)과 중복된 사용을 인정하는 표현 문형 토큰(token)으로 구분하여 1점씩의 점수를 부여하였다.<sup>20)</sup> 표현 문형을 유형과 토큰으로 구분한 것은 ‘사용’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목적이다. 얼마나 다양한 표현 문형을 사용하였는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였는가를 구분하여 표현 문형 사용에 대한 지표를 구체화하였다. 표현 문형의 판정 기준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표현 문형의 범주를 토대로 한국어 교재 및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다.<sup>21)</sup>

앞선 절차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실험 참여자들에게 수집한 한국어 교육 기관 단계 및 토픽 등급 정보에 따른 숙달도(고급, 중급, 고급)의 구분이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C-test 점수를 활용한 일원분산분석(ANOVA, analysis of variance) 및 사후검정(Scheff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표현 문형 사용과 숙달도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Fisher의 정확 검정(exact test)에 근거하여 숙달도에 따른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0) 만일 실험 참여자에게서 동일한 표현 문형이 4회 관찰될 경우에 표현 문형 유형 점수에는 1점, 표현 문형 토큰 점수에는 4점이 부여되었다.

21) 「서강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한국어교육 문법 자료편」을 표현 문형 판정에 활용하였다.

## 4.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숙달도 평가 및 담화 완성 테스트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 기관 단계 및 토픽 등급 정보를 통해 분류한 숙달도 구분이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C-test 점수를 활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초급, 중급, 고급 집단의 C-test 평균 및 표준편차이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원분산분석 결과에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72)=65.022, p < .001$ ). 개별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Scheffé의 사후검정 결과는 세 집단이 동일 집단군에 속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집단 간 C-test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세 집단이 각기 다른 숙달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3. C-test 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초급	중급	고급	전체
평균	43.120	65.840	129.800	79.590
표준편차	11.609	14.171	44.660	46.050

표 4. 숙달도 검증을 위한 일원분산분석(ANOVA) 결과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간	101004.187	2	50502.093	65.022**
집단-내	55922.000	72	776.694	
합계	156926.187	74		

\* $p < .05$ , \*\* $p < .001$

표 5. 숙달도 검증을 위한 사후검정(Scheffé) 결과

	평균 차이	표준오차	p
고급-중급	63.960	7.883	.000
고급-초급	86.680	7.883	.000
중급-초급	22.720	7.883	.020

‘표 6’은 담화 완성 테스트를 통해 추출한 표현 문형 유형과 표현 문형 토권을 숙달도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담화 완성 테스트에서 관찰된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문형 사용은 유형과 토



큰에서 모두 고급 학습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중급, 초급 학습자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6’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숙달도에 따라 어떤 유형의 표현 문형이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숙달도에 따른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숙달도에 따른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상관분석 및 Fisher의 정확 검정을 차례로 수행하였다.

표 6. 담화 완성 테스트에서 추출한 표현 문형 유형 및 토큰

	표현 문형 유형(type)	표현 문형 토큰(token)
초급(n=25)	20	109
중급(n=25)	22	142
고급(n=25)	30	206

#### 4.2. 표현 문형 사용과 숙달도의 상관분석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한국어 표현 문형 사용과 숙달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표현 문형 유형과 숙달도, 표현 문형 토큰과 숙달도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표현 문형 유형과 숙달도, 표현 문형 토큰과 숙달도는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p < .001$ ). 두 변수 간 관계의 방향과 정도(strength)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표현 문형 유형과 숙달도( $r_s=.468$ ), 표현 문형 토큰과 숙달도( $r_s=.476$ )가 낮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sup>22)</sup>

표 7. 표현 문형 사용과 숙달도의 상관분석

		표현 문형 유형(type)	표현 문형 토큰(token)
Spearman의 Rho	숙달도(집단)	.468**	.476**

\* $p < .05$ , \*\* $p < .001$

C-test 점수를 활용한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표현 문형 유형과 숙달도( $r=.430$ ,  $p <$

22) Hinkle et al.(1998)에서 정의한 스피어만 등위상관계수( $r_s$ )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Rovai et al., 2013, p. 375에서 재인용).

- (i) 아주 낮은 상관이 있다. ( $< .30$ )
- (ii) 낮은 상관이 있다. (.30 to  $< .50$ )
- (iii) 상관이 있다. (.50 to  $< .70$ )
- (iv) 높은 상관이 있다. (.70 to  $< .90$ )
- (v) 아주 높은 상관이 있다. (.90 and above)

이유미

.001), 표현 문형 토큰과 숙달도( $r=.429, p < .001$ )는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림 1’과 ‘그림 2’는 두 변수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변수의 값을 점으로 나타낸 산포도(scatter plot)이다. ‘그림 1’, ‘그림 2’ 모두 x축에 있는 변수인 표현 문형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C-test 점수 또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점이 흩어진 폭을 볼 때 두 변수가 높은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포도를 통해 표현 문형 유형과 숙달도, 표현 문형 토큰과 숙달도의 관계에서 보이는 상관의 정도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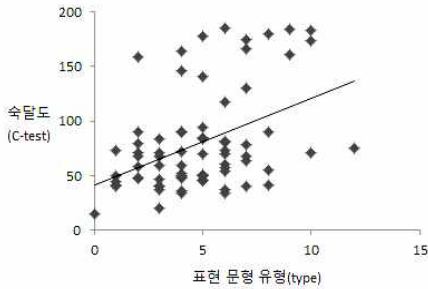


그림 1. 표현 문형 유형과 숙달도의 산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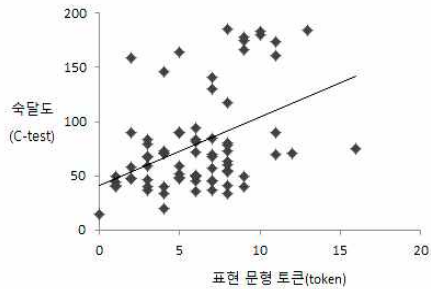


그림 2. 표현 문형 토큰과 숙달도의 산포도

#### 4.3. 숙달도에 따른 표현 문형 사용 분석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숙달도에 따른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isher의 정확 검정을 수행하였다. 이는 숙달도에 따라 표현 문형의 유형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Fisher의 정확 검정은 표현 문형이 가진 화용적 기능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답화 완성 테스트에서 제시한 6개의 기능에 대해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sup>23)</sup> ‘표 8’은 ‘제안하기’에 나타난 숙달도에 따른 집단별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이다.<sup>24)</sup>

표 8. ‘제안하기’에서의 표현 문형 사용 양상

표현 문형 사용	표현 문형	초급(n=25)		중급(n=25)		고급(n=25)	
		%	(N)	%	(N)	%	(N)
	전체	100	(8)	100	(19)	100	(27)
영화를 보고 싶어요	-고 싶다	50.0	(4)	42.1	(8)	29.6	(8)
비빔밥을 먹고 싶습니다							

23) 집단 간에 중복되어 사용된 표현 문형의 유형별 빈도를 표로 제시하였다.

24) 표에 제시된 ‘표현 문형 사용’은 실험 참여자의 응답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로 대신한 것은 해당 표현 문형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이다.

영화 보러 갈까	-러 가다	25.0	(2)	15.8	(3)	37.0	(10)
-	-	-	-	-	-	-	-
비빔밥을 먹을 수 있어요	-(으)ㄴ 수 있다	12.5	(1)	5.3	(1)	3.7	(1)
-	기타 <sup>25)</sup>	12.5	(1)	36.8	(7)	29.6	(8)

Fisher의 정확 검정 결과 제안하기 상황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465$ ). ‘표 9’는 ‘명령하기’에 나타난 숙달도에 따른 집단별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이다. Fisher의 정확 검정 결과 명령하기 상황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p = .016$ ).

표 9. ‘명령하기’에서의 표현 문형 사용 양상

표현 문형 사용	표현 문형	초급(n=25)		중급(n=25)		고급(n=25)	
		%	(N)	%	(N)	%	(N)
	전체	100	(11)	100	(20)	100	(26)
청소해야 해 제출해야 돼요	-아/어야 하다, -아/어야 되다	45.5	(5)	50.0	(10)	7.7	(2)
청소해 줘 제출해 주세요	-아/어 주다	18.2	(2)	15.0	(3)	38.5	(10)
-	-	-	-	-	-	-	-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를) 바라다	0	(0)	5.0	(1)	15.4	(4)
청소하면 좋겠어요 제출했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좋겠다	9.1	(1)	0	(0)	7.7	(2)
도와줄 수 있어 제출할 수 있죠	-(으)ㄴ 수 있다	9.1	(1)	10.0	(2)	3.8	(1)
-	기타 <sup>26)</sup>	18.2	(2)	20	(4)	26.9	(7)

명령하기는 제안하기, 요청하기와 함께 지시 행위(directives)에 포함되지만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및 청자의 행동에 대한 요구의 정도에 따라 변별성을 가진다(강현화, 2007b). 제안하기, 요청하기와 비교하여 명령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위계 관계에 있을 때 수행되고 지시의 강제성

25) 기타 표현 문형으로 ‘-아/어 보다’, ‘-는 게 어때(요)’, ‘-(으)ㄴ까 하다’, ‘-아/어 주다’, ‘-(으)면 좋겠다’, ‘-기 때문에’ 등이 추출되었다.

26) 기타 표현 문형으로 ‘-(으)ㄴ 뿐만 아니라’, ‘-(으)면 안 되다’, ‘-지 않다’, ‘-(으)ㄴ 후에’, ‘-아/어 놓다’, ‘-도록 바라다’, ‘-지 말다’, ‘-아/어야 되다’ 등이 추출되었다.

이 높다. 따라서 청자의 입장에서는 수용에 대한 부담의 정도가 높기 때문에 거절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명령하기의 이러한 특성은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대화 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명령하기와 같이 청자의 체면(face)이 손상될 가능성을 가진 행위를 체면 위협 행위(FTA, Face Threatening Acts)라 한다. 체면 위협 행위는 화자로 하여금 청자에 대한 보상적 행위(redressive action)를 요구하는데(Brown & Levinson, 1987, p. 69-70),<sup>27)</sup> 적절한 보상적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화가 가진 언어적 의미뿐만 아니라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에서부터 언어 공동체(speech community)의 사회적 함의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체면 위협 행위에 수반되는 보상적 행위는 화자로 하여금 높은 화용적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화 참여자, 대화 상황 등에 대한 맥락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표현의 사용을 학습해야 한다. Fisher의 정확 점정에서 표현 문형 사용이 숙달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Grundy(2008, p. 193)에서는 청자에 대한 보상적 행위가 비경제적인 정형구(formulas)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7)은 명령하기에서 추출한 표현 문형을 Blum-Kulka(1987, p. 133)의 전략 분류에 근거하여 제시한 것이다. Blum-Kulka(1987)에서는 요청하기 전략을 9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해당 전략에 대해 청자의 공손성 인식을 조사하여 전략들의 공손성 위계를 제시한 바 있다.<sup>28)</sup>

(7) ‘명령하기’에 나타난 표현 문형 분류

- a. -아/어야 하다, -아/어야 되다: 의무 진술(obligation statements)
- b. -아/어 주다: 약화된 수행문(hedged performatives)<sup>29)</sup>
- c. -기(를) 바라다, -(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좋겠다: 소망 진술(want statements)
- d. -(으)ㄴ 수 있다: 예비적 조건(query preparatory)

Blum-Kulka(1987, p. 137)에 따르면 청자는 예비적 조건 > 약화된 수행문 > 소망 진술 > 의무 진술의 순서로 화자의 발화를 공손하게 인식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 ‘표 9’의 결과를 보면 청자에 대한 보상적 행위로서 명령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약화시키는 표현 문형의 사용이 초급과 중급 학습자 집단보다 고급 학습자 집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27) Brown & Levinson(1987, p. 61)에서는 체면을 ‘공적인 자아상(public self-image)’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대화에 나타나는 공손 전략(politeness strategy)을 분석하였다.

28) Blum-Kulka(1987)에서 논의한 요청하기(requests)는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 만드는 시도로 사용되는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Searle(1976)의 지시하기(directives)에 대응하며 하위 기능으로 명령하기, 제안하기, 부탁하기 등을 포함한다.

29) 명령하기에서 ‘-아/어 주다’는 명령의 발화수반력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강제성이 없는 부탁처럼 보이게 하므로 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보다는 약화된 수행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명령하기가 다른 지시 화행들과 비교하여 청자의 부담도와 강제성이 더 높은 사실에 기인한다.

을 알 수 있다.

‘표 10’은 ‘요청하기’에 나타난 숙달도에 따른 집단별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이다. Fisher의 정확 검정 결과 요청하기 상황에서 숙달도에 따른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273$ ).

표 10. ‘요청하기’에서의 표현 문형 사용 양상

표현 문형	표현 문형	초급(n=25)		중급(n=25)		고급(n=25)	
		%	(N)	%	(N)	%	(N)
	전체	100	(35)	100	(45)	100	(62)
빌릴 수 있어요 교환할 수 있어요	-(으)ㄴ 수 있다	34.3	(12)	33.3	(15)	40.3	(25)
-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sup>30)</sup>	-지 않다	20.0	(7)	20.0	(9)	12.9	(8)
숙제를 해야 하는데 교환해도 돼요	-아/어야 하다, -아/어야 되다	11.4	(4)	8.9	(4)	14.5	(9)
- 옷을 교환하고 싶어요	-고 싶다	25.7	(9)	13.3	(6)	4.8	(3)
히락해 줘 바꿔 주세요	-아/어 주다	5.7	(2)	6.7	(3)	11.3	(7)
	기타 <sup>31)</sup>	2.9	(1)	17.8	(8)	16.1	(10)

‘표 11’은 ‘사과하기’에 나타난 숙달도에 따른 집단별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이다. Fisher의 정확 검정 결과 사과하기 상황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761$ ).

표 11. ‘사과하기’에서의 표현 문형 사용 양상

표현 문형 사용	표현 문형	초급(n=25)		중급(n=25)		고급(n=25)	
		%	(N)	%	(N)	%	(N)
	전체	100	(3)	100	(6)	100	(10)
길이 막히는 바람에 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는 바람에	33.3	(1)	33.3	(2)	0	(0)

30) ‘-지 않다’는 함께 제시된 다른 표현 문형과 달리 요청에 대해 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준비 표현(preparator)으로 사용되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이성범, 2015, p. 314-317).

31) 기타 표현 문형으로 ‘-(으)ㄴ 수도 있다’, ‘-아/어도 되다’, ‘-려고 하다’, ‘-는 것 같다’, ‘-아/어 보다’, ‘-(으)면 안 되다’, ‘-(으)ㄴ 것이다’ 등이 추출되었다.

-	-아/어 드리다	0	(0)	16.7	(1)	20.0	(2)
세탁을 해 드릴게요							
-	-지 않다	33.3	(1)	16.7	(1)	20.0	(2)
제가 원하지 않았어요							
	기타 <sup>32)</sup>	33.3	(1)	33.3	(2)	60.0	(6)

‘표 12’는 ‘거절하기’에 나타난 숙달도에 따른 집단별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이다. Fisher의 정확 검정 결과 거절하기 상황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 ).

표 12. ‘거절하기’에서의 표현 문형 사용 양상

표현 문형 사용	표현 문형	초급(n=25)		중급(n=25)		고급(n=25)	
		%	(N)	%	(N)	%	(N)
	전체	100	(31)	100	(28)	100	(44)
빌려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으)ㄴ 수 없다	45.2	(14)	50.0	(14)	9.1	(4)
숙제를 해야 해요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아/어야 하다, -아/어야 되다	19.4	(6)	28.6	(8)	27.3	(12)
빌려줄 수 없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아요	-(으)ㄴ 것 같다	6.5	(2)	3.6	(1)	18.2	(8)
노트북 주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고 싶다	12.9	(4)	0	(0)	18.2	(8)
	기타 <sup>33)</sup>	16.1	(5)	17.9	(5)	27.3	(12)

거절하기는 비선호적 반응으로서 선행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화자에게는 청자의 체면을 고려한 적절한 전략의 선택이 요구된다. 거절하기에서 추출한 표현 문형을 Beebe et al.(1990, p. 72-73)에서 제시한 거절하기 전략에 근거하여 (8)과 같이 분류하였다. Beebe et al.(1990)에서는 거절하기 전략을 직접(direct) 전략, 간접(indirect) 전략, 부가 표현(adjuncts)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세부 전략들을 제시하였고, 그의 분류는 대표적인 거절

32) 기타 표현 문형으로 ‘-고 있다’, ‘-(으)ㄴ 수 있다’, ‘-(으)ㄴ 걸 그랬다’, ‘-(으)ㄴ 것이다’, ‘-고 싶다’, ‘-아/어 주다’, ‘-(으)ㄴ 탓에’ 등이 추출되었다.

33) 기타 표현 문형으로 ‘-고 있다’, ‘-지 않다’, ‘-기 때문에’, ‘-(으)ㄴ 것이다’, ‘-(으)ㄴ 수 있다’, ‘-(으)면 안 되다’, ‘-려고 하다’, ‘-는 게 어때(요)’, ‘-지 못하다’, ‘-아/어 드리다’, ‘-라고 하다’, ‘-아/어 보다’ 등이 추출되었다.

하기 전략의 유형으로 활용되어 왔다(Eslami, 2010; Lin, 2014; 이복자, 2014).

(8) ‘거절하기’에 나타난 표현 문형 분류

- a. -(으)ㄴ 수 없다: 부정적 능력(negative willingness/ability)
- b. -아/어야 하다, -아/어야 되다: 변명, 이유, 설명(excuse, reason, explanation)
- c. -(으)ㄴ 것 같다: 회피(avoidance)/울타리 치기(hedging)
- d. -고 싶다: 소망(wish)

초급과 중급 학습자 집단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은 ‘-(으)ㄴ 수 없다’는 화자가 바라는 바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밝히는 것으로 Beebe et al.(1990)에서는 이를 직접 전략으로 분류하였다.<sup>34)</sup> 반면에 ‘-아/어야 하다’, ‘-아/어야 되다’, ‘-(으)ㄴ 것 같다’,<sup>35)</sup> ‘-고 싶다’는 모두 Beebe et al.(1990)에서 간접 전략으로 분류한 표현들이다. 주목할 점은 명령하기와 마찬가지로 초급과 중급 학습자 집단이 비교적 비슷한 사용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고급 학습자 집단은 두 집단과 다른 사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는 거절 전략의 간접성과 관련지어 공손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36)</sup> 초급과 중급 학습자 집단에서도 간접 전략이 사용되어 고급 학습자 집단과의 차이가 상쇄되어 보일 수 있으나 고급 학습자 집단에서만 사용된 기타 표현 문형을 보면 간접 전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a)는 대안 제시(statement of alternative), (9b)는 미래 수락 약속(promise future acceptance), (9c)는 (8b)와 같은 변명, 이유, 설명 전략에 포함되는 간접 전략이다.<sup>37)</sup>

(9) 고급 학습자 집단에 나타난 기타 표현 문형 사용

- a. -는 게 어때(요)(N=3), “학교 도서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어때?”
- b. -(으)면 안 되다(N=3), “제가 일을 끝낸 후에 도와주면 안 돼요?”
- c. -고 있다(N=1), “나도 일이 밀려서 찢찢매고 있어요.”

34) Beebe et al.(1990, p. 72-73)에서는 직접 전략을 수행동사(performative)(“I refuse”)와 비수행 동사(non-performative)에 의한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비수행 동사에 의한 거절을 “No”와 부정적 능력(negative willingness/ability)(“I can’t”, “I won’t”, “I don’t think so.”)으로 재분류하였다.

35) 윤은미(2004)에서는 거절하기에 나타난 ‘-(으)ㄴ 것 같다’가 수락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청자의 체면을 보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거절하기에서 ‘-(으)ㄴ 것 같다’는 발화수반력을 낮추는 일종의 약화사(downtoner)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성범, 2015, p. 323).

36) 발화의 간접성은 공손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Leech(1983)에서 공손성 척도(scale of politeness)를 통해 공손성과 간접성이 비례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37) Beebe et al.(1990, p. 73)에서는 대안 제시의 예로 “Why don’t you ask someone else?”, 미래 수락 약속의 예로 “I’ll do it next time.”, “I promise I’ll ...”, 변명, 이유, 설명의 예로 “I have a headache.” 등을 들었다.

‘표 13’은 ‘바람 표현하기’에 나타난 숙달도에 따른 집단별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이다. Fisher의 정확 검정 결과 바람 표현하기 상황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 = .307$ ).

표 13. ‘바람 표현하기’에서의 표현 문형 사용 양상

표현 문형 사용	표현 문형	초급(n=25)		중급(n=25)		고급(n=25)	
		%	(N)	%	(N)	%	(N)
	전체	100	(21)	100	(24)	100	(37)
합격하면 좋겠어요 진짜 올랐으면 좋겠어요	-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좋겠다	66.7	(14)	87.5	(21)	73.0	(27)
합격할 거예요	-(으)ㄹ 것이다	9.5	(2)	0	(0)	10.8	(4)
잘 나오기를 바라야지 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를) 바라다	4.8	(1)	4.2	(1)	2.7	(1)
	기타 <sup>38)</sup>	19.0	(4)	8.3	(2)	13.5	(5)

정리하자면 제안하기, 요청하기, 사과하기, 바람 표현하기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명령하기와 거절하기에서는 숙달도에 따라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명령하기는 화자와 청자의 위계 관계, 지시의 강제성으로 인해 청자로 하여금 높은 부담감을 유발하며, 거절하기의 경우 상대의 기대에 반하는 행위로서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명령하기와 거절하기를 수행하는 화자는 청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청자의 체면을 고려한 적절한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적절한 대화 전략은 표현 문형에 대한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청자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담화 상황의 화용적 지식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명령하기, 거절하기에 사용된 표현 문형을 대화 전략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초급 및 중급 학습자 집단과 고급 학습자 집단에 나타난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의 차이가 표현 문형을 포함한 대화 전략의 공손성과 간접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38) 기타 표현 문형으로 ‘-고 싶다’, ‘-아/어야 하다’, ‘-(으)ㄹ 것 같다’, ‘-(으)ㄹ 수 있다’, ‘-아/어야 되다’, ‘-(으)ㄹ 리가 없다’, ‘-(으)ㄹ 수 없다’ 등이 추출되었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숙달도 평가와 담화 완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 표현 문형 사용과 숙달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명령하기와 거절하기에서 초급 및 중급 학습자 집단과 고급 학습자 집단 간에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통계적 분석과 더불어 실험을 통해 관찰된 개별 표현 문형을 숙달도에 따라 제시하고, 숙달도에 따른 표현 문형 사용의 차이를 공손성과 관련한 대화 전략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담화 완성 테스트를 통해 추출한 표현 문형은 대부분 초급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문법 항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담화 상황에서 초급 및 중급 학습자 집단과 고급 학습자 집단 간 표현 문형 사용 양상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화용적 지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 문형을 문법 항목으로서 문법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전략적 측면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명령하기와 거절하기처럼 상대방에 대한 체면 위협도가 높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화용적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같은 상황 맥락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도, 권력, 성별 등과 같이 사회 문화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을 구체적인 담화 상황을 통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표현 문형 사용과 숙달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발화의 전체 구조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표현 문형을 어떤 기능으로 사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담화 완성 테스트를 통해 화자의 발화 의도가 실현되는 주화행(head act)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의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발화수반력을 조절하는 보조화행(adjunct to head act) 등의 주변부도 고려하여 표현 문형이 발화 구조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숙달도에 따라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추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의사소통 능력과 표현 문형 사용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지표로서 숙달도를 변수로 하여 표현 문형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개별 기능과 표현 문형 사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문형 습득 양상이 폭넓고 구체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현화. (2007a). 한국어 교재의 문형유형 분석-문형 등급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 18(1), 1-21.
- 강현화. (2007b). 한국어 표현문형 담화기능과의 상관성 분석 연구-지시적 화행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4, 1-26.
- \*강현화, 이현정, 남신혜, 장채린, 홍현정, 김강희. (2016). *한국어교육 문법 자료편*. 서울: 한글파크.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김유미. (2005). 문형 사전을 위한 문형 빈도 조사. *인지과학*, 16(2), 123-140.
- 김중섭 외. (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민현식. (2004).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 교육*, 15(1), 50-51.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7). *서강 한국어 5A, 5B*.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8). *서강 한국어 1A, 1B, 2A, 2B, 3A, 3B*.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15). *서강 한국어 4A, 4B*.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2). *서울대 한국어 5A, 5B*. 서울: 투판즈.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3). *서울대 한국어 1A, 1B, 2A, 2B*. 서울: 투판즈.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5). *서울대 한국어 3A, 3B, 4A, 4B, 6A, 6B*. 서울: 투판즈.
- 석주연. (2005).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형교육의 방향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교육*, 16(1), 89-120.
- 신경선. (2012).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정형화된 언어 사용이 작문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어학연구*, 48(1), 77-96.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3). *연세 한국어 1-1, 1-2, 2-1, 2-2, 3-1, 3-2, 4-1, 4-2, 5-1, 5-1, 6-1, 6-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원미진. (2013).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형화된 표현 사용의 쓰기 교육 효과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35, 157-181.
- 원운하, 박덕유. (2017). 한-중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표현문형 고찰. *교육문화연구*, 23(5), 439-467.
- 유소영. (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표현 연구-문법표현 선정과 등급화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은미. (2004).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화행에 나타난 공손전략 비교연구-체면보호를 위한 언어적 장치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9, 117-145.

- 이미혜. (2002).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표현 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3(2), 205-225.
- 이미혜. (2005).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이복자. (2014). 초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회행 연구: 시간차에 따른 전략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5(1), 83-113.
- 이성범. (2015). *소통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은하. (2015). 작업기억 용량과 L2 숙달도가 한국어 학습자의 형태통사 오류 처리에 미치는 영향: 자가 속도조절 듣기 연구. *한국어 교육*, 26(1), 299-351.
- 이해영. (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 112, 73-94.
- 이행선, 김문기. (2017). 학습자 중심의 한국어 문형 교육을 위한 제안. *코기토*, 82, 267-301.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0). *이화 한국어 1-1, 1-2, 2-1, 2-2*. 서울: Epress.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1). *이화 한국어 3-1, 3-2, 4*. 서울: Epress.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2). *이화 한국어 5, 6*. 서울: Epress.
- 조민정, 강현화, 박동호. (2009). 상용표현의 담화 기능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4, 465-492.
- 종장지. (2015). 한국어 문법교육을 위한 표현문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곤. (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구문 표현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최준, 송현주, 남길임. (2010).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 연구. *담화와 인지*, 17(2), 163-190.
- Bardovi-Harlig, K., Mossman, S., & Vellenga, H. E. (2015). The effect of instruction on pragmatic routines in academic discussion. *Language Teaching Research*, 19(3), 324-350.
- Bardovi-Harlig, K., Rose, M., & Nickels, E. L. (2008). The use of conventional expressions of thanking, apologizing, and refusing. In M. Bowles, R. Foote, S. Perpiñán, & R. Bhatt (Eds.), *Selected proceedings of the 2007 second language research forum* (pp. 113-130). Somerville,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 Beebe, L. M., & Cummings, M. C. (1996). Natural speech act versus written questionnaire data: How data collection method affects speech act performance. In S. M. Gass & J. Neu (Eds.), *Speech acts across cultures* (pp. 65-86). Berlin: Mouton de Gruyter.
- Beebe, L. M., Takahashi, T., & Ulliss-Weltz, R. (1990). Pragmatic transfer in ESL refusals. In C. Scarcella, E. Anderson, & D. Krashen (Eds.), *Developing communicative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pp. 55-73). New York: Newbury House.
- Biber, D., Conrad, S., & Cortes, V. (2004). If you look at...: Lexical bundles in university teaching and textbooks. *Applied Linguistics*, 25(3), 371-405.
- Biber, D., Johansson, S., Leech, G., Conrad, S., & Finegan, E. (1999). *Longman grammar*

-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don: Longman.
- Blum-Kulka, S. (1987). Indirectness and politeness in requests: Same or different?. *Journal of Pragmatics*, 11, 131-146.
- Boers, F., Eyckmans, J., Kappel, J., Stengers, H., & Demecheleer, M. (2006). Formulaic sequences and perceived oral proficiency: Putting a lexical approach to the test. *Language Teaching Research*, 10(3), 245-261.
-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nale, M. (1983). From communicative competence to communicative language pedagogy. In J. C. Richards & R. W. Schmidt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pp. 2-27). London: Longman.
-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 Celce-Murcia, M. (2007). Rethinking the role of communicative competence in language teaching. In E. A. Soler & P. S. Jordà (Eds.), *Intercultural language use and language learning* (pp. 41-57). Dordrecht, Netherlands: Springer.
- Celce-Murcia, M., Dörnyei, Z., & Thurrell, S. (1995). A pedagogical framework for communicative competence: A pedagogically motivated model with content specifications. *Applied Linguistics*, 16(2), 5-35.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 MIT Press.
- Eslami, Z. R. (2010). Refusals: How to develop appropriate refusal strategies. In A. Martínez-Flor & E. Usó-Juan (Eds.), *Speech act performance: Theoretical, empir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pp. 217-236). Amsterdam: John Benjamins.
- Grundy, P. (2008). *Doing pragmatics* (3rd ed.). London: Hodder Education.
- Henriksen, B. (2013). Research on L2 learners' collocational competence and development: A progress report. In C. Bardel, C. Lindqvist, & B. Laufer (Eds.), *L2 vocabulary acquisition, knowledge and use: New perspectives on assessment and corpus analysis* (pp. 29-56), Amsterdam: Eurosla.
- Houck, N., & Gass, S. M. (1996). Non-native refusals: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In S. M. Gass & J. Neu (Eds.), *Speech acts across cultures* (pp. 45-64). Berlin: Mouton de Gruyter.
- Hyland, K. (2008). As can be seen: Lexical bundles and disciplinary variatio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7(1), 4-21.
- Hymes, D. 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 (Eds.),

- Sociolinguistics: Selected readings* (pp. 269–293). Harmondsworth, UK: Penguin.
- Kwon, J. (2004). Expressing refusals in Korean and in American English. *Multilingua*, 23(4), 339–364.
- Laufer, B., & Waldman, T. (2011). Verb–noun collocations in second language writing: A corpus analysis of learner’ English. *Language Learning*, 61(2), 647–672.
-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ee–Ellis, S. (200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Korean C–test using rasch analysis. *Language Testing*, 26(2), 245–274.
-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The state of ELT and a way forward*.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 (1997). *Implementing the lexical approach: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in, Ming–Fang. (2014). An interlanguage pragmatic study on Chinese EFL learners’ refusal: Percep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5(3), 642–653.
- Nattinger, J. R., & DeCarrico, J. S. (1992). *Lexical phrases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wley, A., & Syder, F. H. (1983). Two puzzles for linguistic theory: Nativelike selection and nativelike fluency. In J. C. Richards & R. W. Schmidt (Eds.), *Language and communication* (pp. 191–226). London: Longman.
- Racine, J. P. (2018). Lexical approach. In J. I. Lontos (Ed.), *The TESOL encyclopedia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Volume II* (pp. 1–7). Hoboken, NJ: Wiley–Blackwell.
- Rafieyan, V. (2018). Knowledge of formulaic sequences as a predictor of language profici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and English Literature*, 7(2), 64–69.
- Revier, R. L. (2009). Evaluating a new test of whole English collocations. In A. Barfield & H. Gyllstad (Eds.), *Researching collocations in another language: Multiple interpretations* (pp. 125–138). London: Palgrave Macmillan.
- Rovai, A. P., Baker, J. D., & Ponton, M. K. (2013). *Social science research design and statistics: A practitioner’s guide to research methods and IBM SPSS*. Chesapeake, VA: Watertree Press LLC.
- Schmitt, N. (2000). Key concepts in ELT: Lexical chunk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54(4), 400–401.
- Schmitt, N., Dörnyei, Z., Adolphs, S., & Durow, V. (2004). Knowledge and acquisition of

- formulaic sequences: A longitudinal study. In N. Schmitt (Ed.), *Formulaic sequences: Acquisition, processing and use* (pp. 55-86).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earle, J. R. (1976). A classification of illocutionary acts. *Language in Society*, 5(1), 1-23.
- Serrano, R., Stengers, H., & Housen, A. (2015). Acquisition of formulaic sequences in intensive and regular EFL programmes. *Language Teaching Research*, 19(1), 89-106.
- Stengers, H., Boers, F., Housen, A., & Eyckmans, J. (2011). Formulaic sequences and L2 oral proficiency: Does the type of target language influence the associ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IRAL)*, 49(4), 321-343.
- Willis, D. (1990). *The lexical syllabus: A new approach to language teaching*. London: Collins ELT.
- Wood, D. (2002). Formulaic language in acquisition and production: Implications for teaching. *TESL Canada Journal*, 20(1), 1-15.
- Wray, A. (2000). Formulaic sequences in second language teaching: Principle and practice. *Applied Linguistics*, 21(4), 463-489.

\*표현 문형 판정 교재 및 사전류

부록. 답화 완성 테스트

1. 주말에 친구를 만납니다. 당신은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길 원합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친구: 주말에 뭐 할까?

나: \_\_\_\_\_

2. 친구가 당신에게 노트북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얼마 전에 노트북을 새로 사서 빌려주기 싫습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 \_\_\_\_\_

3. 동생이 친구와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청소를 안 했습니다. 당신은 동생에게 청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동생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 \_\_\_\_\_

4. 한 달 전에 한국어 시험을 봤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높은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친구: 내일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기분이 어때?

나: \_\_\_\_\_

5. 어제 옷을 샀는데 집에서 보니 색깔이 안 예쁩니다. 그래서 옷을 교환하려고 가게에 다시 갔습니다. 점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점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 \_\_\_\_\_

6. 오늘 친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약속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 \_\_\_\_\_

7. 당신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동료가 당신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이 많아서 못 도와줍니다. 동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 \_\_\_\_\_

8. 당신은 오늘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습니다. 당신은 비빔밥을 먹길 원합니다. 동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동료: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요?

나: \_\_\_\_\_

9. 숙제에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책을 빌리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 \_\_\_\_\_

10. 당신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당신은 직원에게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 \_\_\_\_\_

11. 당신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당신은 열심히 저금해서 자동차를 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동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동료: 다음 달에 월급이 오를까요?

나: \_\_\_\_\_

12. 당신은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 옆 사람에게 주스를 쏟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나: \_\_\_\_\_



**이유미**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전화: (062)530-3130

이메일: confusethem@naver.com

Received on August 1,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6, 2019

Accepted on September 30, 2019



#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Korean EFL Learners\*

Young Ah Cho & Youngsu Kim\*\*

(Gwangju University & Changpyeong High School)

Cho, Young Ah & Kim, Youngsu.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Korean EFL learner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3), 53-74. The present study analyzes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in an L2 English learning context, mainly focusing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One-hundred and seventy-three participants were assigned to high-, medium-, and low-proficiency groups. Three instruments were administered, a backgroun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of English Self-Efficacy, and the Questionnaire of English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in terms of self-efficacy beliefs for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showing that high-proficiency learners held a higher sense of self-efficacy than medium- and low-proficiency learners. The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when looking at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Successful learners employed more self-regulatory skills than others. Additionally,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Based on the results,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suggested.

**Key words:** self-efficacy beliefs,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proficiency levels, Korean high school students, L2 context

---

\*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19.

\*\* The first author is Young Ah Cho, and the corresponding author, Youngsu Kim.

## 1. Introduction

There have been increasing attempts to identify universal human traits that influence learning processes and achievement (Brown, 2007). Since there was a significant shift from teacher-centeredness to learner-centeredness in the field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empirical studies have investigated learners' individual variables with more interest, focusing on how diverse learning environments affect them (Carson & Loghini, 2002; Nosratinia, Saveiy, & Zaker, 2014). Grounded in this understanding,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oncept of agency, which is described as one's ability to take intentional action. In addition, it is a vital component in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learners' progress (Brown & Lee, 2015).

Over the last few decades,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understand learners' behaviors and performance and how learner's agency affects their motivation, sense of autonomy, identity, self-efficacy beliefs, and also their ability to self-regulate their own learning. In particular,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ion and called for more in-depth investigations into linking these two constructs (Ghonsooly & Ghanizadeh, 2013, Su, Zheng, Liang, & Tsai, 2018; Wang & Bai, 2017).

Self-efficacy beliefs refer to learners' judgement of their own capabilities in being able to accomplish a specific task with the skills they possess (Bandura, 1986). Self-regulation is defined as a process in which learners use strategies to manage and control their own learning, including cognitive, metacognitive, behavioral, motiv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Zimmerman, 2008). Empirical researchers have suggested that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ion are vital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language learning outcomes. Learners with a higher level of self-efficacy tend to employ mor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nd learners with greater self-regulatory skills are, likewise, more self-efficacious (Matthews, 2010; Zimmerman & Martinez-Pons, 1990).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are malleable and vary within various learning

contexts; thus, it is quite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specific linguistic aspects in learning English, that is,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Klassen, 2006, Wang, Schwab, Fenn, & Chang, 2013). In addition, learners'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patterns need to be more deeply analyzed as well, partly because learners' self-regulatory skills can be nurtured by teachers' support and also appropriate intervention (Brown & Lee, 2015). Even though a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fficacy beliefs,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nd performance in various academic settings (Boekaerts & Cascallar, 2006; Kim, Wang, Ahn, & Bong, 2015; Pape & Wang, 2003),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L2) learning (Kim et al., 2015; Wang, et al., 2013). Moreover, little research has been investigated these two variables based on learners' English proficiency levels, particularly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compared to diverse learners' perceived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in learning English, the findings of the study can suggest the implications and effective methods for EFL instruction. Based on that, the present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Are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L2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dependant on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s?
2. Are th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L2 learners'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dependant on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s?

## 2. Literature Review

### 2.1. Self-efficacy Beliefs in L2 Learning

Bandura (1995) defined self-efficacy as “the belief in one's capabilities to organize and execute the courses of action required to manage prospective situations” (p. 2). There are four major sources which create and consolidate a sense of self-efficacy: mastery or enactive experience,

vicarious experience, social persuasion, and somatic and emotional states (Bandura, 1997). Mastery or enactive experience refers to learners' past experiences of success or failure, while vicarious experience can develop when a person observes others' successes through continuous effort. Social persuasion is realistic verbal persuasion which is seen to exercise greater effort in performing tasks, and somatic and emotional states refer to evaluating an individual's capabilities, such as emotional proclivities and physical states.

In terms of determining sources for learners' self-efficacy levels, Wang and Pape (2007) added the following variables: past experience and attitudes toward language learning, task difficulty, social persuasion, and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Zuo and Wang (2014) explained that there are seven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past performance, peers' and advisors' influence, social persuasion, emotional and physiological states, self-awareness of English proficiency, familiarity with and the difficulty level of the task, and interest (p. 1).

Kim et al. (2015) investigated Korean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beliefs towards English learning by using a latent profile analysis. The outcomes of the study showed that learners with a higher sense of self-efficacy, likewise, had a higher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additionally, the female participants showed more self-efficacy than the males on the medium and high self-efficacy profiles. The study also suggested that students in the high and medium self-efficacy profiles spent more time studying English than those in the low self-efficacy group. Nosratinia et al. (2014) explored the relationship among EFL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metacognitive awareness, an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learners with higher levels of metacognitive awareness used more learning strategies, adding that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learning strategies use and self-efficacy. Kirmizi (2015) examined the effects of self-concept,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on Turkish EFL colleg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valuation. The outcomes revealed that high-proficiency learners had higher concepts of themselves, their own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while self-efficacy turned out to be the most effective factor in determining academic success.

## 2.2.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L2 Learning

Self-regulation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identifying learners' differences. Additionally, self-regulatory capacitie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learners' success in language acquisition (Ching, 2002; Dörnyei & Ryan, 2015). Zimmerman (1990) mentioned that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re the “actions and processes directed at acquisition of information or skills that involve agency, purpose, and instrumentality perceptions by learners” (p. 5).

Bandura (1986) mentioned that there are three vital processes to be self-regulated: self-observation, self-judgement, and self-reaction. Schunk and Zimmerman (1997) explained that observation, imitation, self-control, and self-regulation as four levels in developing self-regulated learning. Zimmerman (2002) classified self-regulated processes into three cyclical phases: forethought, performance, and self-reflection phases. The forethought phase refers to processes which precede efforts taken to learn, and it consists of task analysis and self-motivation. The performance phase refers to processes where learners pay attention to a task to enhance their outcomes, and it entails self-control and self-observation. The self-reflection phase refers to processes related to self-observation, containing self-judgement and self-evaluation.

Empirical studies on self-regulated learning have been examined with various components, such as motivation, language proficiency, learners' beliefs, and learners' self-concept. For instance, Wang et al. (2013) examined the self-efficacy,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nd English performance of Chinese and German EFL learners. The findings revealed that Chinese students reported a low sense of self-efficacy compared to German ones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erms of use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Mahmoodi, Kalantari, & Ghaslani (2014), focusing on Iranian EFL learners,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s well as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overall performance. The outcomes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skills whil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language performance.

Su et al. (2018) tri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college students' online self-regulation and their self-efficacy in an EFL context.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adding that self-evalua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erms of self-efficacy for English listening, speaking, and reading, whereas learners' environment structuring was the greater factor regarding self-efficacy for speaking and writing.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the goal setting was a significant predictor with respect to self-efficacy for writing.

### 3. Methods

#### 3.1. Participants

A total of 173 students – 77 males and 96 females –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They were all 10th grade Korean students in Jeollanamdo Province, and their ages ranged from 15 to 17 ( $M=15.90$ ,  $SD=.399$ ). The number of years they studied English ranged from 6 to 12 years. As a measure of the participants' general English proficiency levels, their scores from the National United Achievement Tests (NUAT) were used. Based on the mean scores (83.53 out of 100) and standard deviation (9.423) on the NUAT, the participants were placed into three groups: a high-proficiency group (HG) for those with scores over 92 points, a medium-proficiency group (MG) with scores between 91–80 points, and a low-proficiency group (LG) with scores below 79. The result of an ANOVA showed that there existed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in terms of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s (see Table 1).

Table 1 Distribution of the Participants and an ANOVA Result on the NUAT

Group	<i>N</i>	Male	Female	<i>M</i>	<i>SD</i>	<i>F</i>	<i>Sig.</i>	<i>ES</i>
HG	43	18(41.9%)	25(58.1%)	95.77	2.590	426.526	.000	.833
MG	66	31(47.0%)	35(53.0%)	85.06	3.318			
LG	64	28(43.8%)	36(56.3%)	73.73	4.945			
Total	173	77(44.5%)	96(55.5%)	83.53	9.423			

$p < .05$ , *ES*= Effect Size



### 3.2. Instruments

Three instruments were employed in the study: a backgroun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of English Self-Efficacy (QESE), and the Questionnaire of English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ESRLS). Firstly, the background questionnaire was made up of four closed-ended question items, asking about gender, age, the number of years studying English, and the scores on the NUAT.

The second instrument was the Questionnaire of English Self-Efficacy (QESE), which was intended to measure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regarding the four language skills,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it was originally developed by Wang et al. (2013). The QESE consists of a total of 32 items that ask learners to make judgments regarding their capabilities on the linguistic skills. A total of 28 items from the QESE were slightly adapted and modified in the current study to fit Korean learners' learning context: listening (7 items), speaking (7 items), reading (7 items), and writing (7 items). Th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for the QESE was .944 with a greater fidelity. All question-item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the scale was measured on a 5-point Likert scale, ranged from 1 (I cannot do it at all) to 5 (I can do it very well).

The last instrument was the Questionnaire of English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OESRLS) which was devised by Wang, Hu, Zhang, Chang and Xu (2012). Initially, the OESRLS scale included 11 categories with 65 items. A total of 42 items with 8 categories in the OESRLS was used in the current study: self-evaluation (4 items),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11 items), seeking social assistance (3 items), persistence when faced with challenge (4 items), record keeping and monitoring (2 items), goal setting and planning (4 items), review of records (2 items), and interpretation guessing (12 items). Th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for the OESRLS was .912 with a greater fidelity. All question-item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the results were measured on a 5-point Likert scale, ranged from 1 (I never used it) to 5 (I always used it).

### 3.3. Procedure and Data Analysis

The data were collected during regular English class sessions. First of all, learners received the three questionnaires: the background questionnaire, the QESE, and the OESRLS. Before completing the questionnaires, the participants were directed to sincerely respond to the question-items based on their perceptions toward English learning and their learning experiences and behaviors. It took approximately 20 minutes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The background questionnaire was calculated by an analysis of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and an ANOVA. The QESE and the OESRLS were measured by Cronbach's alpha,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MANOVA. To exactly verify if any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among groups, post-hoc pairwise comparisons were used for the QESE and the OESRLS. In addition,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ll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 4. Results and Discussion

### 4.1. English Self-efficacy Beliefs by Proficiency Level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dealt with whether there was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self-efficacy beliefs depending on learners' proficiency levels. Table 2 exhibits the outcomes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QES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an scores of the factor, self-efficacy for speaking, were the highest ( $M=3.542$ ), followed by the writing factor ( $M=3.526$ ), the reading factor ( $M=3.468$ ), and then the listening factor ( $M=3.330$ ). As for learners' proficiency levels, the learners in the HG ( $M=3.855$ ) showed greater self-efficacy beliefs in English learning than those in the MG and LG ( $M=3.436$  and  $M=3.237$ , respectively). It can be interpreted that successful language learners showed a higher sense of self-efficacy beliefs. This result is in line with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Kim et al., 2015;

Magogwe & Oliver, 2007) which mentioned that good learners scored the highest mean scores, followed by fair and poor learners in terms of their levels of self-efficacy beliefs.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OESE

Categories	Group	M	SD	Rank
self-efficacy for listening	HG (N=43)	3.631	.509	1
	MG (N=66)	3.266	.557	2
	LG (N=64)	3.192	.544	3
	sub-total (N=173)	3.330	.566	4
self-efficacy for speaking	HG (N=43)	3.940	.511	1
	MG (N=66)	3.491	.597	2
	LG (N=64)	3.326	.614	3
	sub-total (N=173)	3.542	.628	1
self-efficacy for reading	HG (N=43)	3.880	.419	1
	MG (N=66)	3.437	.546	2
	LG (N=64)	3.223	.598	3
	sub-total (N=173)	3.468	.593	3
self-efficacy for writing	HG (N=43)	3.967	.461	1
	MG (N=66)	3.548	.552	2
	LG (N=64)	3.208	.551	3
	sub-total (N=173)	3.526	.603	2
Total	HG (N=43)	3.855	.392	1
	MG (N=66)	3.436	.463	2
	LG (N=64)	3.237	.482	3
	total (N=173)	3.466	.511	

In order to investigate if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groups, a MANOVA was applied, and outcomes are suggested in Tables 3 and 4.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within groups (*Sig.*=.000), showing a larger effect size (*ES*=.151).

Table 3 MANOVA Results on the OESE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df	Sig.	ES
Intercept	Wilks' Lambda	.017	2467.444	4	167	.000	.983	
Group	Wilks' Lambda	.721	7.435	8	334	.000	.151	

*p*<.05, *ES*= Effect Size

Table 4 Group Comparison on the OESE

Categories	Source	<i>SS</i>	<i>df</i>	<i>MS</i>	F	<i>Sig.</i>	<i>ES</i>
self-efficacy for listening	Between Groups	5.390	2	2.695	9.220	.000	.098
	Within Groups	49.687	170	.292			
	Total	55.077	172	2.987			
self-efficacy for speaking	Between Groups	9.976	2	4.988	14.643	.000	.147
	Within Groups	57.911	170	.341			
	Total	67.887	172	5.329			
self-efficacy for reading	Between Groups	11.210	2	5.605	19.331	.000	.185
	Within Groups	49.293	170	.290			
	Total	90.503	172	5.895			
self-efficacy for writing	Between Groups	14.874	2	7.437	26.421	.000	.237
	Within Groups	47.851	170	.281			
	Total	62.725	172	7.718			

*p*<.05, *ES*= Effect Size

Specifically,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he self-efficacy sources, namely listening (*Sig.*=.000), speaking (*Sig.*=.000), reading (*Sig.*=.000), and writing (*Sig.*=.000). In terms of effect size, the self-efficacy for writing factor had a larger effect size (*ES*=.237), and the listening factor showed the smallest one (*ES*=.098). Since high-proficiency learners seemed to perceive themselves as capable of mastering the four language skills compared to low- and medium-proficiency learners, this study may propose that it is quite necessary to recognize the heterogeneity of learners in terms of perceived self-efficacy beliefs. As Matthews (2010) put forward, efficacious learners are likely to take more responsibility, exert more effort, and pursue mastery in their own learning processes while learners with low degrees of self-efficacy would perceive themselves to be less successful learners and would passively participate in performing tasks.

Next, to exactly verify where the differences laid, post-hoc pairwise comparisons were employed, and the results are illustrated in Table 5. With the following factors, self-efficacy for listening, speaking, and reading, the learners in the HG had significantly greater self-efficacy beliefs than those in the MG and LG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atter two.

Table 5 Post-hoc Pairedwise Comparison on the OESE

Categories	Group		MD (I-J)	Std. Error	Sig.
self-efficacy for listening	HG	MG	.3650*	.10595	.002
		LC	.4393*	.10660	.000
	MG	LG	.0743	.09484	1.000
self-efficacy for speaking	HG	MG	.4489*	.11438	.000
		LC	.6143*	.11509	.000
	MG	LG	.1654	.10239	.324
self-efficacy for reading	HG	MG	.4432*	.10553	.000
		LC	.6572*	.10618	.000
	MG	LG	.2140	.09447	.074
self-efficacy for writing	HG	MG	.4192*	.10397	.000
		LC	.7592*	.10461	.000
	MG	LG	.3400*	.09307	.001

\* $p < .05$

With regard to the self-efficacy for writing factor, the HG learners rated the highest scores, followed by the MG, and then the LG ones, adding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As for self-efficacy for writing, it can be said that learners had relatively fewer chances to take part in writing tasks compared to other language skills, and learners in the MG and LG were also more likely to perceive writing tasks as much more demanding.

It is generally known that efficacious learners can persist longer than low efficacious learners when confronted with difficult tasks (Anam & Stracke, 2016). Learners with a high sense of self-efficacy may control and organize their own learning processes more effectively when performing a given task, consequently yielding better learning achievements. On the other hand, learners with less self-efficacy may possess lower confidence and think of English learning as demanding and challenging work, which leads to unsuccessful outcome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 low sens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low English performance, one possible reason for the result may be partially attributable to repetitive and discouraging outcomes that the low-proficiency learners might have experienced. Regarding this issue, as with Kim et al.'s (2015)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educators explore learners' perceptions

of self-efficacy beliefs more closely, and based on what they observe, implement differential teaching approaches or programs that can help diverse groups to develop gradually and even enjoy learning more. Instructional practices for enhancing motivation and confidence might be possible through designing a course book which contains fruitful activities, pair work, reflective journaling, and sections for teachers to give feedback on the learners' performance. Accordingly, once learners have confidence to reach their desired goals, they will also hold more positive beliefs about language learning and be more motivated to continue doing tasks (Yang & Wang, 2015).

#### 4.2. English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by Proficiency Levels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was about whether or not there were an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depending on learners' proficiency levels. Table 6 illustrates the findings for the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OESRLS.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OESRLS

Categories	Group	M	SD	Rank
self-evaluation	HG (N=43)	4.052	.539	1
	MG (N=66)	3.765	.623	2
	LG (N=64)	3.547	.638	3
	sub-total (N=173)	3.756	.636	3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HG (N=43)	3.674	.522	1
	MG (N=66)	3.475	.414	2
	LG (N=64)	3.372	.491	3
	sub-total (N=173)	3.487	.483	6
seeking social assistance	HG (N=43)	3.310	.761	1
	MG (N=66)	3.242	.505	2
	LG (N=64)	3.094	.671	3
	sub-total (N=173)	3.204	.641	8
persistence when faced with challenge	HG (N=43)	3.663	.624	1
	MG (N=66)	3.549	.555	2
	LG (N=64)	3.465	.650	3
	sub-total (N=173)	3.546	.610	4
record keeping and monitoring	HG (N=43)	4.023	.732	1
	MG (N=66)	3.864	.642	2

	LG (N=64)	3.609	.774	3
	sub-total (N=173)	3.809	.730	2
goal setting and planning	HG (N=43)	3.733	.693	1
	MG (N=66)	3.390	.560	2
	LG (N=64)	3.348	.781	3
	sub-total (N=173)	3.460	.696	7
review of records	HG (N=43)	4.209	.675	1
	MG (N=66)	3.742	.652	2
	LG (N=64)	3.664	.904	3
	sub-total (N=173)	3.830	.788	1
interpretation guessing	HG (N=43)	3.733	.469	1
	MG (N=66)	3.587	.448	2
	LG (N=64)	3.305	.478	3
	sub-total (N=173)	3.519	.493	5
Total	HG (N=43)	3.748	.440	1
	MG (N=66)	3.548	.348	2
	LG (N=64)	3.381	.432	3
	total (N=173)	3.536	.426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verall mean scores of the factor, review of records, was the highest (M=3.830), followed by the record keeping and monitoring factors (M=3.809), the self-evaluation factor (M=3.756), the persistence when faced with challenge factor (M=3.546), the interpretation guessing factor (M=3.519), the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factor (M=3.487), the goal setting and planning factor (M=3.460), and then the seeking social assistance factor (M=3.204). This study also demonstrated that the learners in the HG (M=3.748) employed more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than those in the MG (M=3.548) and LG (M=3.381), which shows that both the HG and MG learners use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t a high level (Oxford & Burry-Stock, 1995). The outcomes of the study are in line with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Pintrich, 2000; Wang & Pape, 2004), meaning that learners who display more self-regulatory strategies use showed better language achievement.

In order to determine if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groups, a MANOVA was carried out, and those results are shown in tables 7 and 8.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indeed, found within groups (*Sig.*=.001) with

a moderate effect size ( $ES=.110$ ).

Table 7 MANOVA Results on the OESRLS

Effect		Value	F	Hypothesis	<i>df</i>	<i>df</i>	<i>Sig.</i>	<i>ES</i>
Intercept	Wilks' Lambda	.013	1591.178	8	163	.000	.987	
Group	Wilks' Lambda	.792	2.524	16	326	.001	.110	

$p < .05$ , *ES*= Effect Size

Table 8 Group Comparison in the OESRLS

Categories	Source	<i>SS</i>	<i>df</i>	<i>MS</i>	F	<i>Sig.</i>	<i>ES</i>
self- evaluation	Between Groups	6.580	2	3.290	8.873	.000	.095
	Within Groups	63.039	170	.371			
	Total	69.619	172	3.661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Between Groups	2.364	2	1.182	5.313	.006	.059
	Within Groups	37.814	170	.222			
	Total	40.178	172	1.404			
seeking social assistance	Between Groups	1.359	2	.680	1.670	.191	.019
	Within Groups	69.202	170	.407			
	Total	70.561	172	1.087			
persistence when faced with challenge	Between Groups	1.009	2	.504	1.361	.259	.016
	Within Groups	62.996	170	.371			
	Total	64.005	172	.875			
record keeping and monitoring	Between Groups	4.721	2	2.361	4.614	.011	.051
	Within Groups	86.984	170	.512			
	Total	91.705	172	2.873			
goal setting and planning	Between Groups	4.324	2	2.162	4.651	.011	.052
	Within Groups	79.018	170	.465			
	Total	83.342	172	2.627			
review of records	Between Groups	8.455	2	4.227	7.313	.001	.079
	Within Groups	98.265	170	.578			
	Total	106.720	172	4.805			
interpretation guessing	Between Groups	5.207	2	2.603	12.070	.000	.124
	Within Groups	36.670	170	.216			
	Total	41.877	172	2.819			

$p < .05$ , *ES*= Effect Size

The findings show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ix categories, that is, the self-evaluation factor ( $Sig.=.000$ ),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factor ( $Sig.=.006$ ), record keeping and monitoring factor ( $Sig.=.011$ ), goal setting and planning factor ( $Sig.=.011$ ), review of records



factor (*Sig.*=.001), and interpretation guessing factor (*Sig.*=.000), except for the seeking social assistance and persistence when faced with challenge factors.

To specifically investigate where the differences laid, post-hoc pairwise comparisons were administered, and the results are demonstrated in Table 9.

Table 9 Post-hoc Pairewise Comparison on the OESRLS

Categories	Group		MD (I-J)	Std. Error	<i>Sig.</i>
self-evaluation	HG	MG	.2872	.11934	.052
		LG	.5055*	.12007	.000
	MG	LG	.2183	.10683	.128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HG	MG	.1992	.09243	.098
		LG	.3023*	.09300	.004
	MG	LG	.1030	.08274	.644
record keeping and monitoring	HG	MG	.1596	.14019	.769
		LG	.4139*	.14105	.011
	MG	LG	.2543	.12549	.133
goal setting and planning	HG	MG	.3424*	.13361	.034
		LG	.3849*	.13443	.014
	MG	LG	.0425	.11960	1.000
review of records	HG	MG	.4669*	.14900	.006
		LG	.5452*	.14991	.001
	MG	LG	.0784	.13338	1.000
interpretation guessing	HG	MG	.1454	.09102	.336
		LG	.4279*	.09158	.000
	MG	LG	.2824*	.08148	.002

\**p*<.05

The outcomes reveal that learners in the HG employed more learning strategies than those in the LG with respect to self-evaluation,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and record keeping and monitoring factors. In addition, learners in the HG used the goal setting and planning and review of records factors more than those in the MG and LG, whereas both HG and MG learners reported more strategy use than LG ones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guessing factor.

More specifically, high achievers in the present study frequently used self-evaluation,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and record keeping and monitoring factors, which belong to cognitive and metacognitive learning strategies, than lower achievers. As Pintrich and De Groot (1990) suggested,

learners need to be instructed how to apply cognitive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to their learning methods to be more self-regulated language learners. Plus, to help raise learners' awareness of self-regulatory skills, teachers can point out areas where the learners aren't using the strategies sufficiently.

Empirical researchers stress that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provide learners with various types of instrumental and responsive scaffolding in which learners can be aware of and acquire the proper self-regulatory skills (Mahmoodi et al., 2014; Zimmerman, Bonner, & Kovach, 1996). Additionally, learners' self-regulatory processes could be enhanced through sociocultural perspectives. In other words, teachers can make learners become more aware of their learning techniques and have opportunities to employ strategic techniques by assessing their own learning habits, done through narrative accounts and reactions to the social world (Brown & Lee, 2015; Lamb, 2011). Consistent strategy-training instruction may help less successful learners become more confident and motivated to choose and use appropriate strategies in performing tasks even when faced with challenging situations.

Supplementally,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any correlations exist between variables related to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calculated. The results revealed th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four self-efficacy beliefs variables and the eight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variables. In particular, promine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 interpretation guessing and English self-efficacy beliefs for listening ( $r=.475$ ,  $Sig.=.000$ ), speaking ( $r=.339$ ,  $Sig.=.000$ ), reading ( $r=.463$ ,  $Sig.=.000$ ), and writing ( $r=.569$ ,  $Sig.=.000$ ). More specifically, self-efficacy beliefs for writing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s from among the five categories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which are self-evaluation,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seeking social assistance, goal setting and planning, and interpretation guessing.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were consistent with the findings of empirical studies that mention that increasing learners' self-efficacy was associated with promoting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and English attainments (Magogwe & Oliver, 2007; Su et al., 2018), introducing the role of learning-strategy knowledge and also suggesting that instrumental support can be helpful for learners to become independent and active in their own

learning.

Here, a point worth noting is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in terms of self-efficacy for writing. In addition, self-regulatory learning skills, self-evaluation,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seeking social assistance, goal setting and planning, and interpretation guessing,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to writing source of self-efficacy. Accordingly, in writing sessions, teachers should make learners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abovementioned learning strategies and apply them to their writing tasks in order to promote their English self-efficacy. For instance, strategies-based instruction consists of description and modeling of effective strategies, group strategy discussion, strategy experimentation, and integration of strategies into materials (Cohen, 2003; Mills, Pajares, & Herron, 2007).

## 5.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set out to examine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depending on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s. The results reveal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in terms of self-efficacy beliefs for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showing that high-proficiency learners held a higher sense of self-efficacy than their medium- and low-proficiency counterparts. The study also indicate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with respect to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Successful learners more often employed self-regulatory skills than any other one, such as self-evaluation, 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record keeping and monitoring, goal setting and planning, review of records, and interpretation guessing factors. Additionally,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high achievers possessed a higher sens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more frequently use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their learning context. Similarly, Nosratinia et al. (2014) claim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use of learning strategies, suggesting that learners who have more confidence and believe in their abilities while performing tasks would exhibit better learning performance. Therefore,

developing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and encouraging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use could be helpful for learners, particularly for low-proficiency learners, and that could make them have a deeper interest and confidence in English learning.

Vann and Abraham (1990) asserted that low-proficiency learners are likely to be less flexible in using and applying learning strategies to their learning processes. Explicit instruction on strategic learning can make less successful learners more aware of the functions of learning strategies and facilitate strategy application in their own learning. In terms of social assistance, teachers can help students reinforce their learning abilities by giving them direct and positive feedback and then showing them ways to apply those skills to their learning in practical ways (Mackey, Kaganas, & Oliver, 2007). When designing curriculum,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to analyze learners' needs, linguistic backgrounds, motivations, and abilities, and then assign suitable task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interest and sense of accomplishment. If learners acknowledge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elf-regulatory strategies, they will choose and use better strategies in their future learning processes, which will eventually make them more autonomous.

The present study has several limitations. Since the results employed wer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pproaches are needed to more closely analyze the learners' specific perceptions and opinions toward English learning. Additionally, it is recommended that future studies examine other measures, such as their conversation abilities, listening skills, and writing tasks, to get a more varied array of results.

## References

- Anam, S., & Stracke, E. (2016).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of Indonesian primary school students: In relation to self-efficacy beliefs. *System, 60*, 1–10.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New York,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Freeman.
- Boekaerts, M., & Cascallar, E. (2006). How far have we moved toward the integ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in self-regul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8*(3), 199–210.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New York, NY: Pearson Education.
- Brown H. D., & Lee, H. (2015).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4th ed.). New York, NY: Pearson Education, Inc.
- Carson, J. G., & Loghini, A. (2002). Focusing on learning styles and strategies: A diary study in an immersion setting. *Language Learning, 52*(2), 401–438.
- Ching, L. C. (2002). Strategy and self-regulation instruction as contributors to improving students' cognitive model in an ESL program.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21*(3), 261–289.
- Cohen, A. D. (2003). *Strategy training for second language learners*. Minneapolis: Center for Advanced Research on Language Acquisi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Dörnyei, Z., & Ryan, S. (201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revisited*. New York, NY: Routledge.
- Ghonsooly, B., & Ghanizadeh, A. (2013).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and their relationship: A study of Iranian EFL teachers. *The Language Learning Journal, 41*(1), 68–84.
- Kim, D-H., Wang, C., Ahn, S. A., & Bong, M. (2015). English language learners' self-efficacy profiles and relationship with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Langua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36–142.
- Kirmizi, Ö. (2015). The interplay among academic self-concept, self-efficacy, self-regul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higher education L2 learner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ce, 5*(1), 32–40.
- Klassen, R. M. (2006). Too much confidence: The self-efficacy of adolesc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pp. 181–200).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Lamb, M. (2011). Future selves, motivation and autonomy in long-term EFL learning Trajectories. In G. Murry., X. Gao., & T. Lamb (Eds.). *Identity, motivation and autonomy in language learning* (pp. 177–194).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Mackey, A., Kanganas, A., & Oliver, R. (2007). Task familiarity and interactional feedback in child ESL classrooms. *TESOL Quarterly*, *41*, 285–312.
- Magogwe, J. M., & Oliver, R.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proficiency, age and self-efficacy beliefs: A study of language learners in Botswana. *System*, *35*, 338–352.
- Mahmoodi, M. H., Kalantari, B., & Ghaslani R. (2014). Self-regulated learning, motivation and language achievement of Iranian EFL learner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8*, 1062–1068.
- Matthews, P. H. (2010). Factors influencing self-efficacy judgments of university students in foreign language tutor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4*(4), 618–635.
- Mills, N., Pajares, F., & Herron, C. (2007). Self-efficacy of college intermediate French students: Relation to achievement and motivation. *Language Learning*, *57*(3), 417–442.
- Nosratinia, M., Saveiy, M., & Zaker, A. (2014). EFL learners' self-efficacy, metacognitive awareness, and use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How are they associated? *Theory and Practice in Language Studies*, *4*(5), 1080–1092.
- Oxford, R. L., & Burry-Stock, J. A. (1995). Assessing the use of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orldwide with the ESL/EFL version of the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 (SILL). *System*, *23*, 1–23.
- Pape, S. J., & Wang, C. (2003). Middle school children's strategic behavior: Classification and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and mathematical problem-solving. *Instructional Science*, *31*, 419–449.
- Pintrich, R. R. (2000). The role of goal orientation in self-regulated learning. In M. Boekaerts, P. R. Pintrich, & M. Zeidner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pp. 451–502). New York: Academic Press.
- Pintrich, R.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 Schunk, D. H., & Zimmerman, B. J. (1997). Social origins of self-regulatory competence. *Educational Psychologist*, *32*, 195–208.
- Su, Y., Zheng, C., Liang, J-C., & Tsai, C-C. (2018).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leanguage learners' online self-regulation and their self-efficacy. *Australasi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4*(3), 105–121.
- Vann, R. J., & Abraham, R. G. (1990). Strategies of unsuccessful language learners. *TESOL Quarterly*, *24*(2), 177–198.
- Wang, C., & Bai, B. (2017). Validating the instruments to measure ESL/EFL learners'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TESOL Quarterly*, *51*(4), 931–947.
- Wang, C., & Pape, S. J. (2004).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Four case studies. *The CATESOL Journal*, *16*(1), 1–19.
- Wang, C., & Pape, S. J. (2007). A probe into three Chinese boys' self-efficacy beliefs learn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1*(4), 364–379.
- Wang, C., Hu, J., Zhang, G., Chang Y., & Xu, Y. (2012). Chinese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nd self-efficacy beliefs in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22*(2), 103–135.
- Wang, C., Schwab, G., Fenn, P., & Chang, M. (2013).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Comparison between Chinese and Germ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3*(1), 173–191.
- Yang P-L., & Wang, A-L. (2015).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among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English self-efficacy, and explicit strategy instructions. *Taiwan Journal of TESOL*, *12*(1), 35–62.
- Zimmerman, B. J. (1990).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n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3–17.
- Zimmerman, B. J. (2002).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An overview. *Theory into Practice*, *41*(2), 64–70.

- Zimmerman, B. J. (2008). Investigating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Historical background, methodological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5(1), 166-183.
- Zimmerman, B. J., Bonner, S., & Kovach, R. (1996). *Developing self-regulated learners, beyond achievement to self-efficacy*.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90). Student differences in self-regulated learning: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51-59.
- Zuo, H., & Wang, C. (2014). Understanding sources of self-efficacy of Chinese students learning English in an American institution. *Multicultural Learning and Teaching*, 11(1), 83-112.

**Young Ah Cho**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asic Liberal Arts, Gwangju University  
277 Hyodeok-ro, Nam-gu, Gwangju 61743, Korea  
Phone: (062) 670-2269  
E-mail: blanche05@hanmail.net

**Youngsu Kim**

Teacher  
Changpyeong High School  
582 Changpyeong-ro, Changpyeong-myeon, Damyang-gun,  
Jeollanam-do 57389, Korea  
Phone: (061) 380-5243  
E-mail: kimys606@hanmail.net

Received on August 1,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6, 2019

Accepted on September 30, 2019



# Gapping in V+*ko* construction in Korean as dependent ellipsis \*

YoungSik Choi

(Soonchunhyang University)

Choi, YoungSik. (2019). Gapping in V+*ko* construction in Korean as dependent ellipsi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3), 75–97. It has been argued that Korean has two types of V+*ko* coordinate constructions: the tensed V+*ko* construction and the un-tensed V+*ko* construction. I claim only the former constitutes a genuine instance of coordination structure, diverging from the common view (Yoon 1993, 1994, 1997, Chung 2001, 2005, Kim and Cho 2012, Jung 2016, among others). I will show that gapping in Korean conforms to the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 that it elides the tensed verb in a conjunct coordinated with another clause containing the same verb. I propose dependent ellipsis for the analysis of gapping in Korean, an idea as originally proposed by Williams (1997), Ackema and Szendrői, (2002) and Hernández (2007), among others, for English gapping. The striking common aspects of gapping in English and Korean reflect a common mechanism of dependent ellipsis beyond the superficial difference in the directionality of gapping as attributed to the word order parameters of the universal grammar.

**Key words:** gapping, dependent, ellipsis, correlate, tense

## 1. Introduction

Gapping is a kind of ellipsis phenomenon in head initial languages as in English which elides the tensed verb in the second conjunct coordinated with another clause containing the same verb whereas in head final languages like Korean the tensed verb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oonchunhyang University Research Fund.

in the first conjunct is elided, as illustrated with the English and Korean examples respectively below in (1–2), with IND in (2) standing for indicative.

(1) John bought a book and Mary  $\emptyset$  a newspaper. ( $\emptyset$  =bought)

(2) John-un chayk-ul  $\emptyset$ , Mary-nun sinmwun-ul ilk-ess-ta.  
John-TOP book-ACC Mary-TOP newspaper-ACC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and Mary read a newspaper.'  
( $\emptyset$  = *ilk-ess-ko* 'read-and')

Ross (1970) dubs gapping in the second conjunct in English above in (1) forward gapping and gapping in the first conjunct in Korean above in (2) backward gapping. He further goes on to suggest that the two types of gapping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word order parameter across languages. Head-initial languages like English allow forward gapping only, whereas head-final languages like Korean allow backward gapping only (also see Koutsoudas 1972, and Hernández 2007, among others).<sup>1)</sup>

In this paper, I will suggest that gapping in Korean also elides the tensed verb in a conjunct coordinated with another clause containing the same verb, with the non-trivial implication that Korean gapping also conforms to the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 on gapping. I will also suggest dependent ellipsis as a syntactic operation is what is responsible for gapping in Korean following Williams (1997), Ackema and Szendrői, (2002) and Hernández (2007), among others as proposed for the analysis of gapping in English. The common properties of gapping in Korean and English beyond the difference in the directionality of gapping simply follows given that the same mechanism of dependent ellipsis is at work in English and Korean, each representing head initial and head final languages. Throughout I will refer to the elided verb in a conjunct as the gap and the corresponding verb in the other conjunct as the correlate.

---

1) Note that gapping is different from pseudo-gapping, which involves discontinuous elements as shown below in (ib) (also see Lasnik 1999).

(i) a. Mary counted John a friend but John doesn't count Mary a friend  
b. Mary counted John a friend but John doesn't ~~count~~ Mary ~~a~~friend  
(Freidin 2012:239)

The organization of the present paper is as follows. In section 2, I briefly review past proposals for gapping to lay the ground work for the analysis of Korean gapping in subsequent sections. In section 3, I will critically review two *V+ko* constructions: tensed *V+ko* construction and un-tensed *V+ko* construction, both of which arguably constitute coordination structures in Korean. I argue only the former qualifies as a bona fide coordination structure, quite different from the widely held view (Yoon 1993, 1994, 1997, Chung 2001, 2005, Kim and Cho 2012, Jung 2016, among others). In section 4, I will argue for the dependent ellipsis as a syntactic operation for gapping in Korean *V+ko* construction as well adopting the original ideas by Williams (1997), Ackema and Szendrői (2002) and Hernández (2007), for English gapping. In section 5 I will present the common properties of gapping in English and Korean to support the present thesis. Section 6 is the conclusion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 2. Past Proposals for Gapping in Korean

Since Ross (1970)'s influential proposal that gapping involves deletion of the tensed verb in both head-initial languages as in English and head final languages as in Korean, there have been various proposals advanced for the analysis of gapping across languages (see Jackendorff 1971, Maling 1972, Hankamer 1979, Reinhart 1991, Abe and Hoshi 1995, Kim 1997, Lasnik 1999, Johnson 1994, 1996, 2006, Lee 2005, Hernández 2007, Culicover 2009, Freidin 2013, Jung 2016, among many others).

As for gapping in Korean type languages as above in (2), which belong to head final languages, Johnson (1994, 1996, 2000, 2006), for example, suggests that it involves right node raising of the tensed verb in an across the board fashion. Abe and Hoshi (1995) and Kim (1997) in the meantime argue that it is derived from focus movement of the NPs out of VP to TP adjoined position in both conjuncts followed by the deletion of the TP in the first conjunct. Of the two, Johnson's proposal is particularly influential, since the word order fact follows directly from his proposal. The proposal accounts for why gapping in Korean, which is a head final language has the tensed verb at the second conjunct of the coordinate construction. It also follows from his proposal that the structure feeding gapping is necessarily

coordinate structures, which is the fact across languages. Johnson's proposal is problematic,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V+ko* coordination structure above in (2), repeated below as (3).

- (3) John-un chayk-ul Ø, Mary-nun sinmwun-ul ilk-ess-ta.  
 John-TOP book-ACC Mary-TOP newspaper-ACC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and Mary read a newspaper.'  
 (Ø=*ilk-ess-ko* 'read-and')

Given the lack of morphological isomorphism between the two verbs in (3), it is hardly the case that gapping in Korean is right-node-raising.<sup>2)</sup> Note that the verb in the first conjunct is *ilkess-ko* 'read-and' and the one in the second conjunct is *ilkesta* 'read,' thus hardly justifying the right node raising of the tensed verb in an across the board fashion.

In the meantime, the focus analysis of gapping in Korean (Abe and Hoshi 1995, and Kim 1997 inter alia) involves massive focus movement of NPs out of VP to TP adjoined position in both conjuncts along with the subsequent deletion of TP in the first conjunct, as schematically shown below in (4) for the gapping construction above in (3).

- (4) [<sub>TP</sub> NP<sub>i</sub>-TOP NP<sub>j</sub>-ACC [<sub>TP</sub> [<sub>VP</sub> t<sub>i</sub> t<sub>j</sub> V]], and [<sub>TP</sub> NP<sub>k</sub>-TOP NP<sub>l</sub>-ACC  
 [<sub>TP</sub> [<sub>VP</sub> t<sub>k</sub> t<sub>l</sub> V]].

While a single focus movement is certainly possible, multiple focus movement is problematic, especially if the movement is to simply derive the gapping construction. Moreover, gapping in Korean is still possible with the manner adverbial which adjoins

---

2) One may suggest the following is certainly compatible with across the board movement of the tensed verb. However, note that it is still the case that deletion of the tensed verb is compatible with the construction, whereas the across the board movement approach cannot deal with the sentence above in (3).

(i) John-un chayk-ul Ø, kuliko Mary-nun sinmwun-ul ilk-ess-ta.  
 John-TOP book-ACC and Mary-TOP newspaper-ACC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and Mary read a newspaper.'  
 (Ø = *ilk-ess-ta* 'read')

to VP as shown below in (5).

- (5) John-un yelshimhi chayk-ul Ø, Mary-nun coyonghi sinmwun-ul  
 John-TOP earnestly book-ACC Mary-TOP quietly newspaper-ACC  
 ilk-ess-ta.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earnestly and Mary read a newspaper quietly.’  
 (Ø = *ilk-ess-ko* ‘read-and’)

The grammaticality of the sentence above in (5) crucially undermines the focus movement approach, since the presence of the VP adjoined manner adverbial strongly suggests that gapping in (5) does not involve TP deletion following the massive focus movement of NPs out of VP in both conjuncts. Below in the subsequent section, I will critically review two types of *V+ko* constructions which arguably constitute coordination structure in Korean: tensed *V+ko* construction and un-tensed *V+ko* construction, whose precise status crucially matters for our analysis of gapping in Korean throughout.

### 3. Two Types of *V + ko* Construc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gapping applies to the coordinate structures. Coordinate construction in Korean typically comprises clauses with the tensed verb in the first conjunct marked with *ko* ‘and’ that corresponds to *and* in English as illustrated below in (6).

- (6) John-un chayk-ul ilk-ess-ko, Mary-nun sinmwun-ul  
 John-TOP book-ACC read-PAST-and Mary-TOP newspaper-ACC  
 ilk-ess-ta.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and Mary read a newspaper.’

Still, there have been quite a lot of discussions regarding whether the construction below in (7) with the un-tensed *V+ko*, that is, with no past tense morpheme *ess*

‘did’ realized as part of the verbal morphology, constitutes a coordinate construction as well.

- (7) John-un chayk-ul ilk-Ø-ko, Mary-nun sinmwun-ul  
 John-TOP book-ACC read-and Mary-TOP newspaper-ACC  
 ilk-ess-ta.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and Mary read a newspaper.’

Despite the non-trivial difference in the tense of the verb in *V+ko* constructions in (6) and (7), the common assumption in the literature is that both constitute coordinate constructions (Yoon 1993, 1994, 1997, Chung 2001, 2005, Kim and Cho 2012, Jung 2016, among others), the reason being the symmetry in tense and mood interpretation in both conjuncts in the two constructions. The verb in the first conjunct in (7), although it does not have past tense morpheme on it, is construed as past tense symmetrically with the past tense verb in the second conjunct. Similarly, the verbs in the first conjunct both in (6–7), although they do not have their own mood marker, share the same mood respectively with the verb in the second conjunct to be construed as indicatives.

So, Yoon (1993, 1994, 1997), for example, assuming morphemes of the verb enter separately into the numeration set, suggests that the structure in (7) is an instance of VP coordination, and the one in (6) IP coordination, the difference being the level of coordination. According to Yoon (1993, 1994, 1997), the symmetric interpretation of the mood in (6) is achieved by the mood morpheme adjoining to IP such that it can have scope over both the two conjoined IPs. And the symmetric interpretation of tense and mood in (7) is attributed to tense and mood morphemes respectively adjoining to VP and IP such that both have scope over the first conjunct. Those tense and mood morphemes later on combine with the verb in the second conjunct via the process of phrasal affixation.

In the meantime, Chung (2001, 2005), assuming strong projectionist view of checking theory on verbal morphology, according to which the verb is introduced into the numeration set fully inflected with all the morphemes on the verb, suggests that both (6) and (7) are TP coordination structures. The symmetric interpretation of the mood in (6) is achieved under his system by the mood marker heading CP which

has scope over both TP conjuncts. For (7), he further suggests that the first conjunct has a null T which is construed symmetrically with the past tense of the second conjunct. As for mood in (6–7), the mood morpheme projects CP such that it can have scope over both conjuncts, yielding symmetric mood interpretation.

Whichever is the detail of the two proposal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operation gapping applies to the tensed verb in a conjunct coordinated with another clause containing the same verb across languages (Ross 1970, Hankamer 1979, and Hernández 2007, *inter alia*). Thus once one assumes (7) is a coordinate structure as well as (6), thus an input structure for the gapping construction above in (3), it necessarily violates the condition for gapping to apply in the former, since the first verb in (7) is not tensed, quite unlike the verb in (6).<sup>3)</sup>

Moreover, a growing body of research suggests that the un-tensed *V+ko* construction does not constitute a coordinate construction (Kim 1995, 2000, Choi 2014, among others). In fact, as will be demonstrated below, the un-tensed *V+ko* construction, quite unlike the tensed *V+ko* construction is not subject to th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which in turn strongly suggests that the former, quite in contrast to the latter, does not constitute coordinate construction.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ny movement in the coordinate construction is subject to th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given below in (8).

(8)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In a coordinate structure, no conjunct may be moved, nor may any element contained in a conjunct be moved out of that conjunct.

(Ross, 1974, p. 181).

The following examples in (9–10) in English illustrate how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works to regulate movement in the coordinate construction:

---

3) One may wonder whether *ilk-ess-ko* ‘read-PAST-and’ and *ilk-ess-ta* ‘read-PAST-IND’ are identical. Note that it is the fact that in the well-formed coordination structure in Korean the verb in the first conjunct is necessarily introduced with the sentence conjoining morpheme *ko* ‘and,’ and the one in the second conjunct is introduced with the mood marker.

- (9) a. \* Who<sub>i</sub> did you see [t<sub>i</sub> and Sandy]?  
 b. \* Who<sub>i</sub> did you see [Sandy and t<sub>i</sub>]?
- (10) a. \* Who<sub>i</sub> did you see [a picture of t<sub>i</sub> and the latest movie]?  
 b. \* Who<sub>i</sub> did you see [the latest movie and a picture of t<sub>i</sub>]?  
 (Culicover, 2009, p. 348)

Movement of the *wh*-word in the sentences above in (9–10) all violat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in one way or another as stated above in (8). When it comes to Korean, Choi (2014) crucially observes that the un-tensed *V+ko* does not show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For this, consider first the following where an element contained in a conjunct undergoes movement:

- (11) a. John-i [son-ul ssi-ko ] [pap-ul mek-ess-ta]  
 John-NOM hand-ACC wash-and rice-ACC eat-PAST-IND  
 'John washed his land and ate the meal.'
- b. Pap<sub>i</sub>-ul, John-i [son-ul ssi-ko ] [t<sub>i</sub> mek-ess-ta]  
 meal-ACC John-NOM hand-ACC wash-and eat-PAST-IND  
 'John washed his land and ate the meal.'  
 (Choi, 2014, p. 62)

The structure above in (11a) is an instance of VP coordination, according to Yoon (1993, 1994, 1997) as indicated. Or one may suggest it is TP coordination with the unpronounced *pro* serving as the subject of the second conjunct TP, following Chung (2001, 2005). Whatever is the precise structure, it is clear the object of the second conjunct is fronted to the sentence initial position as shown in (11b). If the structure in (11a) is a coordinate structure, (11b) should be ungrammatical on a par with (9) in English, where the element contained in a conjunct underwent movement. As one can see, however, (11b) is quite grammatical, which is quite unexpected if the un-tensed *V+ko* construction indeed constitutes a genuine coordinate construction. Next, consider the case where one of the conjuncts undergoes movement as shown below in (12b).<sup>4)</sup>

---

4) An anonymous reviewer alludes that given that (12b) is slightly deviant, it may not be



- (12) a. Mary-nun John-i [son-ul ssis-ko] [pap-ul  
 Mary-TOP John-NOM hand-ACC wash-and meal-ACC  
 mek-ess-ta-ko] sangkakhanta.  
 eat-PAST-IND-COMP think  
 'Mary thinks John washed his land and ate the meal.'
- b. ?[Son-ul ssis-ko ]<sub>i</sub> Mary-nun John-i t<sub>i</sub> [pap-ul  
 hand-ACC wash-and Mary-TOP John-NOM meal-ACC  
 mek-ess-ta-ko] sayngkakhanta.  
 eat-PAST-IND-COMP think  
 'Mary thinks John washed his land and ate the meal.'

The sentence above in (12b) is acceptable, which is again quite unexpected if the un-tensed *V+ko* construction constitutes a bona fide coordination structure. Note that regardless of the level of coordination, i.e., VP or TP, it is clear the first adjunct moved out of the purported coordination structure above in (12b). In the meantime, note that quite interestingly, when one minimally changes the sentences above in (11–12) by replacing the verb in the first conjunct with a tensed one, a sharp difference in grammaticality results, as shown below in (13–14).

- (13) a. John-i [son-ul ssis-ess-ko] [pap-ul mek-ess-ta].  
 John-NOM hand-ACC wash-PAST-and rice-ACC eat-PAST-IND  
 'John washed his land and ate the meal.'
- b. \*Pap<sub>i</sub>-ul, John-i [son-ul ssis-ess-ko] [t<sub>i</sub> mek-ess-ta]  
 meal-ACC John-NOM hand-ACC wash-PAST-and eat-PAST-IND  
 'John washed his land and ate the meal.'
- (14) a. Mary-nun John-i [son-ul ssis-ess-ko ] [pap-ul  
 Mary-TOP John-NOM hand-ACC wash-PAST-and meal-ACC  
 mek-ess-ta-ko] sayngkakhanta.  
 eat-PAST-IND-COMP think

---

taken as an argument for the present proposal that only tensed *V+ko* clause constitutes a genuine coordinate construction. Note that the deviant status rather has to do with scrambling across more than one clause boundaries *per se*, hence not damaging the present proposal.

‘Mary thinks John washed his land and ate the meal.’

- b. \*[Son-ul ssi-ess-ko]<sub>i</sub> Mary-nun John-i t<sub>i</sub> [pap-ul hand-ACC wash-PAST-and Mary-TOP John-NOM meal-ACC mek-ess-ta-ko] sayngkakhanta.  
eat-PAST-IND-CCOMP think  
‘Mary thinks John washed his land and ate the meal.’

The state of affairs in grammaticality in the paradigm above in (11–14) strongly suggests that tensed *V+ko* and the un-tensed *V+ko* are categorically different in that only the former constitutes a coordinate construction. As a matter of fact, Choi (2014) specifically suggests that the un-tensed *V+ko* is an adjunct clause headed by *ko* ‘and’ that in turn projects CP.<sup>5)</sup> To make his case, he illustrates the following in (15b) where an element moves out of the first conjunct:<sup>6, 7)</sup>

- (15) a. John-i [son-ul ssi-ko] [pap-ul mek-ess-ta].  
John-NOM hand-ACC wash-and rice-ACC eat-PAST-IND  
‘John washed his land and ate the meal.’  
b. \*Son<sub>i</sub>-ul John-i [ t<sub>i</sub> ssi-ko] [pap-ul mek-ess-ta].  
hand-ACC John-NOM wash-and rice-ACC eat-PAST-IND  
‘John washed his land and ate the meal.’  
(Choi, 2014, p. 65)

5) Choi (2014) in fact suggests that *ko* ‘and’ in the un-tensed *V+ko* construction is a complementizer that heads the adjunct CP.

6) An anonymous reviewer wonder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se the inalienable body part *son* ‘hand,’ which may potentially affect the grammaticality judgment of the sentences in (12) for example.

7) An anonymous reviewer observes that (15b) is rather acceptable. I am sympathetic with the reviewer since it may have to do with the possibility of parsing the sequence *John-i son-ul ssi-ko* ‘John washed his hand-and’ as a clause with the null *pro* serving as the subject of *pap-ul mekessa* ‘ate the meal.’ If so, the preposed *son-ul* ‘hand’ is not actually outside the adjunct clause, meaning no adjunct island violation is involved. However, note that once we insert a pause right after the subject *John* such that the overt subject *John* is construed as the subject of *pap-ul mekessa* ‘ate the meal.’ (15b) is quite ungrammatical.

According to him, the ungrammaticality of (15b) is attributed to the violation of the adjunct clause condition (Huang 1982, among others), not violation of coordination structure constraint. I will thus conclude the un-tensed *V+ko* construction above in (7) does not constitute a coordinate structure but an adjunct CP quite unlike the tensed *V+ko* construction in (6), which constitutes a bona fide coordination structure, repeated respectively below as (16) and (17).<sup>8)</sup>

- (16) John-un chayk-ul ilk-ess-ko, Mary-nun sinmwun-ul  
 John-TOP book-ACC read-PAST-and Mary-TOP newspaper-ACC  
 ilk-ess-ta.  
 read-PAST-IND  
 'John read the book and Mary read the newspaper.'

- (17) John-un chayk-ul ilk-ko, Mary-nun sinmwun-ul  
 John-TOP book-ACC read- $\emptyset$ -and Mary-TOP newspaper-ACC  
 ilk-ess-ta.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and Mary read a newspaper.'

If the present proposal for the status of the two types of *V+ko* constructions is on the right track, it follows that only the tensed *V+ko* construction as above in (16) is the input structure for the gapping construction above in (3), repeated below as (18).

- (18) John-un chayk-ul  $\emptyset$ , Mary-nun sinmwun-ul ilk-ess-ta.  
 John-TOP book-ACC Mary-TOP newspaper-ACC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and Mary read a newspaper.'  
 ( $\emptyset$  = *ilk-ess-ko* 'read-and')

If that is the case, one can conclude that gapping in Korean, which is a head final language, also conforms to the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 that it elides the

---

8)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tatus of the sentence with the un-tensed *V+ko* as a coordinate structure was independently challenged by several researchers. (see Yi, 1994; Kim, 1995; and Cho, 1995 among others)

tensed verb in a conjunct coordinated with another clause containing the same verb. As one can see, gapping in English above in (1) repeated below as (19), which is a head-initial language also deletes the tensed verb ‘bought’ in a conjunct coordinated with another clause containing the same verb.

(19) John bought a book and Mary  $\emptyset$  a newspaper. ( $\emptyset$  =bought)

Moreover, the following shows that the verbs should be identical in tense in gapping constructions in Korean as illustrated below in (20).

(20) \*John-un chayk-ul  $\emptyset$ , Mary-nun sinmwun-ul ilk-ess-ta.  
 John-TOP book-ACC Mary-TOP newspaper-ACC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and Mary read a newspaper.’  
 ( $\emptyset$  = *ilk-ess-ess-ko* ‘had read’)

The sentence is ungrammatical under the construal where the tense of the verb in the first conjunct is past perfect whereas the verb in the other conjunct bears simple past tense. This state of affairs strongly suggests that there holds the requirement for the same tense of the two verbs in Korean gapping. Note that the requirement for the same tense of the verbs for gapping is not a language particular requirement but it holds across languages. English, a head initial language, for example also has the requirement for the same tense of the verbs as shown by the ungrammaticality of the sentence below in (21).

(21) \*John took Ling 520 this semester and Mary  $\emptyset$  Ling 530 last semester.  
 ( $\emptyset$  = had taken)

As one can see, the two verbs in the gapping construction in English above in (21) have different tense, thus leading to ungrammaticality.<sup>9)</sup>

---

9) The gap and the correlate can have different agreement features as illustrated below in (i), with  $\emptyset$  in (ia) corresponding to *ilku-si-ess-ko*, and  $\emptyset$  in (ib) *ilk-ess-ko*.

(i) a. Sensayng-nim-un chayk-ul  $\emptyset$ , John-un sinmwun-ul ilk-ess-ta.  
 teacher-HON-TOP book-ACC John-TOP newspaper-ACC read-PAST-IND  
 ‘The teacher read a book, and John read a newspaper.’

## 4. Gapping as Dependent Ellipsis

With the requirement for the same tense of the verbs in gapping construction in Korean as well, Korean gapping construction, as the present research shows, has a non-trivial implication of conforming to the well-observed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 gapping elides the tensed verb in a conjunct coordinated with another clause containing the same verb. I will assume the strong projectionist view in the minimalist program of checking theory on the verbal morphology (Pollock 1989, and Chomsky 1995), according to which the verb is introduced into the numeration set fully inflected. This means the fully inflected verb checks its relevant features including  $\emptyset$ -features against T with the matching features in the computation. With this much as a background, consider the Korean *V+ko* coordination structure above in (18) repeated below as (22).

- (22) John-un chayk-ul  $\emptyset$ , Mary-nun sinmwun-ul ilk-ess-ta.  
 John-TOP book-ACC Mary-TOP newspaper-ACC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and Mary read a newspaper.'  
 ( $\emptyset$  = *ilk-ess-ko* 'read-and')

- 
- b. John-un chayk-ul  $\emptyset$ , sensayng-nim-un sinmwun-ul ilku-si-ess-ta  
 John-TOP book-ACC teacher-HON-TOP newspaper-ACC read-HON-PAST-IND  
 'The teacher read a book, and John read a newspaper.'

Korean has honorific agreement according to which when the addressee is an honorable person, it is required to use an honorific morpheme *si* on the verb. As one can see above in (i) mismatch in agreement between the two verbs in the two conjuncts does not affect the grammaticality of the gapping construction, which in turn means agreement is not a factor in gapping. In fact, Kim and Cho (2012) also observe that agreement is not a factor in Korean gapping, either. Incidentally note that the same holds in other languages as well as illustrated with the English example below in (ii) where the gap and the correlate have different agreement features.

- (ii) John has eaten the bread and the kids  $\emptyset$  drunk the soda. ( $\emptyset$ =have)

Suppose one deletes the tensed verb along with T, given that gapping is deletion of the tensed verb, which, however, is an instance of a non-constituent deletion as schematically shown below in (23).

$$(23) \text{ [}_{\text{TP}} \text{ NP-TOP [}_{\text{T}} \text{ [}_{\text{VP}} \text{ NP-ACC V]—T} \text{ ] [}_{\text{TP}} \text{ NP-TOP [}_{\text{T}} \text{ [}_{\text{VP}} \text{ NP-ACC V} \text{ ] T ] }$$

So, one way to get around the problem of a non-constituent deletion above in (23) is to propose that what is going on is actually T deletion, which in turn licenses subsequent deletion of the verb, hence dependent ellipsis, an idea as originally proposed by Williams, (1997), Ackema and Szendrői, (2002) and Hernández (2007), among others for the analysis of English gapping construction as above in (19), repeated below as (24).

$$(24) \text{ John bought a book and Mary } \emptyset \text{ a newspaper. (}\emptyset \text{ =bought)}$$

The initial deletion of T licenses additional deletion of the verb, thus voiding the problem of an apparent non-constituent deletion as shown below in (25).<sup>10)</sup>

$$(25) \text{ [}_{\text{TP}} \text{ NP-NOM [}_{\text{T}} \text{ [}_{\text{VP}} \text{ V NP-ACC} \text{ ]]} \text{ and [}_{\text{TP}} \text{ NP-NOM [}_{\text{T}} \text{ T—[}_{\text{VP}} \text{ V NP-ACC} \text{ ]]} \text{ ]}$$

As one can see thus far, the dependent ellipsis for gapping applies under the identity of tense in T in the coordinate construction. I will also crucially assume the dependent ellipsis for gapping is a syntactic operation to apply before PF following Hernández (2007), among others. One motivation for this assumption is that the gap and the correlate shows syntactic dependency as illustrated with Korean and English examples later in section 5. One may put the idea of dependent ellipsis in the

---

10) The following gapping construction in English with an auxiliary verb is a good illustration of gapping operation deleting the non-constituent of T and V.

(i) John will invite Chomsky and Mary  $\emptyset$  Jean-Roger Vergnaud ( $\emptyset$  = will invite)

Note that gapping above in (i) deletes the sequence of *will invite*, which is certainly a non-constituent.

minimalist perspective (Chomsky 1995, 2001, among others). With the initial deletion of T, the structure ends up with null T with no features against which the verb will check its  $\emptyset$  feature including tense. Hence as a last resort the verb should also delete to save the structure to crash.<sup>11)</sup>

The present proposal for the analysis of the gapping construction in Korean is in a way in agreement with Ross (1970) for gapping across languages, according to whom it involves deleting the tensed verb. Ross (1970) observes that what is behind gapping across languages is deletion of the tensed verb with directionality of deletion the only difference as stated below in (26).

- (26) The order in which Gapping operated depends on the order of elements at the time that the rule applies; if the identical elements are on left branches, Gapping operates forward; if they are on right branches, it operates backward. (Ross 1970, pp. 251)

Before closing the section, one may then wonder what mechanism is responsible for the deletion of the verb in the un-tensed *V+ko* construction below in (27).

- (27) John-un chayk-ul  $\emptyset$ , Mary-nun sinmwun-ul ilk-ess-ta.  
 John-TOP book-ACC Mary-TOP newspaper-ACC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and Mary read a newspaper.'  
 ( $\emptyset$  = *ilk-ko* 'read-and')

The sentence above in (27) is certainly grammatical under the construal where the gapped verb is un-tensed, *ilk-ko* 'read-and.' This, as one may suggest, serves as a counterexample to the present proposal, which is that the tensed *V+ko* construction, but not the un-tensed *V+ko* construction constitutes a bona fide coordination structure and thus serves as the input structure for the gapping operation to apply.

---

11) What if one assumes incorporation by Baker (1988) according to which each morpheme of the verbal morphology projects its own syntactic category such that the past tense morpheme projects T. Deleting T along with the past tense morpheme leaving the verb stem behind will cause the stem to be stranded, a violation of the extended affix filter condition (see Lasnik 1995, Hernandez 2007). It is thus the case that under the incorporation theory on verbal morphology as well, gapping involves deletion of T and V.

For this, I suggest that the construction above in (27), which gives every bit the impression of a gapping construction with the un-tensed verb elided, is in fact VP ellipsis construction.<sup>12)</sup> Note that VP ellipsis, quite unlike gapping that applies only to the coordination construction to delete the sequence of T and V, applies to the adjunct clause as well, as shown below in (28) in English, for example.

- (28) a. John will leave tomorrow because Mary will leave the day after.  
(VP ellipsis)  
b. \*John will leave tomorrow because Mary ~~will~~ leave the day after.  
(Gapping)  
(Freidin, 2013, p. 237)

The sentence above in (28a) with VP ellipsis in the adjunct clause is perfect whereas the one in (28b) with gapping is ungrammatical. So, it turns out that the sentence above in (27), quite against the impression on the surface, does not constitute an argument against the present proposal that only tensed  $V+ko$  counts as a coordination structure to feed gapping in Korean.

I thus far suggested Korean gapping also has the mechanism of dependent ellipsis much like English gapping. If that is the case, it is no surprise to find common properties of gapping between the two languages, which is indeed the case as will be shown in the section below.

## 5. Common Properties beyond Directionality of Gapping

Recall that gapping in head initial languages as in English involves forward gapping whereas gapping in head final languages as in Korean involves backward gapping. Beyond the surface difference in the directionality of gapping, Korean and English gapping constructions exhibit remarkably common properties, which in turn

---

12) VP ellipsis above in (27), as widely known as PF phenomenon (Chomsky 1995, Freidin 2012, among others) accompanies preposing of the object NP out of VP, which should apply before the deletion of the VP.



lend additional support to the present proposal that Korean gapping is also dependent ellipsis.

### 5.1 Locality between the Gap and the Correlate

One well documented property of gapping in English is that the gap must have its correlate within its local domain, that is, no embedding constraint as dubbed by Hankamer (1979), according to which the gap and the correlate cannot be apart from each other by a clausal boundary (also see Rooryck 1985).

- (29) Alfonse stole the emeralds, and I think that Mugsy  $\emptyset$  the pearls.  
 ( $\emptyset$  = stole)  
 (Hankamer, 1979, p. 19)

As one can see above in (29), the gap does not have its correlate within its local domain, since there is an intervening clausal boundary between the two. Interestingly enough, one finds the same is true when it comes to gapping in Korean as below in (30).

- (30) \*John-un chayk-ul  $\emptyset$  Mary-nun [<sub>CP</sub> John-i sinmwun-ul  
 John-TOP book-ACC Mary-TOP John-NOM newspaper-ACC  
 ilk-ess-ta-ko] sayngkakhanta.  
 read-PAST-IND-COMP think  
 'John read a book and Mary thinks John read a newspaper.'  
 ( $\emptyset$  = *ilk-ess-ko* 'read-and')

The gap and the correlate, as one can notice, are apart from each other by a clausal boundary in (30), thus ungrammatical.

### 5.2. Uniqueness of the Correlate

Another property in gapping construction in English is that the correlate should be unique. For this, consider the following:

- (31) \*John washed his shirt, Mary ironed her skirt and Bill  $\emptyset$  his trousers.  
 ( $\emptyset$  = washed and ironed)

The sentence above in (33) is ungrammatical, since the correlates are not unique, one is ‘washed’ and the other ‘ironed.’ The same requirement for uniqueness also holds for gapping in Korean as below in (32).<sup>13)</sup>

- (32) \*John-un chayk-ul  $\emptyset$ , Mary-nun sinmwun-ul ilk-ess-ko  
 John-TOP book-ACC Mary-TOP newspaper-ACC read-PAST-and  
 Tom-un capci-lul sa-ss-ta.  
 Tom-TOP magazine-ACC bought-PAST-IND  
 \*‘John bought a book, Mary read a newspaper, and Tom a magazine’  
 ( $\emptyset$  = *ilk-ess-ko* ‘read-and’ *sa-ss-ta* ‘bought’)

The sentence above in (32) is ungrammatical since one of the correlates is *ilk-ess-ko* ‘read-and’ and the other is *sa-ss-ta* ‘bought,’ violating uniqueness requirement for the correlates.

### 5.3. Plurality of Gap

Last, but not the least, is that the correlate can have more than one gap in gapping in English, which is also the case in Korean as well as shown respectively below in (33) and (34).

- (33) John visited London, Mary  $\emptyset$  Paris and Bill  $\emptyset$  New York  
 ( $\emptyset$  = visited)

---

13) An anonymous reviewer notes that his informants report (32) is grammatical and is construed as ‘John read a book, Mary read a newspaper and Tom bought a magazine.’ If so, it is quite puzzling to the present proposal, I should admit.

- (34) John-un chayk-ul Ø, Mary-nun sinmwun-ul Ø, Tom-un  
 John-TOP book-ACC Mary-TOP newspaper-ACC Tom-TOP  
 capci-lul ilk-ess-ta  
 magazine-ACC read-PAST-IND  
 'John read a book, Mary read a newspaper and Tom read a magazine.'  
 (Ø = *ilk-ess-ko* 'read-and' )

As one can see, Korean gapping construction above in (34), much like English gapping construction in (33) can have more than one gap. Note that it is of no surprise that Korean as a head final language, and English as a head initial language have in common those properties as listed above in this section, given that the same mechanism of dependent ellipsis is behind. Korean gapping is not right-node-raising as in Johnson (1994, 1996, 2000, 2006) nor is it TP deletion as in Abe and Hoshi (1995), and Kim (1997). Moreover, note that the relation between the gap and the correlate shown thus far in the two languages as summarized below in (35) is nothing other than syntactic dependency.

- (35) a. The dependent (gap) must have its correlate within its local domain.  
 (Locality)  
 b. Each dependent (gap) must take a unique antecedent (correlate).  
 (Uniqueness)  
 c. An antecedent (correlate) can have more than one dependent (gap).  
 (Plurality)

The properties holding between the dependent and the antecedent as listed above in (35) all constitute instances of well established syntactic dependency (see Koster (1987), and Neeleman and van de Koot (2002), among others), which in turn strongly suggests that gapping is a syntactic phenomenon in Korean as well as English.

## 6. Conclusion and Implications

Korean has two *V+ko* constructions, which has been argued to constitute coordinate constructions: tensed *V+ko* construction and un-tensed *V+ko* construction. I claimed only the former constitutes a bona fide coordination structure to feed gapping, hence quite in agreement with the proposal as in (Kim 1995, 2000, Choi 2014). The present proposal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Korean also conforms to the 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 that gapping deletes the tensed verb in a conjunct coordinated with another conjunct with the same verb. Since gapping involves the syntactic operation of deleting the tensed verb in Korean, I proposed dependent ellipsis to resolve an apparent non-constituent deletion of the sequence of T and V, adopting the ideas as proposed by Williams (1997), Ackema and Szendrői (2002) and Hernández (2007), among others for English gapping. The striking common properties of gapping between Korean and English rather reflects a common mechanism of dependent ellipsis, with the difference in the directionality of gapping attributed to the head initial parameter vs. head final parameter of the universal grammar.

## References

- Abe, J., & Hiroto, H. (1995). Gapping and the directionality of movement. *Proceedings of FLSM 6*, 82–93.
- Ackema, P., & Szendrői, K. (2002). Determiner sharing as an instance of dependent ellipsis. *The Journal of Comparative and Germanic Linguistics*, 5, 3–34.
- Baker, M. (1988). *Incorporation: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changing*.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mamoun, E. (1992). *Functional and inflectional morphology problems of projection, representation and derivation*. Doctoral dissertation,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
- Cho, S. (1995). Un-tensed phrases in Korean verbal coordination. *Proceedings of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6, 157–172.
- Choi, YS. (2014). Morphology in the un-tensed clause with *ko*: Coordinate structure or not. *Studies in Modern Grammar*, 76, 55–76.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ung, D. (2001). Bare-*ko* coordinate structures and the formal status of post-verbal morphology. *Proceedings of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9, 307–316.
- Chung, D. (2005). What does bare-*ko* coordination say about post-verbal morphology in Korean? *Lingua*, 115, 549–568
- Culicover, P. (2009). *Natural language syntax*.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endoff, R. (1971). Gapping and related rules. *Linguistic Inquiry*, 2, 21–35.
- Johnson, K. (1994). *Bridging the gap*.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Johnson, K. (1996). *In search of the English middle field*.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Johnson, K. (2006). *Gapping is not (VP) ellipsi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Hankamer, J. (1979). *Deletion in coordinate structures*. New York: Garland.
- Hernández, A. (2007). Gapping as a syntactic dependency. *Lingua*, 117, 2106–2133
- Jayaseelan, K. A. (1990). Incomplete VP deletion and gapping. *Linguistic Analysis*, 20, 64–81.
- Jung, W. (2016). *The non-unity of gapping*. Doctoral dissertation, Euskal Herriko Unibertsitatea–University of the Basque Country.
- Kim, J-S. (1997). *Syntactic focus movement and ellipsis: A minimalist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 Kim, J-B. (1995). *The grammar of negation: A lexicalist, constraint-based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Kim, J-B. (2000). *The grammar of negation: A constraint-based approach*. Stanford: CSLI Publications.
- Kim, Y-J., & Cho, S-Y. (2012). Tense and honorific interpretations in Korean gapping construction: A constraint and construction-based approach. In S. Müller (Ed.), *Proceedings of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pp. 388-408).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Koster, J. (1987). *Domains and dynasties*. Dordrecht: Foris.
- Koutsoudas, A. (1971). Gapping, conjunction reduction, and coordinate deletion. *Foundations of Language*, 7, 337-386.
- Lasnik, H. (1995). Verbal morphology: Syntactic structures meets the Minimalist Program. In H. Campos, & P. Kempchinsky. (Eds.), *Evolution and Revolution in Linguistic Theory* (pp. 251-276).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Lasnik, H. (1999). Pseudogapping puzzles. In S. Lappin, & E. Benmamoun (Eds.), *Fragments: Studies in ellipsis and gapping* (pp. 141-174).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H. (2005). VP coordination analysis of gapping constructions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5, 533-562.
- Maling, J. (1972). On Gapping and the order of constituents. *Linguistic Inquiry*, 3, 101-108.
- Neeleman, A., & Van de Koot, H. (2002). The configurational matrix. *Linguistic Inquiry*, 33, 529-574.
- Pollock, J-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365-424.
- Reinhart, T. (1991). Elliptic conjunctions-nonquantificational LF. In A. Kasher (Ed.), *The Chomskian turn* (pp. 360-384). Oxford: Blackwell.
- Rooryck, J. (1985). Gapping-zeugma in French and English: A non deletion analysis. *Linguistic Analysis*, 15, 187-229.
- Ross, J.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 Ross, J. (1970). Gapping and the order of constituents. In M. Bierwisch, & K. E. Heidolph (Eds.), *Progress in linguistics* (pp. 249-259). The Hague: Mouton.

- Ross, J. (1974). Excerpts from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In G. Harman (Ed.), *On Noam Chomsky: Critical essays* (pp. 165–200). Doubleday: Anchor Press.
- Yi, E. (1994). Adjunction, coordination, and their theoretical consequences. Unpublished manuscript. Cornell University.
- Yoon, J. (1993). Tense, coordination and clausal structure of English and Korean. *Proceedings of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2, 436–448.
- Yoon, J. (1994). The morphology–syntax connectio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22, 251–270.
- Yoon, J. (1997). Coordination (a)symmetries. *Proceedings of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7, 3–30.
- Williams, E. (1997). Blocking and anaphora. *Linguistic Inquiry*, 28, 577–628.

**YoungSik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oonchunhyang University

22 Soonchunhyang Street, Asan, Chungnam 31538

Korea

Phone: +82-41-530-1124

Email: youngsic@sch.ac.kr

Received on July 31,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6, 2019

Accepted on September 30, 2019





# An Alternative Account of English Consonant Cluster Adaptations in Bengali Dialects\*

Chin-Wan Chu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ung, Chin-Wan. (2019). An alternative account of English consonant cluster adaptations in Bengali dialect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3), 99–123. This study provides a constraint-based analysis of cluster adaptations occurring in Bengali dialects such as spoken Bengali, Dhaka, and Sylheti when English complex words are realized by Bengali speakers or borrowed into Bengali. In spoken Bengali, speakers only employ epenthetic strategy when they realize onset clusters of English. For the selection of vowels, the neutral vowel of English is generally inserted between consonants but the high front vowel is prothesized when a cluster is composed of /s/ plus a voiceless stop. In Dhaka dialect, coda clusters are fixed by either insertion or deletion. Unlike spoken Bengali, the inserted vowel between sonorant consonants is affected by a neighboring vowel. Deletion of an obstruent normally occurs when a cluster consists of a sonorant plus an obstruent but an obstruent survives if a sonorant is dental liquid /r/ in Dhaka. Onset cluster adaptations in Sylheti is similar to that of spoken Bengali but on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ialects is that an interconsonantly inserted vowel is affected by a following vowel in Sylheti while spoken Bengali still maintains the quality of a neutral vowe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consonant clusters, adaptations, insertion, deletion, repair strategy

## 1. Introduction

---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search Base Construction Fund Support Program” funded b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9. I am thankful to anonymous reviewers for their insightful comments. Any remaining errors are my own responsibility.

When a language borrows words from a foreign language, borrowed words are subject to be affected by a recipient language in every aspect of linguistics. One of the most prominent aspects in linguistic changes in borrowed words is observed in phonology (Hyman, 1970; Holden, 1976; Kawahara 2008, Kang, 2010, 2011). This is because source words are realized by speakers of recipient language whose phonological system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donor language. The differences in phonological elements in both languages are generally mediated by the speakers of recipient language. In addition to this, phonological modifications in borrowed words are subject to further minute changes if the recipient language has different dialects.

Considering this, the current study mainly focuses on the variant consonant cluster modification strategies employed by Bengali dialects when English words with consonant clusters are realized by Bengali speakers or borrowed into Bengali, having undergone adaptation processes. We discuss issu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and find out their problems. For the analysis, the issues to be dealt with in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hat is the norm that motivates consonant cluster modifications in Bengali even though Standard Colloquial Bengali marginally allows consonant clusters? Secondly, are onset and coda clusters repaired uniformly or are they differently modified? Thirdly, are there any strategic differences in Bengali dialects in changing consonant clusters in borrowed words from English? Fourthly, what are the emerging patterns in consonant cluster adaptations in Bengali dialects?

The study is constructed as follows. Section 2 presents the relevant data of English words borrowed into Bengali and a brief introduction of the language. Section 3 discusses previous studies and points out their problems. Section 4 presents an alternative analysis of English words borrowed into Bengali and it is followed by conclusion and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in section 5.

## 2. Data Presentation

Bengali is an Indo-Aryan language, which is mainly spoken in West Bengal and Bangladesh (Dasgupta, 2003). Bengali words mainly come from Sanskrit

(Thompson, 2012) which a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is dubbed *tatsame* which is used in Bengala and it has not undergone any modification from Sanskrit. Such words account for about half of the Bengali words. The second group is called *tadbhava* and it is composed of Sanskrit words, which have undergone some changes and have phonologically been modified to conform to Bengali (Kar, 2009; cf. Kang, 2010). On the other hand, the rest of the Bengali lexicon is composed of native Bengali (*deshi*) and foreign words (*bidishi*). Thus, English-borrowed words along with other foreign words such as Hindi, Arabic, Persian, Turkish, and Portuguese belong to *bidishi* stratum in Bengali lexicon.

Concerning phonological information, we first present its vowels and consonants. Bengali has seven vowels as presented in (1).

(1) Vowels (Dimock, Bhattachrji & Chatterjee, 1976; Thompson, 2012)

	front	mid	back
high	i		u
mid	e		o
lower-mid	æ		ɔ
low		a	

The consonants of Bengali are represented in (2) where we follow Dasgupta and Thompson but modify some terms and symbols in representing consonants.

(2) Consonants (Dasgupta, 2003: 358–359; Thompson, 2012: 389)

	labial	dent.	retrof.	pal.	Vel.	Gl.
stops	p, ph	t, th	t̪, t̪h	c, ch	k	
	b, bh	d, dh	ɖ, ɖh	j, jh	g, gh	
nas.	m	n	ɳ	ɲ	ŋ	
liq.		r	ɽ			
lat. liq.		l				
fri.		s	ʃ	f		h

With respect to the syllable structure, Standard Colloquial Bengali marginally allows consonant clusters while native Bengali (*deshi*) does not allow clusters in onset and coda positions.

Based on the simple background information of Bengali, we present some of the English examples that are realized in Bengali. The English examples are divided into three types of Bengali-English words. The first type consists of English words that are spoken by Bengali speakers. The second type is composed of English words that are borrowed into Dhaka dialect of Bengali and such words undergo sound adaptations. The final type represents English words that are borrowed into Sylheti dialect and undergo sound modification processes.

We first present the examples of English words that are realized by Bengali speakers. The examples are from Karim (2010: 28). In the examples, SC. Bengali stands for Standard Colloquial Bengali and S. Bengali for Spoken Bengali realized by Bengali speakers. In S. Bengali, English words with onset clusters seem to undergo modifications while coda clusters are realized as they are in the output because coda clusters are marginally allowed in SC. Bengali.

(3) A. Onset clusters consisting of an obstruent plus a liquid

English	SC. Bengali	S. Bengali	
a. frʌnt	frʌnt	fərʌnt	'front'
b. flæt	flæt	fəlæt	'flat'
c. krim	krim	kərim	'cream'
d. grup	grup	gərup	'group'
e. flɔr	flɔr	fəlɔr	'floor'

B. Clusters consisting of /s/+ voiceless stops

English	SC. Bengali	S. Bengali	
a. speɪfəl	speɪfəl	ispeɪfəl	'special'
b. speɪn	speɪn	ispeɪn	'Spain'
c. steɪfən	steɪfən	isteɪfən	'station'
d. sku:l	sku:l	isku:l	'school'

As presented in (3A), when an onset cluster consists of an obstruent plus a liquid, it is modified by inserting a schwa between the two consonants. This indicates that S. Bengali does not employ deletion strategy to fix an onset cluster of English. Concerning the quality of the inserted vowel, the speakers of Bengali select schwa as an epenthetic vowel to modify the undesirable

English onset clusters.

Compared to (3A), the speakers utilize a different epenthetic position and different vowel in (3B). When an onset cluster is composed of a dental fricative /s/ and a voiceless stop, the Bengali speakers select /i/ as the epenthetic vowel and locate it before the onset cluster. The different quality and location of an epenthetic vowel are interesting in that the speakers of Bengali may regard onset clusters (3A) and (3B) as different so that they select non-identical epenthetic vowels and positions of insertion. Thus, we may attribute such selectional differences found in the Bengali speakers to the composition of the clusters. The possi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of cluster is the sonority sequencing: it rises from C<sub>1</sub> to C<sub>2</sub> in (3A) and it falls in (3B).

On the other hand, medial consonant clusters are allowed in Bengali because they do not form a tautosyllabic cluster since they belong to hetero-syllables as shown by the examples in (4). We put syllable marks for the relevant medial clusters in the following data.

(4) Word-medial clusters

English	SC. Bengali	S. Bengali	
a. əstɒnɪʃ	əs.tɒɪʃ	əs.tɒɪʃ	‘astonish’
b. kəntɪnyu	kən.tɪnyu	kən.tɪnyu	‘continue’
c. mʌndər	mʌn.dər	mʌn.dər	‘Monday’
d. eɪprəl	eɪp.rəl	eɪp.rəl	‘April’

As in (4), word medial clusters that show rising or falling sonority between them are not repaired by the Bengali speakers. This indicates that the target of cluster modification in English words in S. Bengali is limited to tauto-syllabic clusters.

Next, we present cluster modifications in Dhaka, a Bengali dialect, where coda clusters are fixed by either insertion or deletion. The examples are also from Karim (2011: 25–26) and they are presented in (5) and (6).

(5) Insertion in liquid+nasal sequence

English	SC. Bengali	Dhaka	
a. hɔrn	hɔrn	hɔrɔn	‘horn’

b. fɔrm	p <sup>h</sup> ɔrm	p <sup>h</sup> ɔrɔm	'form'
c. fɪlm	fɪlm	fɪlɪm	'film'

When a coda cluster is constituted with a liquid plus a nasal, a vowel is epenthesized between the sonorants. This insertion strategy is similar to that of fixing onset clusters observed in S. Bengali. However, unlike S. Bengali where either a schwa or /i/ is inserted, the inter-consonantly inserted vowel in Dhaka is affected by a vowel in the preceding syllable. Thus, the quality of epenthetic vowel in Dhaka seems to be highly controlled by a neighboring vowel.

In addition to this, deletion of a consonant is also employed in Dhaka. There are three of such types. In the first type, a voiceless stop is deleted in homorganic nasal-stop coda clusters. In the second type, a dental liquid /r/ is deleted when it is followed by an obstruent. In the final type, an obstruent is deleted when it is preceded by dental liquid /l/ as shown by the following examples.

(6) A. Deletion in nasal+obstruent clusters

English	SC. Bengali	Dhaka	
a. bæŋk	baŋk	baŋ	'bank'
b. paʊnd	paʊnd	paun	'pound'
c. pænt	paŋt	pan	'pant'
d. læmp	lamp	lam	'lamp'

B. Deletion in liquid /r/+obstruent clusters

English	SC. Bengali	Dhaka	
a. park	park	pak	'park'
b. tɔɹtʃ	tɔrc	tɔc	'torch'
c. nərv	narb <sup>h</sup>	nab <sup>h</sup>	'nerve'
d. bɔrd	bord	bod	'board'
e. ʃərt	sart	saɾ	'shirt'

C. Deletion in liquid /l/+obstruent clusters

English	SC. Bengali	Dhaka	
a. belt	belɾ	bel	'belt'
b. gold	gold	gol	'gold'

The common factor of segmental composition in (6) is that the clusters are composed of a sonorant plus an obstruent. Considering each element in the coda clusters and their realizations in (6), it can be assumed that Dhaka dialect prefers a sonorant coda except for the dental liquid /r/, which reflects non-rhotic feature of British English.

The final set of examples is from Sylheti dialect (Goswami, 2013), which is spoken in the Sylheti district of present Bangladesh. Sylheti dialect shows both similar and different onset cluster modification strategies from those in S. Bengali as shown by the following examples.

(7) Onset clusters consisting of dental /s/ + voiceless stops

English	SC. Bengali	Sylheti	
a. sku:l	sku:l	iskul	'school'
b. steɪʃən	steɪʃən	istɪʃən	'station'
c. spi:d	spi:d	ispid	'speed'
d. sti:l	sti:l	istil	'steel'

When an onset cluster is composed of /s/+voiceless stops, the high front vowel /i/ is inserted before such onset clusters just like what we have observed in S. Bengali. However, unlike S. Bengali where the schwa is inserted between consonants with a rising sonority, the inserted vowel is affected by the vowel in the following syllable. This type of vowel influence is different from S. Bengali while it is similar to the inserted vowel in Dhaka dialect. The inserted vowel between consonants with rising sonority is represented by the examples in (8).

(8) A. /i/ insertion before /i/

English	SC. Bengali	Sylheti	
a. kri:m	kri:m	kirim	'cream'
b. klik	klik	kilik	'click'
c. klip	klip <sup>h</sup>	kilip <sup>h</sup>	'clip'
d. slip	slip <sup>h</sup>	silip <sup>h</sup>	'slip'

B. /e/ insertion before /e/

English	SC. Bengali	Sylheti	
a. dreɪn	dreɪn	dereɪn	'drain'
b. treɪn	treɪn	tereɪn	'train'

c. dres	ɔres	ɔeres	‘dress’
---------	------	-------	---------

C. /o/ insertion before /a/

English	SC. Bengali	Sylheti	
a. gla:s	gla:s	gollas	‘glass’

As presented in (8A–B), the epenthetic vowel seems to be influenced by a vowel in the following syllable, realizing as a vowel with the same tongue position and height feature specifications of the following lexical vowel. Concerning the example in (8C), it is not easy to make a generalization on the vowel change now but there is a certain contextual influence of lexical vowels in Sylheti just like as we have seen in Dhaka.

So far we have presented three sets of English complex words where each dialect shows minute differences in mending onset/coda clusters of English words. What is interesting in the data sets is that when English words with complex onset and coda clusters are realized by Bengali speakers or adapted into Bengali, clusters seem to abide by the syllable structure of native Bengali rather than SC. Bengali. However, the quality of an inserted vowel is either contextually colored or the English neutral vowel is selected in S. Bengali (cf. Uffmann, 2006). Considering background information of Bengali, we present former studies on the modification of the English complex words in Bengali in the next section.

### 3. Previous Studies

In this section, we review former studies concerning cluster modification of the English words in Bengali and discuss their possible problems. The first former study deals with the cluster realizations of English complex words by Bengali speakers. Framed in Optimality Theory (Prince and Smolensky, 1993, 2004) and Correspondence Theory (McCarthy and Prince, 1995), Karim (2010) provides an analysis of onset cluster of English words realized by the Bengali speakers. Karim points out that the cluster modification strategy varies depending on the composition of cluster constituents as the examples presented



in (3). For the analysis, Karim employs the constraints given in (9) and their ranking in (10).

- (9) a. \*CC<sub>ONS</sub>: No consonant clusters in the onset.
- b. Max-IO: Input segments must have output correspondents (No deletion).
- c. Dep-IO: No epenthesis.
- d. Contiguity-IO: No medial epenthesis or deletion of segment.
- e. Syllable Contact: Sonority must not rise across a syllable boundary (Murray & Venneman, 1983; Gouskova, 2004).

(10) \*CC<sub>ONS</sub> » Syllable Contact, Max-IO » Contiguity-IO » Dep-IO

As reflected in (9) and (10), the motivation of cluster modification in Bengali is implemented by \*CC<sub>ONS</sub>. This undominated constraint indicates that the speakers of Bengali follow the syllable structure of native Bengali, which does not allow complex syllable margins. However, Bengali speakers follows SC. Bengali in the realization of coda clusters. Concerning the landing site of an epenthetic vowel, it hinges on the sonority relation between the consonants. Thus, if sonority rises from C<sub>1</sub> to C<sub>2</sub>, a vowel is inserted between the consonants.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falling sonority between C<sub>1</sub> and C<sub>2</sub> as shown by the examples in (3B), a vowel is epenthesized before the first consonant. This sonority relation between the consonants is dictated in Syllable Contact. Syllable Contact crucially dominates Contiguity-IO since insertion of a vowel between consonants should be allowed to prevent rising sonority over a syllable boundary, which leads to a violation of Contiguity-IO. The lowest-ranking Dep-IO allows a vowel insertion. The following tables show how the given constraints and their ranking can explain complex English words in Bengali.

(11) i. fr<sub>ANT</sub> → fə<sub>r</sub>ʌnt ‘front’    ii. spɛɪʃəl → ispɛɪʃəl ‘special’

i. fr <sub>ANT</sub>	*CC <sub>ONS</sub>	SylCon	Max	Contig	Dep
ɛʃ fə <sub>r</sub> ʌnt				*	*
əf <sub>r</sub> ʌnt		*!			*
fr <sub>ANT</sub>	*!				
f <sub>ANT</sub>			*!	*	
ii. spɛɪʃəl					

is.per.fəl					*
si.per.fəl				*!	*
sper.fəl	*!				
per.fəl			*!		

As represented in (11i) and (11ii), cluster modifications of English complex words in S. Bengali can be explained by the given ranking. However, the analysis is unable to account for the selection of the epenthetic vowel quality. That is, the account does not provide us with a reason why we have two different epenthetic vowels such as /ə/ and /i/ in S. Bengali.

Another problem is that the proposed account should be able to explain the lexical items that have medial clusters. However, the current constraint ranking selects an incorrect output as optimal when applied to the example *April* in (4d).

(12) eɪprəl → eɪprəl ‘April’

eɪprəl	*CC <sub>ONS</sub>	SylCon	Max	Contig	Dep
eɪ.prəl	*!				
is.eɪp.rəl		*!			
is.eɪ.pər.əl				*	*
eɪ.pəl			*!	*	

The second former study also comes from Karim (2011) who deals with the modification of coda clusters in Dhaka. Unlike the S. Bengali, Dhaka dialect does not allow coda clusters. In terms of fixing coda clusters of complex English words, Dhaka dialect employs both insertion and deletion strategies, which are different from what we have observed in the realization of onset clusters by Bengali speakers. The relevant Dhaka examples are given in (6) and Karim (2011: 27–28) proposes the following constraints to account for the data.

- (13) a. \*ComplexCoda: Codas are simple.
- b. Anchor-R: Any segment at the right periphery of the output has a correspondent at the right periphery of the input.
- c. Max-IO: Input segments must have output correspondents.
- d. Dep-IO: Output segments must have input correspondents.

- e. Contig C–Stop: An adjacent consonant stop sequence standing in correspondence in the input forms a contiguous string, as does the corresponding portion in the output.
- f. Max–C/V: Do not delete a consonant that is adjacent to a vowel.
- g. Contiguity–IO: The portion of  $S_1$  standing in correspondence forms a contiguous string, as does correspondence portion of  $S_2$ .

Some of the constraints are general but others are somewhat specified so we discuss several specific constraints. Contig C–stop focuses only on the sequence of stop consonants and it only applies if input consonant plus stop sequence and output consonant plus stop sequence stand in correspondence. Max–C/V calls for faithful realization of consonant occurring right after a vowel,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proposed by Côté (2004) who argues that a post–vocalic consonant is affected by vowel transition so that it is perceptually stronger than a consonant occurring farther away from the vowel. Thus, in a sequence of post–vocalic consonants ( $VC_1C_2$ ),  $C_1$  has a better chance of realization in the output than  $C_2$ .

With respect to ranking of the constraints, Karim proposes two different rankings to explain consonant deletion and vowel insertion. The constraint rankings in (14a) and (14b) represent the ranking for insertion and deletion, respectively.

- (14) a. \*ComplexCoda, Max–C/V, Max–IO  $\gg$  Contig–IO, Anchor–R, Dep–IO
- b. \*ComplexCoda, Max–C/V, Contig C–stop  $\gg$  Max–IO, Anchor–R, Dep–IO

The following constraint table illustrates how the constraint (14a) explains insertion of a vowel between segments in coda clusters whose examples are presented in (5). We slightly modified the evaluation of each constraint.

(15)  $h\text{ɔ}r\text{n} \rightarrow h\text{ɔ}r\text{ɔ}n$  ‘horn’

$h\text{ɔ}r\text{n}$	*CC–Coda	Max–C/V	Max	Contig	Anch–R	Dep
$h\text{ɔ}r\text{n}$	*!					
$h\text{ɔ}n$		*!	*!	*		
$h\text{ɔ}r$			*!		*	
$h\text{ɔ}r\text{ɔ}n$				*		*

As illustrated in (15), when an English word has a complex coda, such a coda cluster is repaired by inserting a vowel between consonants if two consonants are sonorants. Concerning the deletion of one consonant in coda clusters, the proposed constraint ranking in (14b) can explain such examples in Dhaka.

(16) i. pant → pan ‘pant’    ii. gold → gol ‘gold’

i. pant	*CC-Coda	Max-C/V	ContigC-stop	Max	Anch-R	Dep
pant	*!					
pat		*!		*		
<sup>ɪ</sup> pan				*	*	
pa.nat			*!			*
ii. gold						
gold	*!					
god		*!		*		
<sup>ɪ</sup> gol				*	*	
go.lod			*!			*

In (16i) and (16ii), \*Comp-Coda, Max-C/V, and Contig C-Stop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selection of optimal forms. Thus, when a coda cluster consisting of a sonorant plus an obstruent, the final obstruent is not realized in Dhaka. The proposed constraint rankings in (14) seem to account for the coda cluster modification examples of English in Dhaka. However, there are problems in the analysis. The first problem is that the proposed ranking for deletion strategy to repair coda clusters cannot explain the examples with coda clusters consisting of /r/+stops as presented in (6B). This is shown by the following constraint table.

(17) park → pak ‘park’

park	*CC-Coda	Max-C/V	ContigC-stop	Max	Anchor-R	Dep
park	*!					
<sup>ə</sup> par				*	*	
<sup>ɪ</sup> pak		*!		*		
pa.rak			*!			*

The given constraint ranking selects the second candidate as optimal. However the actual optimal form is the third candidate as represented by the constraint

evaluation. Thus, the given constraint selects the incorrect third output form as optimal. Accordingly, the constraint in (14b) cannot account for the examples given in (6B).

The second problem is that the constraint ranking in (14b) is unable to explain examples where an epenthetic vowel occurs after a coda cluster because the given constraint selects two optimal forms as illustrated in (18). Thus, we have to reconsider relevant constraints for the analysis.

(18) gold → gol ‘gold’

gold	*CC-Coda	Max-C/V	ContigC-stop	Max	Anch-R	Dep
gold	*!					
god		*!		*		
gol				*	*	
go.lod			*!			*
gol.do					*	*

The third problem of the account is that the quality of an inserted vowel should be mentioned because there seems to be a regular pattern in the epenthetic vowel. If an epenthetic vowel is not [ɔ] but other vowels in (15) such as the [i] in [hɔrin] or the [u] in [hɔrun], how the given constraints will eliminate candidates with other vowels than [ɔ]. That is, there should a constraint which should control the quality of an epenthetic vowel in Dhaka. The final problem is that there should be one constraint ranking for Dhaka because we are dealing with the modifications of coda clusters in Dhaka whether a repair strategy is insertion or deletion.

The final previous study comes from Goswami (2013) who provides an account of Sylheti onset cluster of Bengali dialect. Goswami proposes the following constraints in (19) and their rankings in (20).

- (19) a. \*Complex<sup>ONS</sup>: Onsets are simple.  
 b. Dep-IO: Output segments must have input correspondents.  
 c. Max-IO: Input segments must have output correspondents.  
 d. Onset: Syllables must have onsets.  
 e. Contiguity: Elements adjacent in the input must be adjacent in the output.  
 f. Syllable Contact: Sonority must not rise across a syllable boundary.

(20) a. Ranking for sibilant plus stop onsets

\*Complex<sup>ONS</sup>, Syllable Contact, Max-IO, Contiguity ≫ Onset ≫ Dep-IO

b. Ranking for obstruent plus sonorant onsets

\*Complex<sup>ONS</sup>, Syllable Contact, Max-IO, Onset ≫ Contiguity ≫ Dep-IO

The constraint ranking in (20a) can explain the examples in (7) while the one in (20b) can apply to the examples in (8). The two constraint rankings are used in the following tables. The example in (21ii) is an English example, which we modify slightly from Goswami (2013).

(21) i. steɪfən → ɪstɪfən ‘station’    ii. dres → ɖeres ‘dress’

i. steɪfən	*CC <sup>ONS</sup>	SylCon	Max	Contig	Onset	Dep
ɪs.tɪ.fən					*	*
sɪ.tɪ.fən				*!		*
steɪ.fən	*!					
teɪ.fən			*!			
ii. dres	*CC <sup>ONS</sup>	SylCon	Max	Onset	Contig	Dep
ɖeres					*	*
ed.res		*!		*!		*
ɖres	*!					
res			*!			

As shown in (21i) and (21ii), the proposed constraint rankings seem to explain English onset cluster modification in Sylheti. However, the analysis should clarify the quality of an epenthetic vowel and how a neighboring vowel affects an epenthetic vowel. In addition to this, the analysis should provide an uniform constraint ranking for Sylheti.

So far we have briefly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cluster repair strategies adopted by Bengali dialects. We found out that each study provides its own theoretical analysis but there are some points that should be ironed out in a more detailed analysis. Thus, in the next section, we provide an alternative analysis of each dialect.

## 4. An Alternative Analysis

In this section, we provide a constraint-based account just like previous researchers but the analysis in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them in that we provide one constraint ranking for each Bengali dialect. We also compare how each dialect has minute difference in repairing English words with clusters when they are realized by Bengali speakers or borrowed into Bengali dialects. For S. Bengali whose examples are presented in (3) and (4), we propose the following constraints. We adopt some of the constraints from the previous studies.

- (22) a. \*Complex-Onset: Onsets are simple.  
 b. Max-IO: Every input segment has its correspondent in the output.  
 c. Anchor-Left: Input and output have identical left element.  
 d. Contiguity-IO: No medial epenthesis or deletion of a segment.  
 e. Syllable Contact: Sonority of consonant does not rise across the syllable boundary.  
 f. High Front Vowel-s+stop:  
     High front vowel /i/ is preferred before a sequence of /s/+stop.  
 g. Dep-Vowel: Epenthesis of a vowel in the output is prohibited.

Since English onset clusters are repaired only by insertion of a vowel in S. Bengali, \*Complex-Onset and Max-IO must dominate Dep-IO. At the same time, the high-ranking constraints are ranked over Contiguity-IO and Anchor-Left since the former is to be violated if a vowel is inserted between two consonants and the latter violated if the high front vowel is prothesized. High Front Vowel-s+stop constraint is motivated to explain the insertion of /i/ before s+stop sequences. The preference of Coronals plus high vowels is also presented in explaining Lenakel vowel epenthesis where a general epenthetic vowel is [ə] but a high vowel [i] is inserted after coronals such as in /t-n-ak-ol/ → [ti.na.kəl] ‘you (sg.) will do it’ (Kager, 1999: 126). According to Selkirk (1981), Itô (1986), and Lowenstamm and Kaye (1986), an epenthetic segment tend to be ‘minimally marked’ and it is subject to be affected by their contexts. It has also been argued that [i], [i̠], and [ə] are frequently chosen as insertion vowels. Based on this, we propose High Front Vowel-s+stop which specifies that the high front vowel /i/ is preferred before the s+stop sequences in S.

Bengali.

Concerning the site of an epenthetic vowel, it is determined by the sonority relation between onset clusters as argued for by Karim (2010). So a vowel is inserted between onset consonants if there is rising sonority while a vowel is inserted before an onset cluster if there no rising sonority between them. The landing site of an epenthetic vowel is secured by ranking Syllable Contact over Dep-IO for inter-consonantal insertion and prothesis by ranking High Front Vowel-s+stop over Anchor-Left and Dep-IO.

In addition to this, we should consider medial consonant sequences, which are not the target of repair, and the proposed account should explain such examples as well. Thus, a constraint such as Syllable Contact is not highly ranked in the analysis because there is an example where the constraint is violated as in [ɛp.rəl] ‘April.’ Thus, Syllable Contact is a dominant constraint, which is ranked equally with Contiguity in the analysis.

(23) i. fr<sub>ANT</sub> → fə<sub>r</sub>fr<sub>ANT</sub> ‘front’    ii. sp<sub>ei</sub>n → is<sub>pe</sub>n ‘Spain’

i. fr <sub>ANT</sub>	*CC-Ons	Max	HF	Contig	SylCon	Anch-L	Dep
fr <sub>ANT</sub>	*!						
ɛ <sub>f</sub> fr <sub>ANT</sub>				*			*
ə <sub>f</sub> fr <sub>ANT</sub>					*	*!	*
f <sub>Δ</sub> nt		*!		*			
ii. sp <sub>ei</sub> n							
sp <sub>ei</sub> n	*!						
sə <sub>.</sub> pe <sub>i</sub> n				*!			*
əs <sub>.</sub> pe <sub>i</sub> n			*!			*	*
ɛ <sub>s</sub> is <sub>.</sub> pe <sub>i</sub> n						*	*
pe <sub>i</sub> n		*!				*	

As shown in (23i) the given constraint selects the second form as optimal where a vowel is inserted between consonants. On the other hand, candidates with prothesis and deletion of a segment are eliminated by violating Anchor-Left and Max-IO, respectively. The optimal form in (23ii) shows that the quality of epenthetic vowel is regulated by the language specific High Front Vowel-s+stop, which edges out the third candidate. The second candidate is suboptimal due to its violation of Contiguity. The ranking in (23) can explain all the examples in (3). Additionally, this constraint ranking also



can be applied to medial sequences of consonants as given in (4).

(24) eɪprəl → eɪprəl ‘April’

eɪprəl	*CC-Ons	Max	HF	Contig	SylCon	Anch-L	Dep
eɪ.prəl	*!						
ɛɪp.rəl					*		
eɪ.pə.rəl				*			*!
eɪ.pəl		*!		*			

Next we provide an analysis of the Dhaka dialect of Bengali where coda clusters of English words are repaired. Dhaka, unlike S. Bengali, does not allow coda clusters and their solution to fix the coda clusters are multi-lateral. This is because both insertion and deletion strategies are employed in the language. For the analysis of coda cluster repair methods in Dhaka, we use the following constraints.

- (25) a. \*Complex-Coda: Codas are simple.  
 b. \*r]<sub>wd</sub>: Word final [r] is not allowed.  
 c. Non-final Vowel: Words do not end in a vowel.  
 d. Max-Son(-cont): Input sonorants with [-continuant] are faithfully realized in the output.  
 e. Max-Son(+cont): Input sonorants with [+continuant] are faithfully realized in the output.  
 f. Son-Coda: Sonorant codas are preferred.  
 g. Max-SonSeq: A sequence of sonorants has its correspondents in the output.  
 h. Dep-vowel: Output vowels have their correspondents in the input.

For the case where a vowel is inserted between two sonorants as given in (5), Non-final Vowel is ranked high along with \*Complex-Coda and Max-SonSeq and they dominate Dep-vowel. This is shown by the following constraint table.

(26) hɔrn → hɔrɔn ‘horn’

hɔrn	*CC-Coda	NFV	Max-SS	Dep
hɔrn	*!			

hɔr.nɔ		*!		*
ɛʰhɔ.rɔn				*
hɔr			*!	
hɔn			*!	

When codas are composed of two sonorants, deletion strategy is not adopted in Dhaka but vowel insertion is employed to separate the coda cluster. It is triggered by \*Complex-Coda and the site of an epenthetic vowel is secured by undominated Non-final Vowel over Dep-V. Deletion of sonorant to prevent an output coda cluster is barred by Max-SonSeq in (26).

Unlike sonorant coda clusters, when coda clusters are composed of a sonorant plus an obstruent, deletion of an obstruent is generally selected. However, when a cluster begins with /r/, an obstruent survives in the output instead. In order to make a difference between /r/ and the other sonorants such as /l, m, n, ŋ/, we propose Max-Son(+cont) and Max-Son(-con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groups of sonorants is based on Roca & Johnson (1999:110) and Halle & Clements (1983: 33) who argue that the lateral /l/ is [-continuant] so that the second group is characterized as having [-continuant]. By ranking Max-Son(-cont) over Max-Son(+cont), we can explain the deletion of /r/ before an obstruent. As to the prohibition of deleting obstruent when it is preceded by /r/, the markedness constraint \*r]<sub>wd</sub> is ranked very high in the analysis.

To explain the realization of sonorants with the [-cont] feature specification when followed by obstruents, Son-Coda is ranked high, playing a role in the analysis but it is ranked lower than \*r]<sub>wd</sub> in the account. The following constraint table illustrates the deletion of a post-sonorant obstruent.

(27) pant → pan ‘pant’

pant	*CC-Coda	NFV	Son-Coda	Max-Son(-cont)	Dep
pant	*!		*		
pa.nat			*!		*
pan.ta		*!			*
ɛʰpan					
pat			*!	*	

The deletion of [r] before an obstruent in coda is demonstrated by the table

in (28) where ranking Dep-Vowel over Max-Son(+cont) plays an important role. If ranking them were reversed, the second candidate would be optimal.

(28) park → pak ‘park’

park	*CC-Coda	*r] <sub>wd</sub>	NFV	Son-Coda	Dep	Max-Son(+cont)
park	*!			*		
pa.rak				*	*!	
par.ka			*!		*	
par		*!				
পাক				*		*

As presented in (26), (27), and (28), the given ranking for insertion and deletion strategies employed in Dhaka can explain the modification of complex coda clusters of English words. One thing we should note in this account is that how to explain the selection of an epenthetic vowel in Dhaka. It seems that an epenthetic vowel is influenced by the vowel in the preceding syllable in /hɔrn/ → [hɔrn̩] ‘horn’.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following constraint.

(29) a. Agree-Vowel(B/H)

Vowels in adjacent syllables agree in their back and height feature specification.

b. Ident-Vowel: Input and output vowels are identical in their back and height feature specification.

Contextual coloring of an inserted vowel is explained by ranking Ident-Vowel over Agree-Vowel(B/H) as shown in (30). We only include candidates that have to do with the selection of an epenthetic vowel.

(30) film → filim ‘film’

film	*CC-Coda	Id-V	Agr-V	Dep
film	*!			
ফি.লিম				*
ফি.লম			*!	*
ফে.লেম		*!		*

The constraint ranking that can apply to all Dhaka examples is provided in (31).

- (31) \*Complex-Coda, \*r]<sub>wd</sub>, Non-final Vowel, Max-SS » Son-Coda,  
 Ident-Vowel, » Agree-Vowel(B/H), Max-Son(-cont) » Dep-V »  
 Max-Son(+cont)

The final alternative account we provide is about Sylheti, which only employs insertion strategy to repair onset clusters. This is very similar to S. Bengali in many aspects but Sylheti is different from S. Bengali in that its epenthetic vowel, except for prothesis, is contextually affected by a vowel in the following syllable. In this respect, the selection of epenthetic vowel is similar to that of Dhaka. So we adopt some of the constraints used for S. Bengali and Dhaka.

- (32) a. \*Complex-Onset: Onsets are simple.  
 b. Max-IO: Every input segment has its correspondent in the output.  
 c. High Front Vowel-s+stop: High front vowel /i/ is preferred before a sequence of /s/+stop.  
 d. Contiguity: No medial epenthesis or deletion of a segment.  
 e. Syllable Contact: Sonority of consonant does not rise across the syllable boundary.  
 f. Anchor-Left: Input and output have identical left element.  
 g. Dep-Vowel: Epenthesis of a vowel in the output is prohibited.  
 h. Agree-Vowel(B/H): Vowels in adjacent syllable agree in their back and height feature specification.  
 i. Ident-Vowel: Input and output vowels are identical in their back and height feature specification.

Since Sylheti only utilizes epenthetic strategy, Max-IO is undominated along with the trigger of cluster repair, \*Complex-Onset, and the contextually markedness constraint High Front Vowel-s+stop. Like S. Bengali, we equally rank Syllable Contact and Contiguity but both of them are ranked lower than the undominated constraints. Anchor-Left and Agree-Vowel(B/H) are ranked equally but they are ranked lower than Syllable Contact. On the other hand,

Ident-Vowel dominates Agree-Vowel (B/H) which enables an input vowel to keep its back and height features. Since Ident-Vowel and Syllable Contact are not in conflict, we rank them equally. The following constraint table illustrates how constraints and their ranking account for onset clusters in Sylheti.

(33) spi:d → ispid ‘speed’

spi:d	*CC-Ons	Max	HF	Contig	Anch-L	Agr-V
spid	*!					
ispid					*	
ospid			*!		*	**
sipid				*!		
sid		*!		*		

When onset cluster begins with /s/ plus a stop, the only landing site of an epenthetic vowel is before the cluster and the quality of a epenthetic vowel is specified by High Front Vowel-s+stop. All the other options adopted by final three candidates are suppressed by HF, Contiguity, and Max-IO constraints, respectively.

For the examples consisting of an obstruent and a sonorant, an epenthetic vowel is placed interconsonantly since prothesis would result in rising sonority between two consonants. At the same time, an epenthetic vowel is affected by a vowel in the following syllable, which is explained by ranking Ident-Vowel over Agree-Vowel(B/H).

(34) i. klik → kilik ‘click’    ii. dres → dres ‘dress’

i. klik	*CC-Ons	Contig	SylCon	Id-V	Anch-L	Agr-V	Dep-V
klik	*!						
iklik			*		*!		*
ku.luk		*		*!			*
ku.lik		*				*!	*
ki.lik		*					*
ii. dres							
dres	*!						
ed.res			*		*!		*
do.res		*				*!	*
de.res		*					*

As illustrated in (34), the quality of an epenthetic vowel is determ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Id-V and Agr-V. Concerning the position of the epenthetic vowel, it is led by ranking SylCon over Anch-L in the analysis. The combined constraint ranking for the Sylheti dialect of Bengali is presented in (35).

- (35) \*Complex-Onset, Max-IO, High Front Vowel-s+stop » Contiguity,  
Syllable Contact, Ident-Vowel » Anchor-Left, Agree-Vowel(B/H) »  
Dep-Vowel

So far we have presented three cases of English complex-word realizations in S. Bengali and clusters adaptation in Dhaka and Sylheti. They show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ut a common underlying premise all three cases show is that their norm in modifying clusters of English words is based on the syllable structure of native Bengali, which is CVC. In what follows we briefly summarize the study and discuss its implications for phonology.

## 5. Conclusion and 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d a constraint based analysis which explains how complex English words are realized and adapted in Bengali dialects. In S. Bengali, Bengali speakers adopt a vowel insertion strategy to fix onset clusters of English words based on the simple syllable structure of native Bengali. The epenthetic vowel is generally schwa while the high front vowel is selected before /s/+obstruent stop sequences. An interesting aspect of S. Bengali is that the inserted schwa is not subject to be affected by a neighboring vowel. Thus, Bengali speakers fix onset clusters based on their native Bengali syllable structure while they still utilize the least marked vowel of English as an epenthetic segment.

In the Dhaka dialect of Bengali where coda clusters are mended to conform to the simple syllable structure of native Bengali, both segment deletion and insertion strategies are employed. Deletion of a consonant occurs

only with a sonorant plus an obstruent sequence while epenthesis applies to two sonorant sequences. Dhaka is different from S. Bengali in utilizing deletion strategy and an interconsonantal epenthetic vowel is affected by the preceding vowel.

Sylheti, a dialect of Bengali, also adopts only insertion strategy to fix onset clusters like S. Bengali. However, Sylheti deviates from S. Bengali in that its epenthetic vowel is influenced by a vowel in the following syllable in its back and height features. Thus, being influenced by a neighboring lexical vowel of an epenthetic vowel is very much like that of Dhaka even though each dialect focuses only on different sub-syllabic elements such as onset and coda.

From the study, we can draw several implications for phonology. First, asymmetrical strategies are employed in onset and coda clusters. In onset clusters, only epenthetic strategy is used while both insertion and deletion strategies are used in coda clusters. Second,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principles of cluster repair depend on the syllable structure of native Bengali in either English word realizations or adaptation of complex English words. Third, there are different degrees of repair in cluster realizations by Bengali speakers and English words borrowing into Bengali (cf. Kang 2010). Fourth, syllable contact is not active in SC. Bengali while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the position of an epenthetic vowel, which is newly emerged in the process of realizations and adaptation of English words into Bengali. This is because syllable contact is not prominent in both English and Bengali.

## References

- Côté, M.-H. (2004).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in Quebec French. *Probus*, 16, 151–201.
- Dascupta, P. (2003). Bangala. In G. Cardon & D. Jain (Eds.), *The Indo-Aryan languages* (pp. 386–428). London: Routledge.
- Dimock, E, Bhattacharji, S., & Chatterjee, S. (1976). *Introduction to Bengali: Part 1*, New Delhi, India: Manohar.
- Gouskova, M. (2004). Relational hierarchies in optimality theory: The case of

- syllable contact. *Phonology*, 21, 201–250.
- Goswami, A. (2013). Simplification of CC sequence of loan words in Sylheti Bangala. *Language in India*, 13, 182–192.
- Halle, M. & Clements, G. N. (1983). *Problem book in phonology*. Cambridge, MA: MIT Press.
- Holden, K. (1976). Assimilation of borrowings and phonological productivity. *Language*, 52, 131–147.
- Hyman, L. M. (1970). The role of borrowing in the justification of phonological grammars.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1, 1–48.
- Itô, J. (1986). *Syllable theory in prosodic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Kager, R. (1999). *Optimality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g, Y.-J. (2010). Tutorial overview: Suprasegmental adaptation in loanwords. *Lingua*, 120, 2295–2310.
- Kang, Y.-J. (2011). Loanword phonology. In M. van Oostendorp, C. J. Ewen, E. Hume, & K. Rice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phonology Vol. IV* (pp. 2259–2282).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Ltd.
- Kar, S. (2009). *The syllable structure of Bangla in optimality theory and its application to the analysis of verbal inflectional paradigms in distributed morph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ät Tübingen, Tübingen, Germany.
- Karim, K. (2010). Vowel epenthesis in Bengali: An optimality theory analysis. *Working Papers of the Linguistic Circle of the University of Victoria*, 20, 26–36.
- Karim, K. (2011). An optimality theoretic (OT) account of word-final vowel epenthesis and deletion in the incorporation of loanwords into the Dhaka dialect of Bangla. *Working Papers of the Linguistic Circle of the University of Victoria*, 21, 22–33.
- Kawahara, S. (2008). Phonetic naturalness and unnaturalness in Japanese loanword phonology.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7, 317–330.
- Lowenstamm, J., & Kaye, J. (1986). Compensatory lengthening in Tiberian Hebrew. In L. Wetzels & E. Sezer (Eds.), *Studies in compensatory lengthening*, (pp. 97–146). Dordrecht: Foris.
- McCarthy, J. J., & Prince, A.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In J. Beckman, L. W. Dickey, & S. Urbanczyk (Ed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pp. 249–348). Amherst, MA: GLSA,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Murray, R. & W. Vennemann, T. (1983). Sound change and syllable structure in Germanic phonology. *Language*, 59, 514–528.
- Roca, I., & Johnson, W. (1999). *A course on phonology*.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 Prince, A., & Smolensky, P.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generative grammar*. Unpublished manuscript. Rutgers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Prince, A., & Smolensky, P. (2004).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alden, MA: Blackwell.
- Selkirk, E. O. (1981). Epenthesis and degenerate syllables in Cairene Arabic.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3, 209–232.
- Thompson, H.-R. (2012). *Bengali*.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Uffmann, C. (2006). Epenthetic quality in loanwords: Empirical and formal issues. *Lingua*, 116, 1079–1111.

**Chung, Chin-Wan**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664-14 Duckjin-dong, Duckjin-gu, Jeonju, Korea 561-756

Phone: 82-63-270-3205

Email: atchung@hanmail.net

Received on August 1,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6, 2019

Accepted on September 30, 2019



# Labeling and Moving Adjunction Structures\*

Rhanghyeyun Kim

(Korea University)

**Kim, Rhanghyeyun (2019). Labeling and moving adjunction structur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3), 125–147. Chomsky’s (2013) labeling algorithm fails to label adjunction structures, resulting in the Full Interpretation problem. This paper shows that the algorithm faces another problem in ‘moving’ adjunction structures, based on the data from adverb–adjunction and scrambling. This paper then suggests that adverb–adjunction structures as well as scrambling structures can be labeled and thus are correctly predicted to be able to move if we adopt the Anti–Labeling Device of Saito (2016). Finally, Feature–based Labeling alternatives to the Anti–Labeling Device are critically discussed.

**Key words:** labeling, adverb, scrambling, adjunction, Anti–Labeling Device, Feature.

## 1. Introduction

### 1.1. Chomsky’s (2013) Labeling Algorithm

Chomsky (2013) lays out a theory of how structures are built in narrow syntax. One of the important Minimalist assumptions in Chomsky (2013) is that Merge applies freely. That is, Merge, by hypothesis, is not “driven” by any convergence condition, as previously assumed in early Minimalism, but simply available to apply, optionally and fre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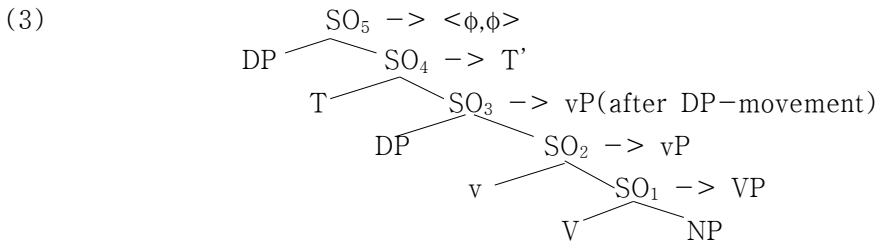
---

\* I would like to thank three anonymous reviewers for their valuable comments and suggestions.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Korea University’s 2018 College of Global Business Research Fund.

Under this simple conception of Merge, Chomsky (2013) argues that Merge( $\alpha$ ,  $\beta$ ) yields  $\{\alpha, \beta\}$  with no label projection. “Labeling” through minimal search MS as in (1) and (2) will then help us to find what kind of a syntactic object SO  $\{\alpha, \beta\}$  is.

- (1) Suppose SO = {H, XP}, H a head and XP not a head. Then, MS selects H as the label (Chomsky 2013, p. 43).
- (2) Suppose SO = {XP, YP}, neither a head. There are two ways in which SO can be labeled: (A) modify SO so that there is only one visible head (e.g. through movement of either XP or YP), or (B) X and Y share some prominent features, which can be taken as the label of {XP, YP}. (adapted from Chomsky 2013, p. 43).

Consider (3) to see how Labeling Algorithm LA in (1) and (2) works.



SO<sub>1</sub> {V, NP} and SO<sub>2</sub> {v, VP} will be labeled as VP and vP, respectively, since Head projects. Now, SO<sub>3</sub> {DP, vP}, as it is, cannot be labeled since neither is a head. However, SO<sub>3</sub> may receive a label ‘vP’ at a later point after DP moves to a higher position in accordance with (2A): MS after the movement “sees” only vP when it “looks at” SO<sub>3</sub> {DP, vP} since traces, being part of a chain, are ignored for the purpose of labeling; SO should dominate every occurrence of its component to be labeled. SO<sub>4</sub> {T, vP} will be labeled as T’ according to (1). Finally, SO<sub>5</sub> {DP, TP} will be labeled as  $\langle \phi, \phi \rangle$  in accordance with (2B): the  $\phi$ -features are shared by DP and TP and thus become the label of SO<sub>5</sub>.

## 1.2. Full Interpretation and Adjunction

Chomsky (2013) allows unlabeled objects, but only “during the derivation” as in the case of  $SO_3$  as we saw above. In the final representations, they are not allowed since labels are required for interpretation at the conceptual–intentional interface CI. If the object lacking the label appears at CI, it violates Full Interpretation FI.

Now, among the constructed structures are cases where neither movement option (LA 2A) nor feature–sharing option (LA 2B) seems to be available for labeling; adjunction structures. Chomsky (2013) is not clear about how adjunction structures are labeled. Adjunction structures are then potential problems of LA, as they are not labeled and thus violate FI.

This article deals with two sorts of adjunction structures among others: the one created by adverb attachment and the one created by scrambling. I will argue that the Anti–Labeling Device (Saito, 2016; cf. Miyagawa et al, 2018) applies not only to scrambling but also to adverb–adjunction. The feature–based alternative along the line of Miyagawa (2010, 2017) will also be critically discussed.

## 2. Adverb Adjunction Structures

### 2.1 Labeling?

Adverbs seems to enjoy a free distribution within a sentence as in (4–5) but it is not that their distribution is totally free from all constraints. There are various approaches to licensing of adverbs and none of the approaches are without problems in capturing the apparent free but restricted distribution of adverbs.<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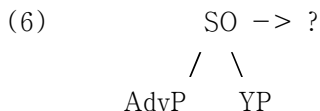
---

1) There are basically four types of adverb–licensing approaches: adverbs as heads (Travis, 1984)), adverbs as specs (Laenzlinger, 1993; Rijkhoek, 1994; Alexiadou, 1997; Cinque, 1995, 1999), adverbs as complements (McConnel–Ginet, 1982; Larson, 1988, 1990; Stroik, 1990), and adverbs as adjuncts (Chomsky, 1986, 1995, 1998, 1999; Zubizarreta, 1982, 1987; Sportiche, 1988, 1994).

- (4) a. *Probably* George has read the book.  
       b. George *probably* has read the book.  
       c. George has *probably* read the book.
- (5) a. *Cleverly*, John has been answering their questions.  
       b. John *cleverly* has been answering their questions.  
       c. John has *cleverly* been answering their questions.

Still, the most general assumption on (especially, pre-verbal) adverbs is that they are adjuncts, i.e., elements that are not lexically selected by a predicate and do not obligatorily appear in a sentence (Chomsky, 1986, 1995, 1998, 1999; Zubizarreta, 1982, 1987; Sportiche, 1988, 1994, etc.)<sup>3)</sup>

Now, if the general assumption is on the right track, then the formed adjunction structures by adverb-attachment as in (6) will be problems to LA since they are not able to be labeled as neither movement option nor feature-sharing option is available.



## 2.2 No Labeling Approach

One might argue that adjunction structures do not have to be labeled at all. In fact, Yoo (2018) and Park and Yoo (2019), essentially following Hornstein and Nunes (2008), Hunter (2010), and Bošković (2018), argue that adjunction structures can, or more correctly, must remain label-less for syntactic licensing.<sup>4)</sup>

---

2) The adjunct approach to adverbs, for example, would need an independent scope principle to capture the relative sequencing effect noted by Cinque (1995, 1999).

3) Our discussion is limited to pre-verbal adverbs. Postverbal adverbs are analysed as complements (McConnel-Ginet, 1982; Larson, 1988, 1990; Stroik, 1990). SOs with postverbal adverbs are not problems to LA since they can be labeled in accord with LA (1).

4) Yoo (2018) discusses modifier-adjunction structures, i.e., <AP, NP> cases. He argues

The key idea is that both elements of adjunction structures contribute equally to the interpretation and thus they should contribute equally to labeling as well;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for only one element to project and thus the formed object cannot help but remain label-less unless there is a feature-sharing between the two elements. The violation of FI can be avoided, Yoo (2018) proposes, since the adjunct employs predicate modification to “get labeled at the interpretive component” through the conjunctive labeling device.

The proposal is quite appealing. However, No Labeling (at syntax) Approach will face a problem if there is any “syntactic” operation that targets adjunction structures. The fact is that adverb-adjunction structures as well as scrambling adjunction structures ARE targeted by syntactic operation such as movement, as we will see in the next sections.

### 2.3 VP-fronting with Adverbs

Bošković (2018, p. 262) argues that unlabeled elements cannot undergo movement on the assumption that unlabeled elements are not phases and that only phases can undergo movement (Chomsky, 1998, 1999).<sup>5)</sup>

Now, if Bošković’s (2018) argument is on the right track, adverb-adjunction structures are predicted not to be able to move since they are not labeled, given the general assumption that adjuncts do not share “features” with merged phrases.<sup>6)</sup> However, the VP-fronting data in (7–8)

---

that AP cannot move out of non-feature sharing adjunction structures since the movement results in labeling of <AP, NP> as NP, which is in conflict with his proposal that both elements in adjunction should contribute equally to labeling.

5) Bošković (2018) argues that the traditional ban on movement out of moved elements is not right and should be replaced by his ban on movement of phases with non-agreeing specifiers. The gist of his argument is that non-agreeing specifiers make phases unlabeled and thus the phases cannot move; any movement out of a phase must first move to its edge, given the Phase-Impenetrability Condition. This edge movement, given the cycle, needs to happen before the phase moves. Now, this edge movement yields an unlabeled element since there is no feature-sharing between these two elements. Given that only phases can undergo movement (Chomsky, 1998, 1999), the element formed by this edge movement is not allowed to move, since unlabeled objects cannot be phases.

6) See Section 5 for the possible feature-based analysis.

indicate that adjunction structures formed by adverb–attachment do move.<sup>7),8), 9)</sup>

- (7) a. Critically examined every folio a scholar has.  
b. Willingly examined every folio a scholar has.  
(Ott 2018, p. 262; Moon 2018, p. 237)

- (8) a. Cleverly answer the questions, John will.  
(meaning: the way John will answer the questions will be clever.)  
b. Quickly arrested by the police, John will be.  
(meaning: the manner of arresting will be quick.)  
c. Completely read the book, George will.  
(p.c. Conrad Brubacher; Michael Berrie)

The natural question is then how VPs with adverbs can be targets of fronting operation even though they are not labeled?<sup>10)</sup> How can we account

---

7) Hornstein and Nunes (2008, p. 60) also present the data in (i) as cases of VP–preposing with (any number of) adjuncts. As I noted in Footnote 3,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is limited to pre–verbal adverbs.

- (i) a. John could [eat the cake] and [eat the cake] he did.  
b. John could [[ eat the cake ] [ in the yard ]] and [ eat the cake ] he did [in the yard ].  
c. ... and [[ eat the cake ] [ in the yard ]] he did [ with a fork ].  
d. ... and [[[ eat the cake ] [ in the yard ]] [ with a fork ]] he did.

8) As Moon (2018) notes, the possibility of English VP–preposing with adverbs depends on the properties of adverbs, which is in need of more research in future. The sentences in (8) contain Class I, II, and IV adverbs of Jackendoff(1972) with manner interpretation, which are usually considered as VP–adverbs. The judgement on the data are from my informants (Conrad Brubacher at Korea University and Michael Berrie at Sogang University).

9) Some linguists like Ott (2018) argue that VP–fronting is in fact VP–dislocation. Refer to Moon (2018) for the advantages and the disadvantages of the dislocation analysis.

10) An anonymous reviewer points out that a labeling problem does not arise if pre–verbal adverbs are attached to V and ‘move’ targets vP, given Huang(1993). I



for the fact that the unlabeled syntactic object SOs (VPs with adjuncts) behave in the same way as the labeled SOs (VPs without adjuncts) with respect to syntactic operations like movement? It seems that we would need some mechanism to explain the movement of the unlabeled VPs.

So far, we have seen that labeling and moving of VPs with adverbs brings up a potential problem to Chomsky's (2013) labeling algorithm LA. In the next section, I will show that labeling and moving of scrambled phrases pose the same sort of problem to LA.

### 3. Adjunction Structures by Scrambling

#### 3.1 Labeling?

One of the widely accepted views on scrambling since Saito (1985) is that it is an optional adjunction operation.<sup>11)</sup> Further, it is supposed to be "pure merge" without feature sharing, given Saito's (1989, 1992, 2003) argument that scrambling is neither operator movement nor A-movement (see also Hoji, 1985; Kuroda, 1988; Webelhuth, 1989; Abe, 1993; Fukui, 1993; Tada, 1993; Cho, 1994; Saito & Fukui, 1998; Takano, 1998; Kitahara, 2000). Now, one would

---

suspect that pre-verbal adverbs are attached to *v* rather than *V*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First, we don't have any empirical evidence that pre-verbal adverbs are attached to *V*. Secondly, since adverbs 'selected' by verb are included within *V* (McConnel-Ginet, 1982; Larson, 1988, 1990; Stroik, 1990), it is conceptually more reasonable to include adverbs 'unselected' by *V* within *v* rather than *V*.

11) The other two views on scrambling are the Base-Generation Approach and the Feature-Driven Movement Approach. The former (Bošković & Takahashi, 1998; Cho and Kim, 2000; Fanselow 2001) argues that scrambled phrases are directly base-generated in the surface positions and undergo obligatory LF lowering for  $\theta$ -feature checking. One of the alleged advantages of this approach is that in this approach scrambling is consistent with Last Resort. Readers can refer to Bailyn (2001) and Johnston and Park (2001) for various theoretical and empirical arguments against the obligatory LF lowering account. The feature-based approach claims that word order variation is derived not by optional movement but by obligatory movement for features such as focus/topic-features, case/agreement-features, EPP-features, edge-features, etc. See Section 5 for more discussion.

expect that the SO formed by scrambling as in (9) cannot be labeled since none of the LA in (1–2) is available.

- (9)                    SO → ?  
                           /    \  
                           scrambled XP    YP

### 3.2 No Labeling Approach

Again, Park and Yoo (2019) argue that the SO in (8) need not to be labeled since it will undergo reconstruction to its original launching site “at the interpretive component” and get labeled there, satisfying FI. This is what happened in the so called radical reconstruction construction sentences as in (10) and (11).

- (10) etten chayk-ul<sub>1</sub> Yuna-nun [Jina-ka t<sub>1</sub> pilleyss-nunci] kungkumhay hayessta  
       which book-acc. Y.-top. J.-nom. borrow-Q        wanted-to-know  
       'Which book<sub>1</sub>, Y. wanted to know [Q [J. borrowed t<sub>1</sub>]].'  
 (11) caki-casin<sub>1</sub>-ul Yuna-ka [<sub>IP</sub> Jina<sub>1</sub>-ka t<sub>1</sub> miwehanta-ko ] mitnunta  
       self-acc. Y.-nom. J. -nom. hate-that        believes  
       'Self<sub>1</sub>, Y. believes that J.<sub>1</sub> hates t<sub>1</sub>.'

Or alternatively, if it is not undone, it takes the option of semantic predication at the interpretive component. Violations of FI are thus avoided.

Putting aside the problem of FI violations at the interpretive component, however, No Labeling Approach at syntax faces problems here just as it does in the case of adverb–adjunction structures, since the SO formed by scrambling can be processed by “syntactic” operations like movement as we will see in the next section.

### 3.3 Scrambling of Scrambled Phrases

Given Bošković’s (2018, p. 262) argument that unlabeled elements cannot undergo movement, the adjunction structures formed by scrambling are predicted not to be able to move. However, the fact is that the SO formed

by scrambling can scramble further as shown in (12c),<sup>12)</sup>

(12) a. emeni-kkeyse [Yuna-ka sayntuwichi-lul mantulessta-ko] malssumhasyesse  
 Mother-Nom(hon.) Y.-nom. sandwich-acc. made-Comp. said  
 'Mother said that Y. made sandwiches.'

b. emeni-kkeyse [<sub>?</sub> **sayntuwichi-lul<sub>1</sub>** [Yuna-ka t<sub>1</sub> mantulessta-ko]] malssumhasyesse

c. [<sub>?</sub> **sayntuwichi-lul<sub>1</sub>** [**Yuna-ka t<sub>1</sub> mantulessta-ko**]]<sub>2</sub> emeni-kkeyse t<sub>2</sub> massumhasyesse

The data in (13) and (14) show that not only NPs but also locative/time/manner adverbs can scramble to the edge of a phrase (the embedded clauses in (13–14)) and the formed SOs by these scramblings can scramble

---

12) One might think that (12) does not raise a labeling problem if we take Miyagawa's (1997, 2001) argument that object scrambling is movement into spec of IP. However, there are plenty of data that support the argument that scrambling is pure adjunction operation (Saito 1989, 1992, 2003), which this paper takes. Further, Miyagawa's (1997, 2001) approach has a burden to assume that adverbs and/or post-positional phrases sit in the spec of IP (sharing some-features) to explain the data in (13)–(14).

One might also think that (12c) does not raise a movement problem since all the scrambled phrases are attached to IP and the movement in (12c) targets CP. However, the sentence (ic), where an NP is scrambled over a topic subject (and thus probably adjoined to CP) and the whole scrambled phrase is scrambled again, indicates that scrambling of a scrambled phrase IS a real problem to Chomsky's LA; in fact, there could be more cases like this, where a phrase is scrambled over a phrase, say a CP adverb, in the spec of CP, which need to be researched further in the future.

- (i) a. Kyoswunim-kkeyse [Yuna-nun cakicasinuy puroceyktu-lul acwu yelsimhi  
 Professor-Nom(hon.) Y.-Top. her own project-acc. very enthusiastically  
 swuhaynghaysstako] malssumhasyesse  
 carried-out said  
 'Professor said that Y carried out her own project very enthusiastically.'
- b. Kyoswunim-kkeyse [<sub>?</sub> **cakicasinuy puroceyktu-lul<sub>1</sub>** [Yuna-nun t<sub>1</sub> acwu  
 yelsimhi swuhaynghaysstako] malssumhasyesse
- c. [<sub>?</sub>**cakicasinuy puroceyktu-lul<sub>1</sub>** [**Yuna-nun t<sub>1</sub> acwu yelsimhi swuhaynghaysstako**]]<sub>2</sub>  
 Kyoswunim-kkeyse t<sub>2</sub> malssumhasyesse

further.

- (13) a. Kyoswunim—kkeyse [Yuna—ka ece i kanguysil—eyse ku puroceyktu—lul  
 Professor—Nom(hon.) Y.—nom. yesterday this classroom—in the project—acc.  
 swuhaynghaysstako] malssumhasyesse  
 carried—out said  
 ‘Professor said that Y carried out the project in this room yesterday.’
- b. Kyoswunim—kkeyse [<sub>?</sub> i kanguysil—eyse<sub>3</sub> [<sub>?</sub> ece<sub>2</sub> [<sub>?</sub> ku puroceyktu—lul<sub>1</sub> [  
 Yuna—ka t<sub>3</sub> t<sub>2</sub> t<sub>1</sub> swuhaynghaysstako]] malssumhasyesse
- c. [<sub>?</sub> i kanguysil—eyse<sub>3</sub> [<sub>?</sub> ece<sub>2</sub> [<sub>?</sub> ku puroceyktu—lul<sub>1</sub> [Yuna—ka t<sub>3</sub> t<sub>2</sub> t<sub>1</sub>  
 swuhaynghaysstako]]]<sub>4</sub> Kyoswunim—kkeyse t<sub>4</sub> malssumhasyesse
- (14) a. Kyoswunim—kkeyse [Yuna—ka acwu yelsimhi ku puroceyktu—lul  
 Professor—Nom(hon.) Y.—nom. very enthusiastically the project—acc.  
 swuhaynghaysstako] malssumhasyesse  
 carried—out said  
 ‘Professor said that Y carried out the project very enthusiastically.’
- b. Kyoswunim—kkeyse [<sub>?</sub> acwu yelsimhi<sub>3</sub> [<sub>?</sub> ku puroceyktu—lul<sub>1</sub> [Yuna—ka t<sub>2</sub> t<sub>1</sub>  
 swuhaynghaysstako] malssumhasyesse
- c. [<sub>?</sub> acwu yelsimhi<sub>3</sub> [<sub>?</sub> ku puroceyktu—lul<sub>1</sub> [Yuna—ka t<sub>2</sub> t<sub>1</sub> swuhaynghaysstako]]<sub>3</sub>  
 Kyoswunim—kkeyse t<sub>3</sub> malssumhasyesse

Now, scrambling of scrambled elements as in (12–14) targets unlabeled SOs and thus should not be able to occur from the start. The possibility of scrambling of scrambling as well as VP-fronting with adverbs then indicates that we would need some mechanism to label at least these two types of adjunction structures.

## 4. Labeling by Anti-Labeling Device

In this section we will look over the Anti-Labeling Device of Saito (2016). Then I propose to extend the mechanism to adverb-adjunction struc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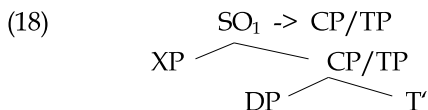
### 4.1 Anti-Labeling Device for Scrambling<sup>13)</sup>

---

13) Also refer to Miyagawa et al (2018), who, developing Saito (2016), argue that there are two ways to mark which of a given pair { $\alpha$ ,  $\beta$ } may project; to render one member



CP/TP as in (18).  $SO_1$  cannot be labeled by feature sharing but it can be by the Anti-Labeling Device; XP never projects and thus  $SO_1$  is labeled as CP/TP.



The process in (18) is not available in English and thus English does not have scrambling.

#### 4.2 Revisiting Scrambling of Scrambled Phrases

Given the Anti-Labeling Device, Scrambling of Scrambled Phrases is now trivially captured. The SO formed by scrambling is now able to be labeled as CP or TP (depending on whether scrambling targets CP or TP) as in (12b)' and thus is correctly predicted to be able to scramble further as in (12c)'.

- (12) a. emeni-kkeyse [Yuna-ka sayntuwichi-lul mantulessta-ko] malssumhasyesse  
 Mother-Nom(hon.) Y.-nom. sandwich-acc. made-Comp. said  
 'Mother said that Y. made sandwiches.'
- b. emeni-kkeyse [<sub>CP/TP</sub> sayntuwichi-lul<sub>1</sub> [Y.-ka t<sub>1</sub> mantulessta-ko]]  
 malssumhasyesse
- c. [<sub>CP/TP</sub> sayntuwichi-lul<sub>1</sub> [Y.-ka t<sub>1</sub> mantulesstako]]<sub>2</sub> emeni-kkeyse t<sub>2</sub>  
 massumhasyesse

#### 4.3 Anti-Labeling Device for Adverb-Adjunction

Now, turning to adverb-adjunction structures,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adverbial suffix (covert or overt) serves as an anti-labeling device as well, extending Satio's (2016) analysis.<sup>14), 15)</sup>

---

14) Saito(2106) assumes the feature  $\lambda$  which makes a constituent opaque for search. He claims that this feature is realized as Case markers on DPs/PPs and as inflection on predicates. The  $\lambda$ -feature on predicate, for example, is valued as 'preverbal' by v/V in (i) (and the  $\lambda$ -feature will be valued as 'conclusive' by C and 'prenominal'

## (19) Anti-Labeling Device for Adverb-Adjunction

Adverbial suffix (covert or overt) serves as an anti-labeling device.

This is quite plausible given the argument by Larson (1987, pp. 250–252) that adverbial affixes are some kind of case markers (see also Dechaine, 1993, p. 54).

“So just as combination of NP with a preposition produces an "adverbial" of category PP, combination of an AP with the formative *-ly* produces an adverb of category AdvP... The function of the *-ly* morpheme is fundamentally a Case-marking element that allows a Case-dependent category (AP) to appear in an adjunct site (Larson 1987, pp. 250–251).”

Alexiadou (1997) adds that in West Greenlandic Eskimo, the adverbial endings *-tigut*, *-kkut* and *-mik* are Case markers. Also note that Emonds (1985, p. 58) claims that the adverbial suffix *-ly* is a sort of inflectional affix on the adjective and Alexiadou (1997) argues that the *-ly* ending is an indication of agreement between the adverbs and the verbs and this agreement is very different from the one between DPs and the functional verbal heads.

Now, by putting together adverbs and scrambled phrases on the same line

---

by D/N).

(i) Taroo-wa sizuka-**ni** kaet-ta (**preverbal**)

T.-TOP quietness-Cop. leave-Past

‘Taroo left quietly’

The insight of this proposal is that there is a parallelism between predicate inflection and Case (see also An 2009). What is relevant to our discussion is that pre-verbal inflection, i.e., adverbial suffix, can also function as an anti-labeling device, which I extend to English adverb-adjunction based on the arguments by Emonds (1985), Larson (1987), and Alexiadou (1997) as stated in the text.

- 15) An anonymous reviewer asks about labeling of adverb-scrambling, which this paper did not handle. I suspect that adverbs in Korean, as anti-labelers, can scramble freely up to various constraints on adverb-licensing such as scope principle (see Footnote 16).

in labeling process, we can capture the similarity between them with respect to multiple stacking; scrambling can apply multiply (theoretically indefinitely if not restricted by other constraints), possibly because scrambled phrases never project and thus scrambling is free from the burden of labeling. Likewise, adverb phrases may attach multiply (if not constrained by other constraints), possibly because they never project, being free from the labeling burden.<sup>16)</sup>

#### 4.5 Revisiting VP-fronting with Adverbs

Now, given the Anti-Labeling Device for adverb-adjunction, labeling and moving adverb-adjunction structures will be trivially captured as in the case of scrambling above. The formed adjunction structures in (6) will now be able to be labeled as YP as in (6') since AdvP never projects.

$$(6') \quad \begin{array}{ccc} & \text{SO} & \rightarrow \text{YP} \\ & / \quad \backslash & \\ \text{AdvP} & & \text{YP} \end{array}$$

In the same vein, the verb phrase with adverbs in (7), being able to be labeled as VP, will not have a problem in being processed by syntactic operation like fronting as in (7').

- (7') a. [<sub>VP</sub> Critically examined every folio] a scholar has.  
 b. [<sub>VP</sub> Willingly examined every folio] a scholar has.

In this section we have looked over Saito's (2016) Anti-Labeling Device as one way to explain adjunction structures by scrambling and I suggested to extend the Anti-Labeling Device to adjunction structures by adverb-attachment. In the next section, we will look over Feature-Based alternatives and see that we need the Anti-Labeling Device anyway to capture the properties of scrambling.

---

16) There will be more similarities between adverbs and scrambled phrases and there will be differences between them as well, which might be captured by various proposals and constraints on them, the study of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this paper.



## 5. Discussion on Alternatives

### 5.1 Feature-Driven Scrambling

While linguists like Saito (1985, 1989, 1992, 2003) claim scrambling is a truly optional operation, occurring without any driving force, others argue that scrambling is a feature-driven movement (e.g. Y. Lee 1993, Miyagawa 1997, 2001, 2003, 2006, 2010, 2017, Karimi 1999, Kitahara 2000, Ishihara 2001, Lee and Cho 2003, Jung 2002, Yang and Kim 2005, H. Lee 2006, Ko 2007, 2011, 2014, 2017). Various formal features such as focus/topic-features,  $\delta$ -features, case/agreement-features, EPP-features, edge-features, etc. have been proposed.

Specifically, Miyagawa (2010, 2017) argues that (1) all languages have Agree, which is a means of forming ‘functional relation’ such as subject-predicate, theme-rheme, and focus-presupposition, (2) Agree is typically accompanied by movement, (3) Agree is not always a matter of  $\phi$ -feature valuation; another form of Agree employs discourse configurational features ( $\delta$ -features) such as topic/focus, (4) Japanese is a discourse-configurational language and thus  $\delta$ -features play the role that  $\phi$ -feature agreement plays in agreement languages. Scrambling (as well as A-movement) in Miyagawa’s (2010, 2017) point is therefore driven by  $\delta$ -features such as topic/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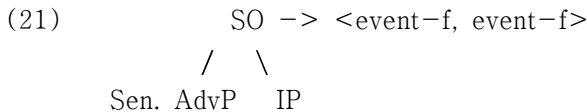
### 5.2 Labeling Adjunction Positions with Features

Along this line of approach, one could say that adjunction structures formed by scrambling can be labeled as  $\langle \delta, \delta \rangle$  through feature-sharing as in (20).

$$(20) \quad \begin{array}{ccc} & \text{SO} & \rightarrow \langle \delta, \delta \rangle \\ & / \quad \backslash & \\ \text{XP} & & \text{YP} \end{array}$$

We could extend this sort of approach to adverb-adjunction, and say that adverb-adjunction structures are also labeled through feature-sharing; this is not totally improbable given Travis’s (1988) proposal that adverbs are licensed by the

designated feature of a head; epistemic<sup>17)</sup> or sentential adverbs are licensed by the event feature of I and manner adverbs are licensed by the manner feature of V. So for example, we can say that the adjunction structures in (21), where sentential adverbs are adjoined to IP, are labeled as <event-f, event-f>. Or one could invent some fancy features.



Although this line of approach is possible, feature-driven analysis of scrambling will face a difficulty in accounting for the fact that scrambling does not show the intervention effect as illustrated in the following section.

### 5.3 Scrambling and the Intervention Effect

If it is really true that scrambling is driven by features, for example,  $\delta$ -features such as topic/focus as Miyagawa (2010, 2017) argues, we would expect that it obeys the same sort of movement constraints that the usual Topic/Focus movement obeys. However, the fact is contrary to this expectation. Scrambling is observed not to be subject to the intervention effect as shown in (22–23), while Topicalization is subject to the effect as shown in (24–25) (Bošković and Takahashi 1998, p. 359).

(22) scrambling out of wh-Island

ku chayk-ul<sub>1</sub> John-i [Mary-ka t<sub>1</sub> ilkess-nunci] kungkumhayhanta  
 that book-acc. J.-nom. M.-nom. read-whether want to know  
 'That book, John want to know [whether Mary read].'

(23) scrambling over a scrambled phrase

Yuna-eykey<sub>2</sub> ku chayk-ul<sub>1</sub> John-i [Mary-ka t<sub>2</sub> t<sub>1</sub> cwuesstako] malhayssta  
 Y.-to that book-acc. J.-nom. M.-nom. gave said  
 'To Y., that book, John said that Mary gave.'

---

17) Epistemic adverbs express the speaker's degree of confidence about the truth of the proposition such as *probably*, *likely*, *presumably*, *supposedly*.

(24) topicalization out of *wh*-Island

?\*John<sub>1</sub>, you wonder whether Mary kissed t<sub>1</sub>.

(25) topicalization over a topicalized phrase

?\*To John<sub>2</sub>, that book<sub>1</sub>, (Bill said that) Mary handed t<sub>1</sub> t<sub>2</sub>.

Then, to capture the contrast between (22–23) on the one hand and (24–25) on the other hand, any feature-driven movement analysis of scrambling need to assume that only scrambling-related features are exempt to the intervention effect, which is quite dubious.

#### 5.4 Back to the Anti-Labeling Device

To capture the fact that scrambling evades the intervention effect as in (22–23), one could dissociate features from movement, slightly departing from Miyagawa (2010, 2017). That is, we can say that scrambling is a truly optional operation without any driving force, but the scrambled phrase somehow “happens” to share  $\delta$ -features with the target phrase after scrambling and thus the resulting SO is labeled as  $\langle\delta,\delta\rangle$ .

Now, suppose that this happening is obligatory (for labeling). One might wonder what would be the conceptual ground for the assumption that a truly optional movement obligatorily participates in feature-sharing.

On the other hand, suppose that this happening is optional, which seems to be necessary if it is true that scrambling shows the radical reconstruction effect as introduced in (10–11) above, while English topicalization does not as shown in (26), where *what* cannot have any interpretation in (b), while it can marginally have the matrix scope in (a).<sup>18)</sup> (28) is another case of the radical reconstruction.<sup>19)</sup>

---

18) As for the mechanism of radical reconstruction under the current approach, I suspect that any phrase which did not participate in labeling deletes at the interpretation component unless the phrase position is independently required, say, for predication, thematic relation, etc.

19) Refer to H. Lee (2006) for the argument that all scrambled phrases bear focus effect and thus there is no real reconstruction effect in Korean. See also Cho (1996) for the case, which H. Lee (2006) counts as another anti-reconstruction case in Korean.

- (10) etten chayk-ul<sub>1</sub> Yuna-nun [Jina-ka t<sub>1</sub> pilleyss-nunci] kungkumhay hayessta  
 which book-acc. Y.-top. J.-nom. borrow-Q wanted-to-know  
 'Which book<sub>1</sub>, Y. wanted to know [Q [J. borrowed t<sub>1</sub>]].'
- (11) caki-casin<sub>1</sub>-ul Yuna-ka [<sub>IP</sub> Jina<sub>1</sub>-ka t<sub>1</sub> miwoehanta-ko ] mitnunta  
 self-acc. Y.-nom. J. -nom. hate-that believes  
 'Self<sub>1</sub>, Y. believes that J.<sub>1</sub> hates t<sub>1</sub>.'
- (26) a. ??Who<sub>1</sub> t<sub>1</sub> said that [the man that bought what]<sub>2</sub>, John knows whether  
 Mary likes t<sub>2</sub>?  
 b. \*Mary thinks that [the man that bought what]<sub>2</sub>, John knows who<sub>1</sub> t<sub>1</sub>  
 likes t<sub>2</sub>. (Saito, 1992, p. 81)
- (27) \*amwuto [<sub>IP</sub> John-i chayk-ul ani sassta-ko ] mitnunta  
 anything J. -nom. book-acc. not bought-that believes  
 '\*Anybody believes that John did not buy the book.'
- (28) amwukesto<sub>1</sub> Mary-ka [<sub>IP</sub> John-i t<sub>1</sub> ani sassta-ko ] mitnunta  
 anything M.-nom. J. -nom. not bought-that believes  
 'Anything<sub>1</sub>, Mary believes that John did not buy t<sub>1</sub>.'

Now, once we assume that the feature-sharing happening is optional, it seems that we need an independent labeling device for non-feature sharing cases, even if feature-sharing positions can be labeled by features.

In short, under the feature-based alternatives, to explain the contrast between scrambling in Korean/ Japanese and Topicalization in English with respect to the intervention effect and the radical reconstruction effect, we will lead to a situation where we need a labeling device such as the Anti-Labeling Device anyway.

## 6. Summary and Conclusion

Chomsky (2013) lays out a theory of how structures are built in narrow syntax, in particular, how each structure gets its labeling. His labeling algorithm, however, is not clear about how adjunction structures are labeled. Putting aside the problems of Full Interpretation violations, a natural question is then how “syntactic” operations like movement can target the unlabeled adjunction structures such as adverb-adjunction structures and scrambling-adjunction structures.

We looked over Saito's (2016) Anti-Labeling Device for scrambling and I suggested to extend the device to adverb-adjunction. The feature-based labeling alternative was discussed and I concluded that we need a separate labeling device such as the Anti-Labeling Device anyway, even under this line approach, to capture the properties of scrambling distinguished from feature-driven movement in English such as Topicalization.

## References

- Abe, J. (1993). *Binding conditions and scrambling without A/A' distin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CONN, Storrs, CT.
- Alexiadou, A. (1997). *Adverb placemen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An, D. H. (2009). A Note on Genitive Drop in Korean. *Nanzan Linguistics* 5, 1–16.
- Bošković, Ž. (2018). On movement out of moved elements, labels and phases. *Linguistic Inquiry*, 49, 247–282.
- Bošković, Ž., & Takahashi, D. (1998). Scrambling and last resort. *Linguistic Inquiry*, 29, 347–366.
- Cho, J-H. (1994). *Scrambling in Korean: Crossover, reconstruction and binding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CONN, Storrs, CT.
- Cho, J-H. (1996). Reconstruction effects and intermediate A-positio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6, 257–279.
- Cho, J-H., & Kim, D-H. (2000). Scrambling without syntactic movement.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0, 151–179.
- Chomsky, N. (1977). On wh-movement. In P. Culicover (Ed.), *Formal syntax* (pp. 71–132). New York: Academic.
- Chomsky, N. (1986). *Barriers*.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 Chomsky, N. (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5.

- Chomsky, Noam. 1999.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In Michael Kenstowicz, (Ed.), 2001, *Ken Hale. A Life in Language* (pp.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13). Problems of projection. *Lingua*, 130, 33–49.
- Chomsky, N. (2015). Problems of projection: Extensions. In E. D. Domenico, C. Hamann, & S. Matteini (Eds.), *Structures, strategies and beyond: Studies in honour of Adriana Belletti* (pp. 3–16). Amsterdam: John Benjamins.
- Cinque, G. (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Oxford University Press.
- Déchaine, R–M. (1993). *Predicates across categor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es, Amherst.
- Emonds, J. (1985). *A unified theory of syntactic categories*. Dordrecht: Foris.
- Epstein, S., Kitahara, H., & Seely, T. D. (2014). Labeling by minimal search: Implications for successive cyclic A–movement and the conception of the postulate “Phase.” *Linguistic Inquiry*, 45, 463–481.
- Ernst, T. (2002). *The syntax of adjun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nselow, G. (2001). Features,  $\theta$ –roles, and free constituent order. *Linguistic Inquiry*, 32, 405–437.
- Fukui, N. (1993). Parameters and optionality. *Linguistic Inquiry*, 24, 399–420.
- Heycock, C. (1992). Layers of predication and the syntax of the copula. *Belgian Journal of Linguistics*, 7, 95–123.
- Hoji, H. (1985). *Logical form constraints and configurational structures in Japanes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Hornstein, N, and J. Nunes. (2008). Adjunction, labeling, and bare phrase structure. *Biolinguistics*, 2, 57–86.
- Hunter, T. (2010). *Relating movement and adjunction in syntax and semantics*.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Maryland.
- Ishihara, S. (2001). Stress, focus and scrambling in Japanese. *MITWPL 39: A Few From Building E39*. Cambridge, MA: MITWPL.
- Jackendoff, R. (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 MIT Press.

- Jung, Y-J. (2002). Scrambling, edge effects and A/A'-distinctio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 41-64.
- Johnston, J. C., & Park, I-S. (2001). Some problems with a lowering account of scrambling. *Linguistic Inquiry*, 32, 727-732
- Karimi, S. (1999). Is scrambling as strange as we think it is? In K. Arregi, B. Bruening, C. Krause, & V. Lin (Ed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33, Papers on morphology and syntax, cycle one* (pp. 159-190). Cambridge, MA: MITWPL
- Kitahara, H., (2000). Case and scrambling: A derivational view. Unpublished manuscript, Keio University.
- Ko, H-J. (2007). Asymmetries in scrambling and cyclic linearization. *Linguistic Inquiry*, 38, 49-83.
- Ko, H-J. (2011). Predication and edge effect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9, 725-778.
- Ko, H-J. (2014). *Edges in syntax: Scrambling and cyclic linear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uroda, S-Y. (1988). Whether we agree or not.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12, 1-47.
- Laenzlinger, C. (1993). Principles for a formal and computational account of adverbial syntax.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e de Geneve.
- Larson, R. (1987). Missing pronouns and the analysis of free relative clauses. *Linguistic Inquiry*, 18, 239-266.
- Lee, H. (2006). A study on scrambling in Korean: The minimalist approach.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6, 425-460.
- Lee, W-B, and S-E Cho. (2003). Is scrambling EPP-drive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3, 331-341.
- Lee, Y-S. (1993). *Scrambling as case-driven obligatory mo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McConnell-Ginet, S. (1982). Adverbs and Logical Form. *Language*, 58, 144-184.
- Miyagawa, S. (1997). Against optional scrambling. *Linguistic Inquiry*, 28, 1-25.
- Miyagawa, S. (2001). The EPP, scrambling, and wh-in-situ. In M. Kesntowicz (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pp. 293-338).

- Cambridge, MA: MIT Press.
- Miyagawa, S. (2003). A-movement scrambling and options without optionality. In S. Karimi (Ed.), *Word order and scrambling* (pp. 177–200). Blackwell Publishers.
- Miyagawa, S. (2006). On the ‘undoing’ nature of scrambling: a response to Bošković. *Linguistic Inquiry*, 37, 607–624.
- Miyagawa, S. (2010). *Why Agree? Why Move? Unifying agreement-based and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s*. Cambridge, MA: MIT Press.
- Miyagawa, S. (2017). *Agreement beyond phi*. Cambridge, MA: MIT Press.
- Miyagawa S., Wu, D., & Koizumi, M. (2018). Deriving Case Theory. Unpublished manuscript, MIT/University of Tokyo, MIT, and Tohoku University.
- Moon, G-S. (2018). Some Remarks on the VP-dislocation analysis of English VP-fronting.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8(1), 233–251.
- Ott, D. (2018). VP-fronting: Movement vs. dislocation. *The Linguistic Review*, 35(2), 243–282.
- Park, M-K., & Yoo, Y-S. (2019). Scrambling in Korean and the labeling theory. *Studies in Modern Grammar* 102, 1–30.
- Rijhoek, P. (1994). *On adverbs and antisymmetric minimalism*. MA Thesis, University of Groningen.
- Saito, M. (1985). *Some Asymmetries in Japanese and their theoretical implications*. Ph.D. dissertation, MIT.
- Saito, M. (1992). Long-distance scrambling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 69–118.
- Saito, M. (2003). A derivational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scrambling chains. *Lingua*, 113, 481–518.
- Saito, M. (2016). (A) Case for Labeling: Labeling in languages without f-feature agreement. *The Linguistic Review*, 33, 129–175.
- Saito, M., & Fukui, N. (1998). Order in phrase structure and movement. *Linguistic Inquiry*, 29, 439–474.
- Sportiche, D. (1988). A theory of floating quantifiers and its corollaries for constituent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19, 425–449.
- Sportiche, D. (1994). Adjuncts and adjunction. *GLOW Newsletter* 32, 54–55.



- Stroik, T. (1990). Adverbs as V-sisters. *Linguistic Inquiry*, 21, 654–661.
- Tada, H. (1993). *A/A-bar partition in deriv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Takano, Y. (1998). Object shift and scrambling.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817–889.
- Travis, L. (1988). The syntax of adverbs. *McGi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on Comparative Syntax*, 280–310.
- Webelhuth, G. (1989). *Syntactic saturation phenomena and the modern Germanic languag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Yang, D-W. & Kim, S-H. (2005). Scrambling and interpretive complex.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2), 169–193.
- Yoo, Y-S.. (2018). *Mobility in Syntax: On Contextuality in Labeling and Phas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at Storrs.
- Yoon, J. H-S. (2004). Non-nominative (major) subjects and case stacking in Korean. In P. Bhoskaravao & K. V. Subbarao (Eds.), *Nonnominative subjects*, 2 (pp. 265–314). Amsterdam: John Benjamins.
- Zubizarreta, M. L. (1982). *On the relationship of the lexicon to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 Zubizarreta, M. L. (1987). *Levels of representation in the lexicon and in the syntax*, Dordrecht: Foris.

**Rhanghyeyun Kim**

Professor

English Studies, Division of Global Studies  
 College of Global Business, Korea University  
 2511 Sejong-ro, Sejong City, 30019, KOREA  
 Phone: +82-044-860-1235  
 Email: rhylee@korea.ac.kr

Received on June 20,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0, 2019

Accepted on September 30, 2019



# Readers' Language Experience in Generating Korean *Wh*-Constructions\*

On-Soon Lee

(Dong-A University)

Lee, On-Soon. (2019). Readers' language experience in generating Korean *wh*-constructio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3), 149–17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language experience, which is shaped by the distributional patterns occurring in input, in structural preferences in language produc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corpus analysis and a sentence completion experiment were conducted. Specifically, thirty-six Korean-speaking adult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in which they read and completed sentence fragments including either a scrambled or an in-situ *wh*-phrase. When the participants generated questions, they attached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to a verb as soon as possible after encountering the *wh*-phrase, suggesting an active dependency formation mechanism. This finding supports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a major account for the processing of filler-gap dependencies, but does not support any effect of the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Key Words:** filler-gap dependency, active filler strategy, language experience, *which*-question, sentence completion

## 1. Introduction

Previous studies on sentence processing have been interested in the mechanism for resolving the dependency relationship formed between a filler such as a fronted *wh*-phrase and its gap (its canonical position). For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Dong-A University in 2019.

example, in (1), the dependency formed between the filler, which is the displaced phrase *which student*, and its gap position must be resolved for comprehension, but this process is not always easy for readers during real-time sentence processing.

(1) Which student did John say that Mary read a book to \_\_?

Much of this research has provided evidence for *active dependency formation* (Aoshima, Philips and Weinberg, 2004; Crain and Fodor, 1985; Frazier and Clifton, 1989; Pickering and Traxler, 2003; Staub, 2010; Stowe, 1986). In active dependency formation, the parser will search for a gap position immediately upon encountering a filler (i.e., *which student*). This is called the Active Filler Strategy (e.g., Frazier and Clifton, 1989). Following this view, many researchers have broadly agreed that readers resolve such dependencies through incremental sentence processing guided by active dependency formation.

On the other hand, an emerging body of literature on sentence processing has focused on the effect of readers' language experience in underlying processing mechanisms. A wide variety of relevant theories propose that an incremental processing mechanism is guided by probabilistic expectations for sentences, and such expectations are generated by the distributional patterns occurring in language input (Hale, 2001, 2003, 2006; Levy, 2008). This leads to the assumption that readers' experience of syntactic structures throughout their lives might play an influential role in the processing mechanism. Yet despite the strong research interest in the role of language experience in incremental sentence processing, there is little cross-linguistic research on the topic. In the Korean context, studies in this area are quite scarce (e.g., Yun et al., 2015), and a very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role of language experience in experiments in which participants must generate *wh*-constructions rather than simply comprehend sentences (e.g., see Atkinson et al., 2016 for a review and discussion).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the role of language experience in adult Korean speakers' generation of Korean *wh*-constructions that include filler-gap dependencies.

## 2. Background

### 2.1 Processing *Wh*-Constructions

The language processing literature offers two competitive accounts for how the processing mechanism functions during real-time sentence comprehension. One account argues that the parser engages in an active search to resolve dependencies encountered during processing. The revisited example in (2) shows a long-distance dependency between a fronted constituent, the filler (*which student*), and its canonical position, the gap (marked by the underscore), a so-called filler-gap dependency (Frazier, 1987).

(2) Which student does John think that Mary met \_\_\_?

Previ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he parser actively and immediately seeks the fronted *wh*-phrase's original position (Aoshima, Philips and Weinberg, 2004; Crain and Fodor, 1985; Frazier and Clifton, 1989; Frazier, 1987; Omaki and Schulz, 2011; Pickering and Traxler, 2003; Staub, 2010; Stowe, 1986; Wagers, Borja and Chung, 2015). In particular, Stowe's (1986) reading time analysis formed the basis for her proposal of a Filled Gap Effect. Using an eye-tracking paradigm, she found slower reading times at a direct object position (*us* in [3b]) right after a *wh*-phrase (*who*) relative to a direct object position (*us* in [3a]) that does not follow a *wh*-phrase.

- (3) a. My brother wanted to know if Ruth will bring us home to Mom  
at Christmas.  
b. My brother wanted to know who Ruth will bring us home to \_ \_  
at Christmas.

The observation of this Filled Gap Effect – the slowdown – indicates that the parser begins actively searching for the gap as soon as the filler is

encountered.

This line of research has been extended to test this hypothesis in head-final languages like Japanese and Korean, *which*, although they canonically keep *wh*-phrases in-situ, also allow them to be scrambled.<sup>1)</sup> Japanese has an interesting property in forming *wh*-constructions: the scope of Japanese *wh*-constructions is determined by the position of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whereas the scope of English *wh*-constructions is determined by the position of the *wh*-phrase). This case-marking system allows the *wh*-phrase to be scrambled. Aoshima et al. (2004) exploited these properties of Japanese in a word-by-word self-paced reading study that manipulated the position of the *wh*-phrase (i.e., in-situ vs. scrambled conditions) and the types of complementizer in the embedded clause verbs (declarative complementizer vs. question-marking particle), as shown in Table 1. In the two word-order conditions, the question particle *-ka* is attached to the embedded clause verb (i.e., *read* in [c] and [d]) to form an indirect question, or attached to the main clause verb (i.e., *said* in [a] and [b]) for a direct question.

---

1) I agree with one reviewer's concern that Korean *wh*-scrambling constructions are not an exact structural counterpart to English *wh*-constructions. This study adopted the term "filler-gap dependency" as it is broadly used in psycholinguistics for cross-linguistic comparisons.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filler and gap refer to the moved element (filler, *wh*-phrase) and its trace (gap) respectively, in Korean scrambled *wh*-constructions specifically, including the displacement of the *wh*-phrase (see Hahn & Hong, 2014 for discussion). The reviewer also pointed out the lack of a syntactic explanation for these Korean scrambled constructions. Such a discussion is beyond the scope of this study, but I agree that it should be taken up in future research.

1	2	3	4	5	6	7	8
<i>a. Scrambled, Declarative Complementizer</i>							
Dono-seito-ni	tannin-wa	koocyoo-ga	hon-o	yonda-to	tosyositu-de	sisyo-ni	iimasita-ka?
<i>which student-dat</i>	<i>class teacher-top</i>	<i>principal-nom</i>	<i>book-acc</i>	<i>read-DeclC</i>	<i>library-at</i>	<i>librarian-dat</i>	<i>said-Q</i>
<i>b. In situ, Declarative Complementizer</i>							
Tannin-wa	koocyoo-ga	dono-seito-ni	hon-o	yonda-to	tosyositu-de	sisyo-ni	iimasita-ka?
<i>class teacher-top</i>	<i>principal-nom</i>	<i>which student-dat</i>	<i>book-acc</i>	<i>read-DeclC</i>	<i>library-at</i>	<i>librarian-dat</i>	<i>said-Q</i>
‘Which student did the class teacher say to the librarian at the library that the principal read a book for?’							
<i>c. Scrambled, Question Particle</i>							
Dono-seito-ni	tannin-wa	koocyoo-ga	hon-o	yonda-ka	tosyositu-de	sisyo-ni	iimasita.
<i>which student-dat</i>	<i>class teacher-top</i>	<i>principal-nom</i>	<i>book-acc</i>	<i>read-Q</i>	<i>library-at</i>	<i>librarian-dat</i>	<i>said</i>
<i>d. In situ, Question Particle</i>							
Tannin-wa	koocyoo-ga	dono-seito-ni	hon-o	yonda-ka	tosyositu-de	sisyo-ni	iimasita.
<i>class teacher-top</i>	<i>principal-nom</i>	<i>which student-dat</i>	<i>book-acc</i>	<i>read-Q</i>	<i>library-at</i>	<i>librarian-dat</i>	<i>said</i>
‘The class teacher said to the librarian at the library which student the principal read a book for.’							

Figure 1. A sample set of Aoshima et al.’s (2004) experimental sentences<sup>2)</sup>  
 (Adopted from Aoshima et al., 2004:30)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would predict that the parser will immediately search for the gap position right after the *wh*-phrase *which student* is identified, with the result that a slowdown would appear at Region 5 (*read*). Aoshima et al.’s findings bear out this hypothesis: in both scrambled (a) and (c) and in-situ (b) and (d) conditions, they found slower reading times with the declarative complementizer (a–b) than with the question particle (c–d). They concluded that the readers expected a question-marking particle right after they encountered either a fronted *wh*-phrase or an in-situ *wh*-phrase, and were therefore surprised to see the declarative complementizer on the embedded verb in (a) and (b). The authors interpreted the study’s results as demonstrating that the Japanese readers immediately searched for the question particle once they had seen the *wh*-phrase, regardless of its position (i.e., in-situ *wh*-phrase vs. scrambled *wh*-phras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underlying processing mechanism for *wh*-constructions is guided by active dependency formation in Japanese just as it is in English.

Working in another head-final language, Korean, Hahn and Hong (2014) replicated Aoshima et al.’s (2004) study, with a minor revision of the experimental sentences (Figure 2): Instead of a *which*-phrase, they used *nuwkwu-eykey* ‘whom.’<sup>3)</sup> In addition, Korean, which has several

2) acc=accusative; dat=dative; decl=declarative; declc=declarative complementizer; nom=nominative; top=topic marker; q=question-marking particle

question-marking particles, uses different form in different clause types (i.e., *-ni* with a main clause verb and *-nunci* with an embedded clause verb). Hahn and Hong found a relative slowdown at the declarative complementizer of the embedded clause verb (Region 5) in the in-situ conditions ([2] and [4] in Figure 2), but not at the declarative complementizer of the embedded clause verb in the scrambled conditions ([1] and [3] in Figure 2). Thus, their findings only partially confirmed the predictions of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However, their use of the different lexical item (*who* instead of *which student*) in the experimental sentences may have led to the apparent difference in results between Japanese and Korea. This issue will be further discussed in section 2.3 and section 5. Therefore, to allow a more precise comparison, the current study uses exact Korean translations of the Japanese experimental sentences in Aoshima et al.'s (2004) study.

Conditions	Region							
	1	2	3	4	5	6	7	8
1 Scrambled/ DeclComp	nwkwu- eykey <i>who-dat</i>	tamim- un <i>teacher- top</i>	[kyocang- i <i>principal- nom</i>	chayk-ul <i>book-acc</i>	ilkecuwess- tako] <i>read- DeclC</i>	ecey <i>yesterday</i>	sase- eykey <i>librarian- dat</i>	malhayss- ni? <i>said-Q</i>
2 In-situ/ DeclComp	tamim- un <i>teacher- top</i>	[kyocang- i <i>principal- nom</i>	nwkwu- eykey <i>who-dat</i>	chayk-ul <i>book-acc</i>	ilkecuwess- tako] <i>read- DeclC</i>	ecey <i>yesterday</i>	sase- eykey <i>librarian- dat</i>	malhayss- ni? <i>said-Q</i>
3 Scrambled/ Q-particle	nwkwu- eykey <i>who-dat</i>	tamim- un <i>teacher- top</i>	[kyocang- i <i>principal- nom</i>	chayk-ul <i>book-acc</i>	ilkecuwess- nunci] <i>read-Q</i>	ecey <i>yesterday</i>	sase- eykey <i>librarian- dat</i>	malhayss- ta <i>said-Decl</i>
4 In-situ/ Q-particle	tamim- un <i>teacher- top</i>	[kyocang- i <i>principal- nom</i>	nwkwu- eykey <i>who-dat</i>	chayk-ul <i>book-acc</i>	ilkecuwess- nunci] <i>read-Q</i>	ecey <i>yesterday</i>	sase- eykey <i>librarian- dat</i>	malhayss- ta <i>said-Decl</i>

Figure 2. A sample set of Hahn and Hong's (2014) experimental sentences (Taken from Hahn and Hong, 2014:70)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e existing research thus far suggest that readers' active dependency formation facilitates the resolution of filler-gap

- 
- 3) Korean *wh*-phrases can often be interpreted as either indefinites or interrogatives. For example, a translation of Aoshima et al.'s (2004) 'which student' would be *enu haksayng-eykey*, but this can mean either 'to which student' or 'to a certain student' (Sohn, 1994). For this reason, Hahn and Hong (2014) chose *nwkwu-eykey* 'to whom', after finding in a preliminary study that *nwkwu* 'who' shows a strong tendency to be interpreted as the interrogative.



dependencies in real-time sentence processing in English and Japanese but not in Korean. This inconsistency raises a question of why English and Japanese, but not Korean, would share the same processing mechanism. A possible explanation may be provided by a different account, which is that readers' probabilistic predictions, based on their language experience, determine their preferences for structure.

## 2.2 Language experience

Despite the great interest in incremental sentence processing, only a few studies have examined how readers' experience of the syntactic structures that occur in the input might be tied to their processing (e.g., Hale, 2001; Levy, 2008). If input teaches the parser to expect certain structures, then readers' language experience should affect how they tend to resolve dependencies such as those formed between a fronted *wh*-phrase and its gap position. Among the few studies that have investigated this topic, Roland et al. (2007) conducted a corpus analysis of five adult corpora. They found that subject relative clauses occurred more frequently than other relative clause types (34% of the 196,385 relative clauses). Their findings suggest that, if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leads them to build the most frequent relevant structure during their comprehension or production, the lower frequency of object relatives would lead readers to predict subject relatives, leading to slowdown when that prediction was violated. This assumption has been confirmed in a series of studies. For example, Staub (2010) tested the role of readers' expectations in processing object relative clauses, using an eye-tracking paradigm. According to Staub, when readers processed the sentences in (4), the sum of all fixations on *the fireman* as in (4b) was significantly longer in object relative clauses (4a) than in subject relative clauses (4b) due to the violation of readers' expectation for a subject noun phrase right after *that*.

- (4) a. The employees that noticed the fireman hurried across open field.  
 b. The employees that the fireman noticed hurried across open field.

Expanding this line of research cross-linguistically, Jäger et al. (2015) recently investigated the role of language experience in a Chinese context. They first conducted a distributional analysis of Chinese relative clauses using a Chinese tree bank, and they then conducted a sentence completion task. They found that, as in English, subject relative clauses were the most frequent in the input, and that L1-Chinese adults preferred to use subject relatives to complete sentences in the task.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s of probabilistic expectation accounts, but there is still insufficient research to conclude that the effects of probabilistic expectation are similar across different types of syntactic structures.

A recent study by Atkinson et al. (2018), although focusing on children's development, indicates that adult readers' language experience influences their processing of filler-gap dependencies. Using several English adult corpora, they found that, of 546 *what* questions, 474 contained a direct object gap (86.8%). This finding indicates the frequency of direct-object gap *what* questions (i.e., *what are you crawling on \_\_\_?*) and suggests that adults' linguistic experience would bias them to expect *what* questions to be direct object questions. The results of Atkinson et al.'s eye-tracking study suggest that such probabilistic predictions do affect readers' processing during language comprehension. Of course, *what* questions have a semantic bias toward being direct object questions, so more research examining other types of question (e.g., *which* and *who* questions) is needed before any generalizations can be made.

It is possible that some findings from previous studies could be explained by the probabilistic prediction account. For example, Stowe's (1986) results showed that reading times are slower at the direct object position after a *wh*-phrase when it is not a gap (i.e., *us* in [3b]); the slowdown could be explained by the readers' experience – in which direct object questions are more frequent than other types of questions – which leads the readers to favor the direct object interpretation, and thus to expect a gap instead of *us*. When their expectation is violated, they are surprised, resulting in slower reading. Thus, linguistic experience may play a role in a plausible explanation for readers' processing mechanisms in incremental sentence comprehension. More specifically, the processing of filler-gap dependencies

could be guided by the frequency of different structures in the input that has formed readers' language experience. To explore this possibility, particularly with the Korean scrambled *wh*-constructions of Korean context, the current study will test the predictions of the two accounts with a sentence completion task that will lead participants to generate Korean *wh*-constructions.

### 2.3 Korean *which*-questions in the language input

For a more precise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findings, the current study uses exact Korean translation (i.e., *enu*-phrase) of the Japanese *which*-questions. Korean, as mentioned, is a head-final language. Korean *wh*-constructions have two well-known syntactic properties. First, Korean *wh*-phrases are in-situ structures, which do not involve overt movement, as in (5a), but the *wh*-phrase can be scrambled, as in (5b), with no change in meaning.<sup>4)</sup> Second, *wh*-scope marking is determined by a question-marking particle (i.e., *-ni*), which is affixed to the verb.<sup>5)</sup> In contrast, in English it is the position of a *wh*-phrase that determines *wh*-scope marking via the overt movement of *wh*-phrases.<sup>6)</sup>

- (5) a. Mary-ka sakwa-lul enu namca-eykey cwuess-ni?  
 Mary-nom apple-acc which man-dat gave-q  
 b. Enu namca-eykey Mary-ga sakwa-lul cwuess-ni?  
 which-man-dat Mary-nom apple-acc gave-q  
 'Which man did Mary give an apple?'

4) Scrambling is possible due to the case-marking system (i.e., *-(l)ul* for the accusative marker; *-ga/-i* for the nominative marker), which marks the thematic role of each argument.

5) Korean has many question particles. For this study, we use the question particles *-ni* and *-ci* for the test sentences because of their frequency.

6) In English, the scope of *wh*-questions is determined by the position of the *wh*-phrase at the surface level. For a direct question, English *wh*-phrases need to move to the initial position of a sentence, whereas for an indirect question, they need to move to the initial position of the embedded clause. For example:

- a. Who did John say that Mary read a book to?  
 b. John said who Mary gave a book to.

The sentences in (6) provide examples. In a direct question,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ni* is affixed to the main clause verb (6a), whereas in an indirect question,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ci* is attached to the embedded clause verb (6b).

(6)

a. Direct question

Mary-nun John-i enu haksayng-eykey chayk-ul cwetta-ko malhayss-ni?  
Mary-top John-nom which student-dat book-acc gave-decl said-q?  
'Which student did Mary said that John gave a book to?'

b. Indirect question

Mary-nun John-i enu haksayng-eykey chayk-ul cwennun-ci malhayss-ta.  
Mary-top John-nom which student-dat book-acc gave-q said-decl  
'Mary said which student John gave a book to.'

Semantically, a Korean *wh*-phrase also can be interpreted as either an interrogative or an indefinite, regardless of its position (i.e., in-situ vs. scrambled; Sohn, 1994; Choi, 2005). This thematic assignment is determined by the sentence context. This usage of Korean *wh*-phrases might lead to inconsistencies in the predictions of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in comparison with English.

Considering these properties, this study first conducted a corpus analysis to document frequency patterns for *enu*-phrase constructions to understand how Korean readers' probabilistic expectations might play a role in their production of Korean *wh*-constructions. The tokens of *enu*-phrases in the Sejong Corpus<sup>7)</sup> of adult spoken language (2,050,000 words) were

---

7) This has produced the *Sejong* Corpus, the largest corpus of Korean language data as of 2004" (Bley-Vroman and Ko 2005: 258). Sejong Corpus includes both written and spoken language. This study used only the spoken language corpus, which consists of the scripts of TV dramas and news. Such spoken data is arguably the closest to the "spontaneous" naturalistic language output that shapes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e.g., Wallis, 2014). However, the corpus analysis on the written data also needed to be included for generalizing the finding of the spoken data, as one reviewer commented.

counted using a corpus concordance program, MonoConc Pro (version 2.2), which extracted a total of 500 bi-clausal sentences including *enu*-phrases. These were then categorized as interrogatives and indefinites, as Table 1 shows. In-situ constructions were much more frequent than scrambled constructions in the corpus.<sup>8)</sup> Of the 496 in-situ constructions, the *enu*-phrase received the interrogative interpretation 29.2% of the time (146 out of 500), whereas it received the indefinite pronoun interpretation 70% of the time (350 out of 500). This differ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 $p < .0001$ ).

The more interesting matter for this analysis is the frequency of question-marking particles affixed to the embedded clause verb and to the main clause verb. In the 146 interrogative sentences<sup>9)</sup> with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it appeared at the embedded clause verb 52.7% of the time (77 out of 146), and at the main clause verb 46.3% of the time (69 out of 146). This difference, howeve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 $p > 1$ ).<sup>10)</sup>

---

8) As Table 1 shows, very few scrambled sentences appeared. One of the reviewers expressed a concern that scrambled sentences rarely occur in speech due to the prosodic features (e.g., stress, pause, and intonation) of spoken language. The relevant discussion remains a question for further research.

9) The corpus data sample size (i.e., 146 sentences) might not be enough to generate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of *wh*-constructions, so one reviewer suggested including various other *wh*-phrase constructions from the corpus. However, this study aimed to provide evidence for cross-linguistic comparisons by using *wh*-phrases similar to those used in previous studies (i.e., *which*).

10) A reviewer raised the question of why the spoken corpus data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question-marking particles affixed to embedded clause verbs and to main clause verbs. Although a clear explanation cannot be provided in this study, I agree that this must be explored in further research.

Table 1. Distribution of Korean *enu*-phrase constructions

	Indefinite		Interrogative		Total
		Total	Embedded clause	Main clause	
Scrambled	0	0 (0%)	1	3	4 (0.8%)
In-situ	350	350 (70%)	77	69	146 (29.2%)

This finding implies that *enu*-phrases preferentially receive the indefinite pronoun interpretation in in-situ constructions even though *enu*-phrases are frequently interpreted as the interrogative. Due to the linguistic experience of Korean-speaking adults implied by the corpus findings, this study makes two different predictions for the participants' generation of Korean *wh*-constructions in the study's sentence completion task. Examples of task items appear in Table 2.

Table 2. A sample set of experimental items

Condition	Sentence fragment		
In-situ	John-un	Mary-ka	<i>enu</i> haksayng -eykey...
	John-top	Mary-nom	which student -dat
Scrambled	Enu haksayng -eykey	John-un	Mary-ka...
	which student -dat	John-top	Mary-nom

The specific predictions are as follows. If the processing mechanism is guided by the readers' probabilistic expectations from the language input, the participants will generate more declarative sentences, in which the *enu*-phrase receives the indefinite pronoun interpretation, than interrogative sentences. For example, the declarative complementizer will be attached to the embedded clause verb or the matrix clause verb right after the *enu*-phrase is identified, regardless of whether the *enu*-phrase is in-situ or scrambled. However, if the *enu*-phrases are treated as interrogatives, the participants will display no preference for attaching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to either the embedded clause verb or the main clause verb. On the other hand, if the processing mechanism is guided by the Active Filler

Strategy, once the *enu*-phrase is identified, regardless of whether it is in-situ or scrambled, the participants will produce an indirect question by immediately attaching a question-marking particle to the embedded clause verb in order to resolve the scope ambiguity of the *enu*-phrase. Table 3 summarizes the predictions for where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will occur based on the two accounts.

Table 3. Predictions based on the two accounts

	In-situ condition (control)		Scrambled condition (experimental)	
	Embedded clause	Main clause	Embedded clause	Main clause
Active Filler Strategy	√	–	√	–
Probabilistic prediction	√	√	–	–

*Note.* If the theory makes a prediction, the cell is marked √; if the theory cannot make a prediction, the cell is marked –.

### 3. Methods

#### 3.1 Participants

Thirty-six Korean college students (19 women and 17 men; mean age: 22.27,  $SD = 1.3$ , range: 19–26)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They were asked to complete sentences after reading given sentence fragments. Twelve experimental items (6 for in-situ conditions; 6 for scrambled conditions) were presented in a randomized order with 12 filler items, so that participants completed a total of 24 sentences.

#### 3.2 Materials and Procedures

The sentence completion task utilized two experimental conditions. Experimental items were sentence fragments with a sequence of three phrases. The materials were similar to those used by Aoshima et al. (2004),

to enable a cross-linguistic comparison. As the revisited experimental items in Table 4 show, in the two conditions, the experimental items included two subject NPs and one dative-marked NP, which was always an *enu*-phrase (i.e., *John-un Mary-ka enu haksayng-eykey...*). The two subject NPs made the sentence bi-clausal, and, along with the presence of an *enu*-phrase, allowed the participants to decide whether to complete it as a direct question with a main clause question-marking particle, or as an indirect question with an embedded clause question-marking particle.

Table 4. A sample set of experimental items

Condition	Sentence fragment		
In-situ	John-un	Mary-ka	enu haksayng -eykey...
	John-top	Mary-nom	which student -dat
Scrambled	Enu haksayng -eykey	John-un	Mary-ka...
	which student -dat	John-top	Mary-nom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as a pen-and-paper task.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first read the fragment and then to complete the sentence, and to create sentences that were grammatically and semantically acceptable. The task took 25 minutes.

## 4. Results

### *Clause number*

First, monoclausal sentence completions (0.5%; 24 out of 432) were removed from the dataset. The remaining sentence completions were categorized as bi-clausal. Only bi-clausal completions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because such sentences are relevant for testing the hypotheses described in the previous section. In 113 of the 408 bi-clausal sentences generated in the task, the *wh*-phrase had an existential interpretation as in (7); these were also excluded, because *enu kaswu-eykey* is interpreted



as the argument of the matrix verb, but not that of the embedded verb.<sup>11)</sup> The remaining 295 sentences were included for further analysis.

- (7) Enukaswu-eykey umpan ceycakca-nun cakkokka-ka hithukok-ul  
 which singer-dat music producer-top composer-nom hit song-acc  
 cal mantunta-nun sasil-ul malhayss-ta.  
 well made-that fact-acc said-decl  
 'A music producer said to a certain singer the fact that a composer  
 made a hit song well.'

### *Question-marking particle*

Next, the sentence completions were divided into those that used the *enu*-phrase as an indefinite and those that used it as an interrogative. Figure 3 summarizes the frequency of the semantic meanings by the position of the *enu*-phrase. Sentence completions that included declarative complementizers with either the embedded clause or the main clause verb occurred 71.8% of the time (210 out of 295), whereas sentences including at least one question-marking particle were produced 28.2% of the time (85 out of 295). That is, the participants preferred to use the *enu*-phrase as an indefinite word rather than an interrogative word.

---

11) Although the existential interpretation as in (7) was excluded, the indefinite interpretation was included for further analysis, with the goal of providing a specific description of how *wh*-phrases are used in order to more specifically describe the role of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in their generation of *wh*-constru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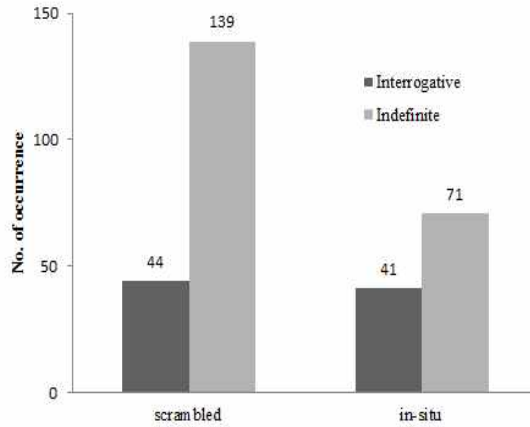


Figure 3. Interpretation of *enu*-phrases in scrambled and in-situ conditions

As in Figure 3, the *enu*-phrase was mostly assigned the indefinite word interpretation – and more so in the scrambled condition than in the in-situ condition. These results mirror the distributional pattern found in the Sejong spoken corpus, in that they were mainly used as indefinites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the *enu*-phrases, but the indefinite interpretation was even more frequent for scrambled than in-situ phrases, as exemplified in (8). On the other hand, as exemplified in (9), the *enu*-phrase was often associated with the embedded clause via the affixation of *-ci*, thus forming an indirect question including the dependency between the *enu*-phrase and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at the embedded clause verb.

- (8) Enu tokca-eykey coswu-nun cakka-ka cakphwum-ul keyu  
 which-reader-dat assistant-top writer-nom a novel-acc almost  
 wansenghayssta-ko malhayss-ta.  
 finished-decl said-decl  
 ‘The assistant said to a certain reader that a writer almost finished a novel.’

- (9) Enu hwanca-eykey uysa-nun kanhosa-ka sathang-ul cwennun-ci  
 which patient-dat doctor-top nurse-nom a candy-acc gave-q  
 kwungkumhayss-ta.  
 wondered-decl  
 'A doctor wondered which patient a nurse gave a candy to.'

This finding is itself of interest, but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more important question of whether the underlying processing mechanism is guided by the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Therefore, a more detailed analysis was conducted of only the 85 interrogative interpretations. As Table 5 shows, in the 85 interrogative sentences,<sup>12)</sup>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appeared at the embedded clause verb 48.24% of the time (41 out of 85) in the in-situ conditions, and 51.78% of the time (44 out of 85) in the scrambled conditions. This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 $p > 1$ ). This finding shows that once the *enu*-phrase was identified as an interrogative, regardless of its position (in-situ vs. scrambled), the readers tended to affix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to a verb as soon as possible, that is, to the embedded clause verb, to resolve the scope ambiguity of the interrogative.

Table 5. Occurrences and rates of question-marking particles in interrogative sentences:  
 In-situ and scrambled conditions

	In-situ condition		Scrambled condition	
	Embedded clause	Main clause	Embedded clause	Main clause
No. of occurrences	41	0	44	0
%	48.24%	0	51.78%	0

(10) shows examples of such sentences, in which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is associated with the embedded clause verb (*gave*) in both

12) One of the reviewers questioned whether all 85 sentences were truly interrogatives, noting that, for example, "Na-nun ku-ka mwues-ul mekennun-ci kwungkum-hata" can be interpreted as *I wonder what he ate* or *I wonder whether he ate something*. Such sentences, however, were already excluded due to the ambiguity in the interpretations.

conditions.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would predict that the readers would immediately search for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as soon as they had identified an *enu*-phrase. This prediction was confirmed by the data from Korean adult participants' generation of *wh*-constructions, in which, when they produced questions, they preferred to affix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as soon as possible.

(10) a. In-situ condition

John-un Mary-ka enu chinkwu-eykey sathang-ul cwuessnun-ci  
 John-top Mary-nom which friend-dat candy-acc gave-q  
 malhayss-ta.  
 said-decl.  
 'John said which friend Mary gave a candy to.'

b. Scrambled condition

Enu sungkayk-eykey sungmwuwen-un coongsa-ka sathang-ul  
 which-passenger-dat crew-top pilot-nom candy-acc  
 cwessnun-ci malhayss-ta.  
 gave-q said-decl  
 'A crew said which passenger a pilot gave a candy to.'

## 5. Discuss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dictions of two competing accounts of how Korean *wh*-constructions are processed. It focused on whether the underlying processing mechanism was guided by active dependency formation or by readers' probabilistic expectations based on the frequency of alternate syntactic structures in the language input. In the corpus data, Korean speakers used the *enu*-phrase as an interrogative word 28.2% of the time (85 out of 295 cases). This finding indicates that while Korean speakers prefer to interpret the *enu*-phrase as an indefinite word, it is also frequently used as an interrogative word in the case.

A more interesting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in interrogative sentences, both in-situ and scrambled *enu*-phrases were associated with embedded clause verbs. As exemplified in (10), the Korean-speaking participants completed the sentences by immediately attaching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at the most adjacent verb (i.e., the embedded clause verb) once they had identified the *enu*-phrase. This finding is in line with the prediction of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indicating that the underlying processing mechanism is guided by active dependency formation.

To summarize, the major finding is that Korean-speaking adults immediately formed filler-gap dependencies in generating *wh*-constructions, confirming the finding in Aoshima et al.'s (2004) comprehension study during real-time processing.<sup>13)</sup> However, no significant effect of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was found in this study. While native Korean-speaking adults most frequently use an *enu*-phrase as an indefinite pronoun (i.e., *a certain student*), once they interpreted an *enu*-phrase as an interrogative word, they immediately tried to form the filler-gap dependency. They completed the indirect questions including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at the embedded clause verb regardless of its position, as shown in (10). This finding confirmed the prediction of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and furthermore, showed that Korean *which*-questions and Japanese *which*-questions might share the same mechanism for resolving scope ambiguity in the processing of *wh*-constru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raise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why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did not affect their processing of Korean *wh*-constructions. This finding was unexpected, in light of the observation that almost equal numbers of question-marking particles appeared at embedded clause verbs and main clause verbs (77 vs. 69) for the resolution of scope marking in the corpus data (Table 1). Therefore, language experience cannot explain why all the question-marking particles were

---

13) One reviewer concerned that the finding in both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studies cannot be exactly comparable, but this comparison is worth to identify the effect of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on the underlying mechanism operated in processing *wh*-constructions.

attached to the embedded clause verbs in the interrogative sentences generated in this study's experiment. A plausible explanation might be that the resolution of scope-marking in Korean might be related not only to the semantic meaning of the *enu*-phrase but also to its syntactic properties. Korean is a discourse-oriented language, hence a language comprehender's interpretation of an *enu*-phrase will be inconclusive until s/he understands its context. In addition, a question-marking particle is not syntactically obligatory following an *enu*-phrase, due to its different meanings (i.e., indefinite vs. interrogative), in contrast to the case of the Japanese *wh*-phrase used in Aoshima et al.'s (2004) study, which requires a co-occurring question-marking particle. The importance of context, the nonobligatory nature of the question-marking particle, and the *enu*-phrase's potentially different meanings together might lead to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having no effect on their generating of scrambled *wh*-constructions. This in turn would suggest that the amount of input might not be enough to generate readers' probabilistic expectations, a possibility suggested by Atkinson et al. (2018), who also pointed out that children's ability to use linguistic information that they have learned from frequency patterns in the input might be limited when children comprehend or produce *wh*-constructions. This question might be investigated in the Korean context for further research.

The second question is why the prediction of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was confirmed in the current study's production task (i.e., sentence completion), but not in Hahn and Hong's (2014) online comprehension task. Hahn and Hong found only partial confirmation of the prediction of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in the in-situ condition but not in the scrambled condition. This inconsistency in Korean contexts might be due to the studies' different task types (i.e., online comprehension vs. offline sentence completion tasks). If working memory plays a role in the processing of Korean *wh*-constructions, then differences in participants' working memory capacity might influence the operation of the Active Filler Strategy. For example, readers with more limited working memory capacity might have more difficulty in online sentence processing, when they would need to hold in mind the information they have already encountered while

processing upcoming words. This suggests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which should examine the role of working memory capacity in processing such filler-gap dependencies in Korean contexts, as well as in adults' ability to use the linguistic information they have learned from frequent patterns in language input.

## 6. Concluding Remarks

This paper tested the role of readers' language experience in generating Korean *wh*-constructions in comparison with the role of the Active Filler Strategy, a major account for the processing of filler-gap dependencies. The findings showed no effect of language experience; rather the readers preferred to immediately form a filler-gap dependency, in accord with the predictions of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when generating Korean *wh*-construction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English, Japanese, and Korean share a similar mechanism for the processing of scrambled *wh*-constructions. The study's results further help resolve an issue raised by Hahn and Hong's (2014) replication study, which partially confirmed the prediction of the Active Filler Strategy hypothesis. However,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to fully understand the role of several factors that might be involved in processing filler-gap dependencies, including readers' linguistic experience.

## References

- Aoshima, S., Philips, C., & Weinberg, A. (2004). Processing filler-gap dependencies in a head-final language.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1*, 23-54.
- Atkinson, E., Wagers, M., Lidz, J., Philips, C., & Omaki, A. (2018). Developing incrementality in filler-gap dependency processing. *Cognition*, *179*, 132-149.
- Choi, J. (2005). A corpus-based approach to the Korean *wh*-question words *mwusun* and *enu*: A pedagogical perspective. In R. Bley-vroman, & H. Ko (Eds.) *Corpus*

- Linguistics for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p. 107–147).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Second Language Teaching & Curriculum Center.
- Crain, S., & Fodor, J. D. (1985). How can grammars help parsers? In D. R. Dowty, & L. Karttunen, & Zwicky, M. (Eds.). *Natural Language Parsing: Psychological, Computation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pp. 92–12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zier, L. (1987). Syntactic processing: Evidence from Dutc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s Theory*, 5, 519–560.
- Frazier, L., & Clifton, C. (1989). Successive cyclicity in the grammar and the parser.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4, 93–126.
- Hahn, H., & Hong, S. (2014). Processing scrambled Wh-Constructions in head-final languages: Dependency resolution and feature checking. *Language and Information*, 18(2), 59–79.
- Hale, J. (2001). A probabilistic early parser as a psycholinguistic model. In *Proceedings of the 2nd Meeting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on Language Technologies* (pp. 159–166). Pittsburgh, PA: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Hale, J. (2003). The information conveyed by words in sentence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2(2), 101–123.
- Hale, J. (2006). Uncertainty about the rest of the sentence. *Cognitive Science*, 30(4), 643–672.
- Jäger, L., Chen, Z., Li, Q., Lin, C., & Vasishth, S. (2015). The subject-relative advantage in Chinese: Evidence for expectation-based processing.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80(1), 97–120.
- Levy, R. (2008). Expectation-based syntactic comprehension. *Cognition*, 106, 1126–1177.
- Omaki, A., & Schulz, B. (2011). Filler-gap dependencies and island constraints in second language sentence processing.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3, 563–588.
- Pickering, M. J., & Traxler, M. J. (2003). Evidence against the use of subcategorisation frequency in the processing of unbounded dependencies.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8(4), 469–503.
- Roland, D., Dick, F., & Elman, J. L. (2007). Frequency of English grammatical structures: A corpus analysis.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7(3), 348–379.
- Staub, A. (2010). Eye movements and processing difficulty in object relative clauses. *Cognition*, 116(1), 71–86.
- Sohn, H. (1994). *The Korean langua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we, L. E. (1986). Parsing wh-constructions: Evidence for on-line gap locati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3), 227–245.
- Wagers, M., Borja, M. F., & Chung, S. (2015). The real-time comprehension of *wh*



- dependencies in a *wh*-agreement language. *Language*, 91(1), 109–144.
- Wallis, S. (2014). What might a corpus of parsed spoken data tell us about language? *Proceedings of Olinco 2014* (pp.1–14). Czech Republic: Palacký University,
- Yun, H., Nam, Y., Yoo, D., & Hong, U. (2015). The effect of role shifting and expectation in the processing of center-embedded relative clauses in Korean. *Linguistic Research*, 32(2), 313–353.

**On-Soon Lee**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Dong-A University  
37 550beon-gil, Nakdongdae-ro, Saha-gu, Busan, South Korea, 49315  
Phone: 051-200-0924  
Email: oslee@dau.ac.kr

Received on July 31,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5, 2019

Accepted on September 30, 2019

# 언어학 투고규정

## 제1장 사용 언어

제 1조 『언어학』의 사용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로 한다.

### 제2장 논문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준수 및 게재 신청과 심사

제2조 『언어학』의 투고 자격은 원칙적으로 우리 학회 회원에게 주어지며, 한 사람의 필자는 한 해에 두 번까지 『언어학』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은 대한언어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3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를 결정한다.

제4조 『언어학』에 논문 투고 시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는 논문투고신청서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논문 심사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 받아 논문최종본을 제출할 때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논문최종수정본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3장 발간 일정

제5조 『언어학』은 1년에 4번 발행한다. 그 가운데 한 번은 국제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언어는 영어이다.

제6조 발간일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 (1) 봄호의 발간일은 3월 31일, 원고 마감일은 12월 31일이다.
- (2) 여름호의 발간일은 6월 30일, 원고 마감일은 3월 31일이다.
- (3) 가을호의 발간일은 9월 30일, 원고 마감일은 6월 30일이다.
- (4) 겨울호의 발간일은 12월 31일, 원고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

단, 상기 원고 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의 편수가 적정 수 이하일 경우에는 원고를 추가 접수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의 투고 시 학회 회원이 아닌 경우 먼저 학회에 입회원서를 내고 학회 입회비와 연회비(또는 평생회비)를 학회 재무이사에게 납부한 후 논문을 투고한다. 이미 학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료를 재무이사에게 납부한 후 논문을 투고한다. 논문 게재료는 출판사 편집본이 나온 후 논문 쪽수를 확인한 후 바로 납부한다.

제8조 모든 논문의 심사료는 60,000원으로 최초 논문투고 시 바로 납부하며, 심사 후 게재료는 일반 논문은 200,000원, 연구비 수혜 논문은 300,000원으로 게재확정 후 출판사 편

집본이 나온 후 납부한다.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원고의 길이가 20쪽을 넘을 때는 초과 1쪽 당 게재료 1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의 논문을 재심 받을 경우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불가' 판정 1건당 재심 심사료 2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해외 거주 학자는 회원, 심사 및 게재료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 대학원생 단독으로 투고하는 논문의 경우 심사료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

#### 제4장 원고의 제출 방법

제9조 원고는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JAMS)을 통해 제출한다.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 및 게재료를 재무이사에게 납부하고, 그 결과를 원고 제출과 동시에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제10조 국내 투고 원고는 '한글 2005' 이상으로 작성한다. 해외 투고 원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7' 이상으로 작성해서 낼 수 있다.

제11조 논문초록은 영어로 작성하고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되 그 길이는 주제어를 포함하여 200 단어 이상 250 단어 이하로 한다.

제12조 투고 논문의 논문작성양식은 별도로 제시하는 '언어학 논문작성 안내'를 따른다.

#### 제5장 원고의 발행 및 저작권

제13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확정된 논문을 학술지 『언어학』에 게재하여 발행한다.

제14조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을 대한언어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JAMS)을 통해 투고논문과 함께 저작권 활용 동의서(저작권재산권 양도 확인서)를 제출하여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 활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서약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 등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언어학』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대한언어학회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공개, 한국연구재단을 통한 논문 공개 등 논문의 공개 및 출판, 판매 등의 권한을 가지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일체는 대한언어학회에 귀속된다.

## 부칙

- 제15조 이 규정은 199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199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언어학 논문작성 안내

『언어학』에는 다음에 제시된 원고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된 원고, 표, 그림만을 실는다. 이 작성방법을 따르지 않은 원고는 심사에 회부하지 않는다.

우리 학회의 제출용 원고의 용지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글 상단 메뉴바에서 [쪽-편집용지]를 선택하고, 용지 종류를 [사용자정의]로 설정한 후 폭 170, 길이 235로 설정한다. 편집용지의 여백은 위쪽 22.5mm, 아래 22.5mm, 왼쪽/오른쪽 각 22.5mm, 머리말 10mm, 꼬리말 0mm로 설정한다. 각 쪽의 머리말, 쪽수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삽입한다.

## 논문제목

→ 논문제목: 한글 신명태명조, 영문 HCI Bellflower 16포인트, 줄간격 160, 가운데 정렬

〈두 줄 띄기〉

### 홍길동

→ 필자명: 윤고딕130, 10포인트, 줄간격 160, 가운데 정렬

※ 2명 공저자인 경우 ‘허균·홍길동’과 같이 한 줄로 제시하고, 반드시 각주에 제1저자가 누구이며 제2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누구인지 밝힌다. 영어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 공저자의 이름을 제시할 때 가운데띄점 대신 기호 &를 사용한다.

3인 이상 다수 공저자인 경우 논문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이름을 제시하고, 저자 각주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또는 교신저자)까지만 밝힌다.

영어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 저자 각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The first author is Gyun Heo and the second author (or corresponding author), Gil-dong Hong.’ 또는 Gyun Heo is the first author and Gil-dong Hong, the second author (or corresponding author).’

(대한대학교)

→ 소속학교명: 윤고딕120, 9포인트, 줄간격 160, 가운데 정렬

※ 공저자일 경우 ‘대한대학교·한국대학교’와 같이 제시한다. 영어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 공저자의 소속기관명을 제시할 때 가운데띄점 대신 기호 &를 사용한다.

<두 줄 띄기>

**Hong, Gildong. (2002). Paper titl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4), 00-00.** The abstract is a brief and comprehensive summary of your paper. The word limit is from 200 to 250 in one paragraph. Please remember that in many cases readers decide whether to read the rest of your research from looking at the abstract. Accordingly, give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your findings though the length is limited.

→ 초록: HCl Poppy, 9포인트, 줄간격 150, 좌우 여백 10, 양쪽 정렬

※ 길이 200~250 단어; 저자, (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 이름*, 게재 권(호), 게재 쪽수 등은 참고문헌 목록 작성 요령과 동일하다. 논문제목을 제시할 때 APA 양식에 따라 논문 제목의 첫 단어만 대문자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문자로 작성한다. 학술지명과 게재권수는 기울임체(이탤릭체)로 기재하고, 게재호수는 기울임 없는 일반글씨체로 제시한다.

**주제어(Key Words):** 에이피에이 스타일(APA stylesheet), 페이지 크기(page size), 표 (tables), 포맷(format)

또는

**Key Words:** APA stylesheet, page size, table, format

→ 주제어: 글자 크기 등 모양은 초록과 동일

※ **우리말 논문**인 경우 예시와 같이 우리말과 영문대역어를 함께 제시하고, **영어 논문**인 경우에는 영어로만 제시한다. 영어 주제어를 제시할 때 고유명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문자로 제시한다.

<두 줄 띄기>

## 1. 머리말 Introduction

→ 큰제목: 윤명조140, 13.5포인트, 줄간격 150, 문단 아래 10, 양쪽 정렬

이 글은 『언어학』에 실리는 원고의 양식을 보여 준다. 이 양식을 참고하면 손쉽게 양식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 본문서체: 한글 휴먼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50, 장평 90, 자간 -7, 들여쓰기 15, 양쪽 정렬  
영문 HCl Poppy 10포인트, 줄간격 150, 장평 99, 자간 -2, 들여쓰기 15, 양쪽 정렬

<두 줄 띄기>

## 2. 본문Methods in Detail

### 2.1. 여백과 쪽의 크기

→ 작은제목: HY크리스탈M, 10포인트, 줄간격 150, 문단 아래 10, 양쪽 정렬  
단원의 영문 제목은 대문자로 시작한다. 한글의 F7을 누르고 여백을 다음 표 1과 같이 맞춰준다. 표의 번호와 제목은 표 위에 가운데 정렬되어야 한다. 표 1과 여백을 맞춰주면 본문의 크기는 표 2와 같이 될 것이다.

<한 줄 띄기>

표 1. 원고의 여백

→ 캡션: 신명중고딕 7.8포인트, 양쪽 정렬

위/아래여백	머리/꼬리여백	좌우 여백
22.5mm	10mm/0mm	22.5mm

→ 표 안: 본문서체와 동일하며 9포인트, 가운데 정렬

※ 표번호와 제목을 표 위에 가운데 정렬로 제시, 표의 맨 윗선은 두 줄 보통 실선, 나머지 줄은 한 줄 실선이며, 좌우 선은 지운다.

표 2. 본문의 크기

폭	쪽 당 줄 수	줄 간격
11cm (4.33 inch)	62 columns	
16.2cm (6.38 inch)	34 lines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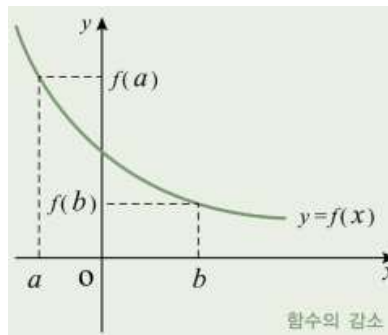


그림 1. 실험 결과

※ 그림번호와 설명을 그림 아래에 가운데 정렬로 제시하고, 그림과 설명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한 줄 띄기>

## 2.2. 표와 그림 Tables and Figures

위의 표 1에서처럼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표 번호와 함께 쓴다. 표 번호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하고, 번호 뒤에 마침표를 한다. 본문에서 표를 인용할 때에는 ‘표 1’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되 양쪽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다. 표 이외의 모든 이미지는 그림으로 처리한다. 그림의 제시는 위 ‘그림 1’과 같이 그림 아래에 가운데 정렬로 제시하며, 그림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 2.3. 문단과 예문 Paragraphs and Examples

문단은 세 문장 이상이 필요하다. 한 문단을 끝내고 새로운 문단을 시작할 때에는 빈 줄을 두지 않는다. 예문과 본문 사이에 빈 줄을 주나, 예문과 예문 사이에는 빈 줄이 없다. 예문의 작은 번호는 a. b.로 하며, 본문에서 예문을 인용할 때에는 (1a), (1b)와 같이 한다.<sup>1)</sup>

<한 줄 띄기>

(1) 예문과 예문 사이에는 빈 줄을 두지 않는다.

a. 예문

→ 예시문: 본문서체와 동일하며, 본문 문단의 들여쓰기에 맞춰 정렬

## 2.4. 각주 Footnote

각주와 각주, 각주의 본문 사이, 각주의 예문 사이는 띄지 않는다. 다만 각주 본문의 문단 위아래에 1mm의 간격을 둔다. 각주의 예문번호는 (i), (ii)와 같이 하며, 하위 예문번호는 a. b. c. 로 한다. 예문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번호를 주지 않는다.<sup>2)</sup>

## 2.5. 본문에서 인용 자료 표기 References in the Main Text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음은 대표적인 몇 가지 예이다.

- 
- 1) 이 편집규정은 9권 1호부터 적용된다. → 본문과 동일한 서체로 사용하며, 8.5포인트, 줄간격 145, 좌우 정렬, 각주와 각주 사이는 띄지 않음)
  - 2) 각주의 크기는 8.5포인트이고 줄 간격은 145로 한다. 각주와 각주 사이에는 1mm의 간격을 둔다. 각주의 본문과 예문 사이에는 1mm의 간격을 둔다.
    - (i) 각주의 예문 번호는 로마자 소문자로 한다.
    - (ii) a. 예문과 예문 사이에는 빈 줄을 넣지 않는다.
    - b. 각주에는 원칙적으로 표나 그림을 넣지 않는다.



- (2) 필자와 년도: Charlotte and Emily Bronte were polar opposites, not only in their personalities but ... writing (Taylor, 1990).
- (3) 필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 According to Irene Taylor (1990), the personalities of Charlotte. . .
- (4) 필자의 이름과 연도가 본문에 언급된 경우: 괄호 정보 필요 없음.
- (5) 직접인용: Emily Bronte “expressed increasing hostility for the world of human relationships” (Taylor, 1988, p. 11).
- (6) 두 저자는 본문에서 and로 연결되나 괄호에 인용할 때는 & 사용: Selection theory has been used to explore patterns of various insect mating (Alcock & Thornhill, 1983). In addition, Alcock and Thornhill (1995) also demonstrated that ...
- (7) 셋 이상 저자: Patterns of byzantine intrigue have long plagued the politics of college administration (Douglas et al., 1997).
- (8) 기관이 저자: Retired officers retain access to all of the university’s recreational facilities (Columbia University, 1987).
- (9) 출처가 여럿인 경우
  - a. Multiple works by the same author: (Gould, 1987, 1989)
  - b. Multiple works by the same author/year: (Bloom, 1987a, 1987b)
  - c. Multiple authors (Gould, 1989; Smith, 1983; Tutwiler, 1989)

본문에서 남의 글을 있는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양쪽 들여쓰기로 하며 본문 또는 인용문 뒤에 출처의 쪽수까지 밝혀 준다.

The more conservative Bantu languages typically have 5 or 6 productive singular/plural noun class or gender pairs, plus a few classes with no alternation. ... Most Bantu languages and many other languages also have a ‘mass noun’ or ‘liquid’ class which generally exhibits no singular/plural pairing (Demuth et al., 1986, pp. 455-456).

→ 인용문: 본문과 동일한 서체로 하며 좌우 여백만 15씩 준다.

## 2.6. 참고문헌의 양식 Form of References

참고문헌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인용한 자료만을 포함해야 한다. APA 양식에서는 참고문헌에서 학술지(잡지) 이름의 경우에만 각 주요 낱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고 단행본 저서나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문자로 기재한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한국인의 이름이 한글일 때는 모두 쓰지만, 영어이름인 경우에는 첫 글자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어 문헌과 영어 문헌이 같이 있는 경우 한국어 문헌이 앞에 온다. 자세한 것은 실제 예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문헌에 한국인의 이름이 로마자로 기재되는 경우 Hong, G.-D.처럼 성이 아닌 이름은 이니셜만 기재한다.

### 2.7. MS Word로 논문을 작성할 경우

한글 프로그램 사용이 어렵거나, 외국에 체류 중일 때, 영어로 작성하는 논문의 경우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3. 결론Conclusion

논문의 마지막에는 저자의 연락처 및 논문의 접수 및 게재 승인 날짜를 쓴다.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APA 형식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래에 크기와 속성을 요약한 표를 끝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이 논문양식이 『언어학』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 줄 띄기〉

표 2. 글자의 크기와 속성

논문 제목	이름	소속	초 록	1.	1.1.	본문	각주	문헌	
서 체 신명 태명조 Bellflower	윤고덕130	윤고덕120	Poppy	윤명조140	HY크리스탈M	휴먼명조 Poppy	휴먼명조 Poppy	휴먼명조 Poppy	
크 기	16	10	9	9	13.5	10	10	8.5	10
여 백				좌우 10	문단아래 10	문단아래 10			
들여쓰기	0	0	0	0	0	0	15	0	0
내어쓰기	0	0	0	0	0	0	0	11	25
줄 간 격	160	160	160	150	150	150	150	145	150
줄 띄 기	아래 2줄		1줄	2줄	1줄	1줄			
정 렬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양쪽	양쪽	양쪽	양쪽	양쪽	양쪽

<두 줄 띄기>

## 참고문헌References

→ 참고문헌 제목: 윤명조140, 13.5포인트, 문단아래 10, 가운데 정렬

※ 우리말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 영어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 “References”로 표기한다.  
본문의 끝에서 두 줄 띄 후 바로 이어서 제시한다.

### <단행본>

온누리. (1998). *앵글로색슨족의 역사와 언어*. 서울: 들꽃출판.

Alvarez, A. (1970). *The savage god: A study of suicide*. New York: Random House.

Author1, A. A., & Author2, B. B. (n.d.). *Book title*. City, ST, Country: Publisher.

(New York, Seoul, Amsterdam 등 유명한 도시의 경우 도시 이름만 기재 가능. 연도를 모를 때는 n.d.)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199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저자 없는 경우)

Creech, P. J. (1975). *Radiology and technology of the absurd* (3rd ed.). Washington, DC:

Houghton-Mifflin. (재판)

Fox, W., Lion, W., & Lears, J. (Eds.). (1993). *The power of culture: Critical essays*.

Cambridge, MA: MIT Press. (복수 편저자 단행본)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A

translated work and/or a republished work: When you cite this work in text, it should appear with both dates: Laplace (1814/1951))

→ 참고문헌: 본문과 동일한 서체, 양쪽 정렬, 내어쓰기 25, 줄간격 150

### <단행본에 실린 논문>

김대한. (1999). 아시아의 사회언어학 연구동향. 이의오(편). *사회언어학 연구* (pp. 634-670).

서울: 푸른 기와.

Author1, A. A., & Author2, B. B. (2000). Paper title. In C. Author3, D. Author4,

& E. Author5 (Eds.), *Book title* (pp. 110-145). City, ST: Publisher Name. (3명

복수 편저에 포함된 복수 필자 논문)

Author1, A. A., & Author2, B. B. (2000). Paper title. In C. Author3 & E. Author4

(Eds.), *Book title* (pp. 110-145). City, ST: Publisher Name. (2명 복수 편저에 포함된 복

수 필자 논문)

Author1, A. A. (1973). Article (or Chapter) title. In B. B. Author2 (Ed.), *Book title*

(pp. 160-180). City, ST: Publisher. (단수 편저자 단행본의 논문 또는 장)

Law, P. (2000). The DP/PP adjunction asymmetry. In A. Alexiadou, A. Meinunger, & C. Wilder (Eds.), *The syntax of relative clauses* (pp. 161-199).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학술지에 실린 논문>

이어도. (2002a). 술어 명사의 의미 구조. *언어학*, 3(2), 19-40.

이어도. (2002b). 서술 명사의 기준과 의미 구조. *언어*, 7(3), 121-138.

(같은 해에 출판된 두 번째 논문)

Author, A. A. (1975). Article title with lower-case. *Journal Title* 13(2), 161-175.

(논문 제목은 첫 단어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표기 나머지 단어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 정기간행물 명칭은 주요 단어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하고 바로 뒤에 점표(.)를 붙이며 권수(vol. number)까지를 이탤릭체로 표기)

Face, T. L. (2001). *Focus and early peak alignment in Spanish intonation*. To appear in *Probus*, 13. (학술지에 게재 예정인 논문)

Park, M.-K. (2001). Subject-less clefts in Korean: Towards a deletion analysis. *Language Research*, 37(4), 715-739.

#### <영문 논문에서 인용한 한글 논문>

Hong, G.-D. (2002). Sonbae goso-ro eollon gildeurigi ('Silencing media with libel suit'). *Eollon Yeonhab*, 3(2), 19-40. (새로운 한글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고, 논문 이름의 옆에는 영어 번역을 덧붙임)

#### <학위논문>

Hagstrom, P. A. (1999). *Decomposing ques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 (출판되지 않은 박사학위 논문; 학위논문 제목은 단행본과 같이 취급하여 이탤릭체로 표기; 학교명에 주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 도시와 주 이름 명기; 구두점은 모두 점표)

Almeia, D. M. (1990).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Consequences for fathers' stress and father-child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Victoria, Victoria, British Columbia, Canada. (출판되지 않은 석사학위 논문; 미국 이외 국가 소재 대학인 경우 도시, 주, 국가 이름을 명기)

Darling, C. W. (1976). Giver of due regard: the poetry of Richard Wilbu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02), 221A. (University Microfilms No. AAD44-8794) (Dissertation Abstract에서 출판된 학위 논문)

#### <학술대회 발표논문>

Hualde, J. I. (2000). *Intonation in Spanish and the other Ibero-Romance languages*.

*Overview and status questions.* Paper presented at the 30th Linguistic Symposium on Romance Languages, Gainesville, Florida, 24-27 February.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Kim, S.-W. (1989). The QP status of wh-phrases in Korean and Japanese. In *Proceedings of WCCFL VIII*, 358-372.

<출판되지 않은 유인물>

King, A. A. (2000). *Asking questions*. Unpublished manuscript.

<인터넷 자료>

Author, A. A., & Author, B. B. (Date of publication). Title of article. *Title of journal, volume number*(issue number if available). Retrieved month day, year, from <http://Web address>. (Article in an Internet Periodical)

Author, A. A., & Author, B. B. (Date of publication). *Title of article* Retrieved month date, year, Retrieved from <http://Web address>. (Nonperiodical Internet Document, e.g., a Web page or report)

Author, A. A., & Author, B. B. (Date of publication). Title of article. In *Title* (chapter or section number). Retrieved from <http://Web address>. (Part of Nonperiodical Internet Document)

OSU-N Writing Lab. (2000). *APA style guide: The documentation style of the APA*. Retrieved January 15, 2000, from <http://www.newark.ohio-state.edu/~osuwite/apa.htm>

<A book or article with no author or editor named>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 (1993).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New drug appears to sharply cut risk of death from heart failure. (1993, July 15). *The Washington Post*, p. A12. \*NOTE: For parenthetical citations of sources with no author named, use a shortened version of the title instead of an author's name. Use quotation marks and italics as appropriate. For example, parenthetical citations of the two sources above would appear as follows: (Merriam-Webster's, 1993) and ("New Drug," 1993).

## 부록

부록은 참고문헌 끝에서 페이지를 달리하여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표와 그림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말로 기술한 논문에서 부록이 여럿인 경우 ‘부록 1. 부록 제시 요령’, ‘부록 2. 부록의 위치’, 등과 같이 표기하고 영어로 기술한 논문인 경우 ‘Appendix A. How to present appendixes’, ‘Appendix B. Where to place appendixes’ 등과 같이 표기하며 왼쪽 정렬로 제시한다.

〈두 줄 띄기〉

**홍길동**

→ 필자정보: 윤고덕130, 9포인트, 줄간격 150

12345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대한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전화: (02)123-4567  
이메일: honggd@daehan.ac.kr

또는

Gildong Ho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College of Humanities, Daehan University  
1 Jongro 1-ga, Jongro-gu  
Seoul 12345, Korea  
Phone: +82-2-123-4567  
Email: honggs@daehan.ac.kr

※ 필자정보는 부록이 없는 경우 참고문헌 끝에서 두 줄 띄고 제시한다. 논문 심사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 받아 논문최종본을 제출할 때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논문최종수정본에 위에 예시한 방식으로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한 줄 띄기〉

Received on September 11,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12, 2010  
Accepted on December 13, 2010

→ 투고날짜: 윤고덕120, 9포인트, 줄간격 150

이 논문작성 안내는 199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작성 안내는 201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작성 안내는 201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위원회는 대한언어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

제 2조 본 위원회는 대한언어학회 회칙 제6장에 따라 학회 내에 둔다.

## 제 2장 구성

제 3조 **구성:** 위원회는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 편집간사, 분야별 분과위원장 및 편집위원(이하 '위원')을 둔다.

제 4조 **자격:** 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위원은 연구 실적이 지난 5년 동안 1년 평균 100% 이상으로, 국제학회 또는 전국규모의 학회에서 학술 활동이 활발한 학자로서, 음성·음운, 통사, 의미·화용, 응용·교육 등 세부 전공 영역별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위원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 5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체 시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유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선발 절차:** 위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제1항 위원장: 위원장은 대한언어학회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발한다.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편집이사를 겸하고, 학회지 편집, 논문 심사의 공정성, 학회지 발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위원회를 이끈다.

제2항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음성·음운, 통사, 의미·화용, 응용·교육 등 세부 전공 영역별로 1명씩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장이 선발한다.

제3항 위원은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의 직책을 가진 임원이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4항 회장은 위원 후보의 연구경력을 검토하고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선발한다.

제5항 회장은 위원으로 선발된 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촉장을 보낸다.



### 제 3장 기능

- 제 7조 위원회는 대한언어학회의 학술지 『언어학』(*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의 체제, 발간 횟수, 분량, 논문심사의 기준과 절차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단 논문심사 기준 이외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 제 8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학회에 접수된 논문을 심사할 위원을 위원 또는 각 세부 전공 영역의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이들에게 의뢰하고,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 제 4장 회의

- 제 9조 위원장은 매년 4회 학술지 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0조 위원장은 매년 4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외에도 언어학에 관련된 도서를 기획 및 발간하는 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11조 편집회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영역별 분과위원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인터넷 통신으로도 회의와 의결이 성립될 수 있다.

### 제 5장 논문 심사 기준

- 제 12조 **내용의 적절성과 창의성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준수:** 『언어학』에 투고된 논문은 언어학의 세부적인 학술 영역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로 국내외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내용이어야 하며 대한언어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3조 **형식성:** 『언어학』에 투고된 논문은 본 학술지 투고 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제 14조 **논문의 구성 및 연구방법:** 투고된 논문은 언어학 연구에 적합한 논리성과 내용 전개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 설계, 기존 이론의 비판, 자료의 분석, 자기주장의 제시 등의 과정에서 적절한 연구방법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 제 15조 **우수논문 시상:** 학회의 논문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에서 우수하다고 선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정기총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줄 수 있다.
- 제 16조 **보고서 양식:** 제12조와 제13조, 제14조의 심사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영역과 심사내용을 편집위원회 양식 제1호(심사 결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 제 6장 논문 심사 절차

제 17조 **발행:** 『언어학』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4회 발간하며, 연1회에 한하여 국제학술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 18조 **논문 접수:** 『언어학』에 실릴 원고는 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학회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대한언어학회 JAMS)을 통해 투고되어야 한다. 『언어학』에 논문투고 시 공동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자는 논문투고신청서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논문 심사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 받아 논문최종본을 제출할 때 공동연구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논문최종수정본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는 학술지를 발간할 때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집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원고를 받는 대로,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투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확인시킨다.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은 원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 19조 **심사 의뢰:** 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 투고 양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논문 1차 심사를 거쳐 영역별 분과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의뢰서와 투고 논문을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을 통해 보낸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수 없다.

제 20조 **심사 및 보고:** 논문 심사는 투고된 논문의 논문투고양식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1차 심사와 논문 내용을 심사하는 2차 심사로 진행한다. 논문 심사는 재심까지 허용하고, 아래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삼심을 진행한다.

제1항 투고된 논문에 대해 1차 심사로서 위원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 가) 투고된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학회지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나) 논문 투고양식의 준수 여부
- 다)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차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JAMS 상에서 '접수거부'로 처리한다.

제2항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해 2차 심사를 위해 위원장은 영역별 분과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투고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의뢰서와 투고 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보낸다.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고, 다음(제3항~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항 심사위원은 배당된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제4항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평, 판정 및 수정요구 사항을 '심사결과보고

서'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5항 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하면 아래 제21조에서 규정한 평가점수의 합에 따라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되 '계재'와 '계재 불가'에 대해서는 편집회의를 통해 최종 판정한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평가점수의 합이 '수정 후 계재'나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 위원장이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 후 제출을 요구하면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도 평가점수의 합으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을 경우 삼심을 허용하지 않고 편집회의에서 '계재 불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에서 심사위원 3명 중 1명만 '계재 불가' 판정을 내리고 심사위원 2명은 '수정 후 계재' 이상의 판정을 한 경우에만 삼심을 허용한다.

제7항 초심이나 재심에서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 평가점수의 합이 '계재 불가'로 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회의의 의결을 통해 '계재 불가'로 판정한다.

#### 제 21조 편집 회의

제1항 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위원이 보내 온 심사 내용을 검토한 후 계재 여부에 대한 판정을 한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는 "계재(4점), 수정 후 계재(3점), 수정 후 재심(1점), 계재 불가(0점)"와 같이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점수의 합이 11점 이상이면 '계재', 7-10점이면 '수정 후 계재', 3-6점이면 '수정 후 재심', 2점 이하이면 '계재 불가'로 판정을 한다. 그 밖의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항 평가점수의 합으로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 투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결과통보서에서 정한 수정논문 제출 기한을 90일이 경과하도록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후 '계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제 22조 결과 통보

제1항 위원장은 논문심사 판정 결과를 투고자에게 1주일 안에 송부한다.

제2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투고자(제1저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의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 새로운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여 60일 이내에 재심사하고 그 결과를 투고자(제1저자)에게 즉시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 제 23조 게재 제한

제1항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 또는 이미 게재된 논문일지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

된 적이 있거나 무단 도용 사실이 발견된 논문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필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논문 게재를 제한한다.

제2항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논문 게재를 제한한다.

가)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나 수정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다) 수정 또는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여 게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항 학회지 지면의 효과적인 배정을 위하여 동일인이 3회를 연속해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금한다.

제 24조 **심사 및 게재료**: 투고 시에는 학회지의 원고작성 양식에 맞추어 편집된 원고와 함께 심사료(60,000원)를 학회에 입금한다. 심사 후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수정된 논문과 함께 게재료(일반논문: 200,000원+초과 쪽당 1만원, 연구비 수혜논문: 300,000원+초과 쪽당 1만원)를 학회에 입금한다. 단 해외 투고 논문과 대학원생이 단독으로 투고한 논문은 심사료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제 25조 원고의 투고와 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언어학회 ‘언어학 투고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부칙

제 26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199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언어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본회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학문적 양심, 도덕적 의무,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가 진리 탐구라는 학문의 본래 목적에 부응하고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다.

회원은 학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회원으로서의 행동 규범을 규정하므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신뢰 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표절”이라 함은 이미 이루어진 자신이나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조(회원 및 편집위원회의 의무)

- 1) 본회 회원은 학문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본 학회 학술지 『언어학』에 논문을 투고할 때 투고자는 투고논문과 함께 연구윤리 자

가점검 항목 확인을 필한 연구윤리서약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외 투고자의 경우 학회에서 인정하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검증 절차를 필할 수 있다.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 승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편집위원 및 심사자에게는 심사를 의뢰할 수 없다.

3조(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학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5조(위원의 선출)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7조(윤리 위반 사례)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결과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 (1)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3)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4)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 2)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관련된 사항
  - (1) 일반 국민에게 요구되는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2)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 국민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

입 등 부당한 전제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는다.

8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기된 안전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전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전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반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반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9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사의 위촉 내용
-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10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제명
- 2)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11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1)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2)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학회 학술지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보존 조치한다.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목록에서 문제의 논문을 삭제한다.
- 3)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해당 회원의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하고, 논문저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징계의 세부적 사항을 통보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을 통보한다.
- 4)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12조(행정사항)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부칙

13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7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언어학**

제27권 3호

---

발행일 | 2019년 9월 30일

발행인 | 이 인

발행처 | **대한언어학회**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영어교육학과

안정근 편집위원장  
linguistics1988@gmail.com

---

ISSN 2671-6283 (Online)

#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Volume 27 Number 3, Autumn 2019

ISSN 2671-6283(Online)

## Table of Contents

A Study of the Complaint Speech Act for Koreans Ahn, Jeong Khn	1
A Study on the Use of Expressive Sentence Patterns according to Korean Learners' Proficiency Lee, Yumi	2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in Korean EFL Learners Young Ah Cho · Youngsu Kim	53
Gapping in <i>V+ko</i> Construction in Korean as Dependent Ellipsis YoungSik Choi	75
An Alternative Account of English Consonant Cluster Adaptations in Bengali Dialects Chin-Wan Chung	99
Labeling and Moving Adjunction Structures Rhanghyeyun Kim	125
Readers' Language Experience in Generating Korean <i>Wh</i> -Constructions On-Soon Lee	149